

현대불교

불 교 성 지 순 례 전 문
신비의 라오스 6일
8월 23일, 30일 단 2번 8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6월 29일(음력 5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 532 호

더 넓은 세상으로 가자

파라미타 · 대불어 · 선재학교 · 本社 등 여름 청소년 해외탐방 프로그램 마련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 현대불교신문, 선재학교 등이 불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몽골로 떠났던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는 올해 일본 속의 한국문화유산을 찾아간다.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 자율탐사단'을 조직해 교토 오사카 나라 등을 방문한다. 일본의 고도(古都)에서 신라 · 고구려 · 백제 문화의 흔적을 찾으며 일본과 한국의 고대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드높인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파라미타 홈페이지(paramita.or.kr)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6월 말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02) 723-6165

대불어(회장 정여)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으로 떠나는 '배낭메고 세계문화유산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토, 고베, 나라, 오사카 등지의 다양한 역사유적을 둘러보고 지진현장을 답사하는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가능하며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 정일훈 과장은 "역사현장을 직접 가서 다양한 역사지식을 쌓을 수 있다"며 "어릴 때 경험은 일생을 살면서 큰 자산역할을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신청은 7월 15일까지. (051) 864-4569

해외에 체류하며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겸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에서 주최하는 '2005 부다피아 하와이 캠프'는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이미 선착순 모집 정원이 다 차서 조기마감 됐다.

참가학생들은 원어민 선생님에게 총 60시간의 수준별 영어강의를 받는다. 또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를 실제상황에 적용해 본다.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잠수함 및 요트 등의 해양스포츠와 관광명소 탐방 등의 과외활동도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다. (02) 2004-8234

어린 자녀가 독립심을 키우고 스스로를 성찰할 기회를 갖길 원한다면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도 좋다.

충주 선재학교(대표 유지선)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 신비의 나라 티베트로 배낭여행을 떠난다. 네팔에서 출발, 히말라야 우정국로를 통해 티베트에 입국한 뒤 중국으로 돌아온다. 참가 청소년들은 짝을 지어 티베트불교의 원류를 찾아 여행하게 된다. 7월 중순까지 초등학생과 중 · 고등학생 1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43) 855-0408

파라미타의 조한곤 과장은 "무엇보다 교육효과가 크다"며 "국내에만 머물렀던 불교계 청소년 행사들이, 학부모들의 문화체험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점차 해외로 발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6월 23일 봉행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설립 10주년 기념법회. 왼쪽부터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일면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한화갑 민주당 대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종회의장 법등 스님,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 사진=고영배 기자

이제부터 '정신복지시대' 열자

조계종 복지재단 창립 10주년 맞아 새방향 모색

창립 10주년을 맞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기념법회가 6월 23일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치사를 통해 "물질적 사회복지의 한계를 벗어나 정신적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복지를 이룩하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호하는 데 더욱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재단 소개 · 난치병 어린이 지원성금 전달 · 10주년 기념사업 보고 ·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식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종단에서 모금을 통해 마련한 1000만원을 난치병 어린이 10여명에게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기념법회에 앞서 진행된 '불교사회복지 아젠다 개발 세미나'에서는 불교복지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강진 기자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불교와 여성' 13면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신청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문의 02)2004-8211~2

마곡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 명상' 템플스테이
'치유명상' 7월 1~3일 (041-841-6226)

FUN & FUN English CAMP
영어 어린이, 청소년
불교문화캠프
● 주최 : 다보사 다보수련원
● 기간 : 2005년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 장소 : 다보수련원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 주요프로그램 : 영어테마 A, 영어테마 B, 스피킹 레벨 테스트, Ice braking game, 스토리 텔링, 영어 동요 배우기, 영어 퀴즈쇼, 주제별 토론, 영어 스포츠 게임, O/X 게임, Scavenger hunt, 영어 연극 등
● 대 상 :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2학년
● 비 용 : 380,000원
● 문 의 : 02)2661-4069 / 043)833-7789

법장 스님 "연기법 따라 생명 살리는 연구를…" "난치병 치료는 '과학적 자비' 일것…" 황우석 교수



황우석 교수가 법장 스님의 격려 방문을 받고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법장 스님, 황우석 교수 연구실 방문 '격려'

일부 종교계에서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6월 20일 서울대 황 교수 연구실을 방문 격려했다.

황 교수는 "오늘 이렇게 총무원장 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 준 것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받들고 어긋남 없이 정진하라는 교훈의 자리라고 알고 있다"며 법장 스님에게 20여분 동안 연구 성과를 설명했다.

황 교수는 연구 성과를 설명하면서 "불자로서 이 연구가 부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며 "과학기술을 개발해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과학적 자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장 스님은 "난치병은 환자도 고생이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이다. 이런 점에서 황 교수의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기쁜 소식일 것"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

법장 스님은 또 "불자로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니 저것이 멸한다는 '연기법칙'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장 스님은 "황 교수의 연구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직접 와서 보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황 교수는 "불자로서 겸손하게 정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암도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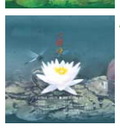
마하몰 추천 우수상품 특별기획전
신문지면광고를 통한 전화주문 고객에 한하여 아래 특판가격으로 드립니다.



▌심경(心經)
"반야심경", "심묘장구대다라니", "금강경찬" 불경을 힙합리듬에 기타소리를 접목시킨 앨범.
30년 동안 음반제작자경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불교음악을 보급해온 안치행씨가 제작하였고 시인 김하리씨가 불경의 내용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 낭송을 하였습니다.
1set : 1. 배우기 쉬운 힙합 불경 2. 의미 있는 노래
2set : 3. 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4. 옴나니 반메홈,관세음보살
3set : 5. 불자가요메들리 1 6. 불자가요메들리 2


心經 (1) – 배우기 쉬운 힙합 불경
1. 반야심경
2. 신묘장구대다라니
3. 금강경찬
4. 옴마니반메홈


心經 (2) – 의미 있는 노래
1. 연등축제 2. 마음을 다스리는 글 3. 무심
4. 보왕삼매론 5. 무상계 6. 마음의 등불
7. 회심곡 8. 이제아제 바라아제 9. 생사윤회
10. 어이이나


心經 (3) – 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시낭송
1. 천수경 2. 금강경 3. 반야심경
4. 법구경 5. 무상계 6. 보왕삼매론
7. 마음을 다스리는 글
8. 어머니 아리랑(노래)
9. 독도의 눈물(노래)
10. 옴마니반메홈


心經 (3) – 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시낭송
1. 옴마니반메홈 – 작곡 : 안치행
2. 관세음보살 – 작곡:안치행


心經 (5) – 불자 가요메들리 1
1.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2. 옴마니반메홈
3. 부처님 뜻
4. 인연 5. 오계
6. 니르바나
7. 옴마니반메홈


心經 (6) – 불자 가요메들리 2
1. 법문사경 2. 나무관세음보살 3. 관세음보살
4. 향불 5. 법화경 6. 옴마니반메홈
7. 팔자 8. 촛불공양 9. 관세음보살
10. 회자정리 11. 라홀라 12. 옴마니반메홈
13. 한번만 웃어봐요 14. 관세음보살

· 2CD(1set) : 20,000원 · 2MC(1set) : 10,000원 · 풀세트(6CD,6MC) : 75,000원

▌반야심경 고급손목시계
불자님을 위해 스위스 론다 최고급무브먼트를 사용하여 만든 반야심경손목시계
큐빅 13피스와 6시와 12시를 제외한 시간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글자를 새겨 견고함과 품격을 더한 고급손목시계


라운드브라운 (TCW100-1)


라운드블랙 (TCW100-2)


아크브라운 (TCW101-1)


아크블랙 (TCW101-2)


손목시계케이스

77,000원
55,000원

▌동자캐릭터 손목시계
남녀노소 누구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고급 무브먼트를 사용한 패션 손목시계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의 시계줄과 동자승 캐릭터가 새겨져 있습니다


[TCW200-1] [TCW200-2] [TCW200-3] [TCW200-4]


[TCW201-1] [TCW201-2]

▶ 재 질 : 케스팅케이스
▶ 무브먼트 : Japan Move
▶ Print Dial
▶ 3기압 방수

19,800원

▌음이온 석재다보탑 ~~398,000원~~ → 300,000원
'음이온'이 발산하며 '야광빛'으로 신비로운 불국사 다보탑 석재 모형(1:30)



1) 재질 : 자연 대리석 (90%). 야명석 (8%). 음이온분말 (2%).
2) 특징 : 본 제품은 우리나라 국보 제20호인 "다보탑"을 석재로 조각및 기계가공하여 만든 국내유일의 "소형석재모형다보탑" 이며 다보탑 실제크기의 1/45로축소 제작되었고 일반적인 모형 다보탑(크리스탈및 종이재질)과는 달리 섬세한 조각기술과 기계가공으로 예술품으로서의 소장가치는 물론 실내 인테리어용 소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또한 "탑"을 중심으로 자연발산하는 "기" 와 "음이온" 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야광기능이 있어 야간에는 녹색야광빛을 발산하여 실내분위기를 은은하게 연출합니다.
3) 제품사양 : · 제품 규격 – 22 × 22 × 31cm · 제품 무게 – 3 kg
4) 포장사양 : · 포장 재질 – 오동나무 · 포장 규격 – 사각박스 (40 × 27cm)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2004-9218~9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자비·평화 메신저로 동분서주

법장 스님, 이라크·미국·북한 방문 결산… '민간 외교' 괄목

복원 불사가 한창인 금강산 신계사에 스님 1명과 재가자 2명이 더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에게 현재 신계사에 있는 제정 스님 외 스님 1명과 재가자 2명이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즉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6월 22일 밝혔다.

최근 이라크, 미국, 북한 등을 잇달아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또 "내년 부처님오신날에 북한 신계사와 보현사에 등다는 문제와, 올 9월 법운암 단청 불사 회향식 때 남한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 방안에 협의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장 스님은 "하안거 때 금강산 마하연에 남한 스님이 안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검토하겠다'는 짧은 대답만 들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장 스님은 또 "북한 고위 관계자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 답방이 진정한 6·15 공동선언 실천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법장 스님은 "앞으로 전국에 상설 모금창구를 만들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북한 방문 소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미주포교와 관련해 법장 스님은 "현실적으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이 필요하지만 주로 개인사찰들이어서 교구 및 교구장 선정, 산하 사찰 통제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뜻을 밝혔다.

한편 법장 스님 미국 방문시 미 정부 대북 관계자를 통해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가 6월 22일 공개됐다.

법장 스님은 친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경계하는 것이 바로 살생"이라고 소개하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결과가 인류를 대량살상하는 것은 인류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특히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군사행동에 돌입할 경우 그 자체가 동북아시아의 재앙이며, 전체 인류에게 지울 수 없는 불행한 역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법장 스님 주요 '해외 활동'

방문지	기 간	주요활동
이라크 자이툰부대	5월 11~13일	· 부처님 오신 숭고한 뜻을 중동지역에 전달 · 평화유지군 진정한 역할 제시 · 불자장병들에게 자부심과 불교위상 증대
미국 워싱턴, 보스턴, 뉴욕, LA	5월 24일~6월 1일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간외교 사절 역할 수행 · 미주교민 사회에 불교중흥의 새로운 전기 마련 ·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세계석학들의 관심과 연구 제안 · 세계평화 정착을 위한 종교간 연대교류 활성화 필요성 확인
북한 평양	6월 14~17일	· 6.15 대회 개막식에서 명예대표로 연설 · 평양 광법사 남북합동법회 및 남북불교회담 ·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메시지 전달

강원 정원 60명 이하 동화사서 교직자 토론회

6월 22일 대구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린 조계종 승가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교육기관 교직자 토론회'에서 강원마다 20~60명 정도의 학인을 두도록 하는 정원기준안에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19개 전통강원, 기본선원,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기본교육기관 소임자 30여명이 참여해 교육원이 마련한 '강원 정원 조정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강원 당 학년별 학생수를 최소 5명(전체 20명), 최대 15명(전체 60명)의 학인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각 강원의 특수성을 존중해 현장실사와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각 강원마다 학인 정원을 정하기로 했다.

동화사=배지선 기자

내달 북에 밀가루 전달 조계종 중신회 모금운동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지원하기 위한 1차 모금운동을 7월 2일까지 전개한다. 1차 모금이 끝나는 7월 중순경 밀가루 60톤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는 앞으로 연중 모금 체제로 돌입, 굶주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밀가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02)733-7277 **강지연 기자**

조계종 신도임원교육 실시 고운사 본말사 임원대상

조계종의 올해 첫 신도임원교육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의성 고운사에서 열렸다.

연수회에서는 △승단의 역사와 신도회의 구성 △조계종의 정체성 등에 관한 강연과 주제토론, 시청각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시청각 교육이 처음 실시돼 눈길을 끌었으며, 각 교구 본말사에서 준비했던 연수교육자료를 포교원이 직접 만들어 교육의 통일성을 높였다.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은 올 연말까지 24개 교구본사에서 실시된다. **이은비 기자**

"부정·비리 없어…허위 유포 유감"

조계종 기획실장, 박물관 불사 관련 담화문

조계종이 최근 종단상황과 관련해 대변인 기획실장 법안 스님 명의의 담화문을 6월 23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먼저 "최근 몇몇 사찰 주지스님들의 불사관계 비리와 함께 중앙종단이 시행하는 불교중앙박물관 내부시설 공사의 문제로 인해 국민과 종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특히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와 관련 '총무원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퍼스디자인에 공사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를 낙찰 받은 회사는 '퍼스디자인'이 아니라 '예성애드컴'"이라며 "'예성애드컴'은 영담스님이 역사문화기념관 공사 집행위원장이었을 당시 8,800만원의 용역비를 줘 박물관 설계를 맡긴 업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 "총무원에서 2004년 9월 1일 지급한 공사 선수금 18억8천만원은 '예성애드컴'에 지불했고 '예성애드컴'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며 "계약금을 '예성애드컴'이 아닌 '퍼스디자인'의 사장에게 지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서가 4개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무원장이 결재한 계약 당사자간 법적구속력을 갖는 계약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62억원 계약서 하나뿐"이라고 발표했다.

조계종은 또 "이 사건은 전시시설 업체들 간의 담합 등 오랜 관행에 종무원들이 7월말로 예정된 준공 시점을 맞추겠다는 조급한 생각으로 업자들의 불법을 묵인하고 일부 요구에 부응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조계종은 "종단과 종도가 입을 피해를 생각해 종단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 가는 지혜를 가져주실 것을 문제를 제기한 스님께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업체 담합 확인…원가재산정 필요"

역사문화기념관 조사대책위 중간조사결과 발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사대책위원회(위원장 장주, 이하 조사대책위)는 6월 23일 중간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출된 설계도면 및 사양서의 부실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가산정이 어려웠다"며 "추후에 원가 재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책위는 또 입찰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며 사법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사대책위는 18억8000여만원이 먼저 지급된 것은 계약서에 도급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대책위 최연 대변인은 "향후 전문감리를 진행해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며, 감리결과에 따라 재시공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대책위는 7월말경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불사관련 제도개선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각종 수련회 정보다양 신행정보센터 홈피 열어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던 '신행정보센터(www.ibuddhism.org)' 사이트를 새롭게 선보이고 6월23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다시 문을 연 신행정보센터는 템플스테이와 수련법회 소식을 구분 없이 게재했던 예전과는 달리, 수련법회 소식 위주로 업데이트 된다. 또 전국 본사와 말사 실무진이 직접 정보를 올려 전국 수련법회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은비 기자

불교환경종책 5개년 계획 '곧 뜬다'

조계종환경위, 실천과제등 의제 마무리 단계

조계종의 환경 종책 수립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불교환경운동이 '주먹구구식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교계 사상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교환경의제21'(이하 의제21)이 사실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고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불교환경종책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 최종 검토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5개년 계획. 6월 23일 열린 조계종 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5개년 계획은 기존의 종단환경종책평가와 불교환경종책과제 및 계획을 담고 있다. 5개년 계획에서 조계종은 전문성 부족과 대응의 일회성, 대안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불교환경종책의 실천과제와 연구과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과 상임운영위원장에 각각 정념 스님(사회부장)과 성효 스님(용인 용덕사 주지)이 선출됐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가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성효 스님 인터뷰 14면)

유철주 기자

"현안 해결에 공조를"

태·천·진 사회부장 손잡아

태고, 천태, 진각종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이행정 전수는 6월 22일 서울 견지동 천태종 나누며하나되 기운동본부 사무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김원우 기자

금강산 사찰복원에 협력 현정은 회장 조계종에 약속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4대 사찰복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정은 회장은 6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신계사를 비롯한 금강산 4대 사찰복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장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냉전 때부터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셨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유지를 잘 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정념 스님, 현대택배 김병훈 사장, 김동건 변호사 등이 배석했다.

유철주 기자

"종교는 인류평화 열쇠" 세계종교지도자 세미나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종교와 평화 세미나가 6월 7일과 8일 양일간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회의장에서 150여 명의 종교 지도자와 석학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유라시아 다이얼로그 플랫폼과 동양 연구소, 러시아 사회과학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대표로 참석한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부처님의 동체자비 사상과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을 본받고 미륀다왕문경에서 제시한 현자의 대화 방법을 종교간의 대화 방법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세계 각 종교 지도자들은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종교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충돌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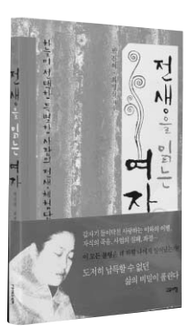
인간의 삶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 펼쳐지고 그 인과율을 인수분해 하면 사주팔자라는 답이 나온다.
사주팔자는 그 사람의 전생의 성적표이고, 그 성적표를 읽어낼 수 만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길흉화복과 흥망성쇠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해결할 수 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리딩과목

- 내가 외 이런 병에 걸렸을까?
-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 조상묘(음택)를 어디다 쓸까?
- 사찰의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 가족과 전생의 인연은 무엇이었을까?
- 재운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 미래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할까?
- 공부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 동업자와의 인연은 무엇이며 사업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을까?
- 결혼 할 사람과의 인연은 무엇일까?
- 사업을 번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후원 : 해운대 약사사

안전 · 경보시스템 '매우 열악'

조계종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결과 발표
도난에는 신경쓰고 화재에는 무관심…개선책 시급

주요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 대부분이 화재경보기 설치가 안 돼 있어 화재발생시 초기발견이 어렵고, 이들 중 상당수 사찰은 산림에 지나치게 인접해 산불로부터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문화부는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탁연)에서 '주요사찰 방재대책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사찰 방재대책현황조사'는 조계종 문화부가 강화 전등사, 김제 금산사, 구례 화엄사, 합천 해인사 등 보물급 목조건축물을 2동 이상 보유한 전국 32개 사찰을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안전선 설정 △소화전 배치 및 작동 △소방로 △경보시스템 △유관기관 대응 등 10여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르면 특히 열악한 항목은 '안전선'과 '경보시스템'이었다. 이 항목에 대한 32개 사찰 평균점수가 10점 만점에 각각 1.64와 2.66에 불과했다. 개심사 · 금산사 · 무위사 · 송광사 등 18개 사찰은 산림과 인접해, 안전선이 없다시피 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대상 사찰 대부분이 도난방지시설만 갖추었을 뿐 화재경보기는 설치하지 않아 화재 초동진압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13개 사찰의 경우 소방차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15분을 웃돌았다.

시설 노후로 인한 문제도 시정돼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범어사의 경우 소방수 배관시설이 낡아 평상시 잠가두고 있었고, 법주사는 배관 노후화로 누수되는 용수에 대한 요금 부담 책임을 둘러싼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마찰로 제한적으로 급수받는 상황이어서 소방시설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방화림 조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화도 전등사의 경우 토착식생은 방화에 유리한 참나무류의 활엽수림이었으나, 근래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수림대가 인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문화부 조사단은 현황조사를 전통사찰에까지 확대실시할 것과 문화재의 특수성에 입각한 초기탐지시설 강화 및 방수총 등의 설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방재매뉴얼 및 행동지침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산지관리법에 방화시설 설치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재난대비에 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보보존위원들은 조사단의 대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흥선 스님(직지사성보박물관장)은 "종단과 스님들이 화재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그 원인을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에서 찾았다. 또 낙산사 동종 복원을 위한 실측자료가 미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재 실측자료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양모 위원은 큰 사찰에 소방서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고,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는 "문화재청 내에 방화전문가가 배치돼 방화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동국대 일산병원 영안실

'재단이 운영'

6월 29일 개원하는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의 영안실 운영이 병원 직영 형태로 가닥을 잡았으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재단으로 결정됐다.

동국대 법인의 의료경영개선위원회(위원장 영담)는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무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6월 21일 확인됐다. 이는 영안실 대실료 수입은 병원이, 실제 돈이 되는 수익사업은 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재단이 영안실 운영를 독점하려한다는 비난여론을

대실료 수입은 병원이, 투명성 논란은 여전

피해 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일산불교병원 영안실은 개원초기 병원의 주요 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병원직영이냐 재단 운영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그동안 재단의 일부 이사들은 "영안실 운영으로 재단이 수익을 내서 이를 다시 학교로 전입시키면 병원에서 직영한 것과 마찬가지"며 "재단이 직영해 전입하면 전입금 규모가 늘어나면 국고보조나 교육부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재단의 영안실 운영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동국대 교수회 관계자는 "재단이 영안실 운영에 관여하게 되면 수익규모나 운영전반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용수 기자

'전방GP 총기사고' 계기 군포교 중요성 확산

"군종교구가 장병들 정신적 의지처 돼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이 총기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의 빈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군불교위원장 성광 · 도영 ·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단주 · 불경 보내기 등 지속… 상담요원 확보 시급

6월 19일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장병 8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충격적인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군종교구 출범을 앞둔 불교계가 일부 군 장병의 정신적 아노미 치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포교 담당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번 총기난사 사건을 급격한 사회 민주화 흐름을 군대문화가 좇아가지 못하고 신세대 장병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군대문화의 획일주의와 전체주의와 충돌한 결과, 신세대가 기성세대의 문화에 대해 공격적인 성향이 극렬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불교계가 군 장병의 정신적 의지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회에서 답답한 군부대로의 이동은 신세대 장병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충격을 준다. 불교는 군 장병들이 곧 터질 듯 위태로운 풍선과 같은 신세대 장병들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곧 출범할 군종교구와 130여 군승의 역할이 크다. 종교적 해법을 통해 군 장병들이 갖는 극도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종교 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군 장병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할 상담요원 양성도 시급하다.

군포교 담당자들은 "불자가정 역시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모가 군인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단주와 불경 등이 군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이 입대를 앞둔 자식들과 함께 사찰을 찾아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슬기롭게 군 생활을 마치는 지혜를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

강유신 기자

한·일 **북관대첩비 반환 합의** 남·북

초산 스님 "8 · 15 이전 가져올 계획"

북관대첩비 반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관대첩비 반환의 마지막 변수였던 한일 정부간, 남북 당국간의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6월 20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양국 민간 차원에서 반환 문제가 거론된 지 10여년 만이다.

또 6월 21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당국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북관대첩비 반환을 주도하고 있는 한일불교복지협의회 초산 스님은 "남, 북, 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환을 합의한 만큼 곧바로 절차를 밟아 8월 15일 이전에 북관대첩비를 가져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관대첩비 민족운동중앙회 남측 대표인 초산 스님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은 3월 28일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북관대첩비를 북한으로 옮겨와 복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철주 기자

나누는 삶의 행복지수 '62점'

아름다운 재단 · 경향신문, 남녀성인 1000명 설문

기부나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누면 행복해진다'는 세간의 말이 수치화되어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름다운재단과 경향신문이 6월 12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와 나눔의 효과'를 전화설문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기부참여자의 평균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2.05점으로 비참여자의 52.98점보다 9.07점 높았다. 자원봉사 참여자의 행복지수도 62.57점으로 비참여자의 54.65점보다 7.92점 높아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결과는 1인당 기부금액이 늘고 1회성에서 정기 기부 및 자원봉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강지연 기자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청사진 나와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조감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이 경기도 이천시에 건립 준비 중인 장애인생활터전 '자비복지타운' 조감도를 완성, 건축설계를 완료함에 따라 이천시로부터 6월 3일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승가원은 이천 설성면의 3만평 부지 중 9000평 대지를 이용해 우선 1단계로 필수 시설인 장애인 생활실과 재활치료센터를 건립하고 그 뒤를 이어 체육관, 법당 등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02)928-0752

김강진 기자

텐진 팔모 스님 내한 강연 잇따라

서양 여성 최초로 티베트 스님이 되어 33세의 나이에 히말라야 설산 동굴에서 12년간 수행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텐진 팔모 스님이 6월 28일 내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초청으로 내한한 텐진 팔모 스님은 '법과 사랑나눔'을 대주제로 서울 도선사(30일 오후 12시), 서울 봉은사(7월 7일 오전 11시) 서울 불광사(10일 오전 11시) 서울 능인선원(18일 오후 1시) 등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김천 청암사(7월 5일) 청도 운문사(16일) 공주 동학사(21일) 등 비구니 강원에서는 비구니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02)722-2101

강지연 기자

수경사 아동 '안전조치'

그동안 영유아를 돌보면서 일부 아동학대 사례가 제기됐던 미인가 복지시설 서울 수경사문제와 관련해 조계종과 사회복지재단이 아동들의 신변확보에 나섰다. 종단과 재단은 아동보호시설과의 연계와 대화를 통해 수경사 아동들의 신변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여타 불교시설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6월 21일 밝혔다.

김강진 기자



지상중계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8>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일시 : 불기 2549년 6월 19일
■강사 : 최혜경 교수(이화여대 소비자인간발달학)
■주제 :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
■법회 동영상 서비스 buddhanews.com

자녀는 어제의 나 부모는 내일의 나

희생과 보은 조화가 행복 열쇠

이유 불문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던 사회.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나 구시대 윤리의 무게는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50대가 부모-자식간의 관계에서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의 윤리를 기대하는 '노부모', 그리고 이전의 윤리를 등지고 서 있는 '자녀'를 동시에 끌고 가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슴이 갑갑한' 이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조언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19일, 안성 도피안사와 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구국구세 대법회' 여덟번째 자리에서 최혜경 교수(이화여대 소비자인간발달학과)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되짚어 봐야 할 사안들을 환기시키며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는 '가족 중심의 사고'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때 원만해진다. 사진은 서울 종묘공원에서 소일하는 노인들. 사진=고영배 기자

新노년문화를 대비하자

노년기 삶을 사는 이들이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개념은 '노년기 삶의 의미'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의 견해를 소개했다. 융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자녀들을 혼인시켜 떠나보낸 이후의 삶에서 어떠한 목적을 찾지 못했기에, 자녀들의 혼사를 치른 이후에는 다시 '젊었을 당시의 삶'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그러나 동양의 경우 노인 중심의 삶과 문화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 젊음 중심의 문화로 편입되기보다는 독자적인 삶과 문화를 가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여기'의 한국사회의 노년기 삶과 문화는 어떠할까. 현재 70~80대의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중·장년기를 '자식을 위한 가장의 삶'에 희생했다. 이후 물질적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워진 노년기에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바람은 여전하다. 해바라기처럼 자식만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현재 70~80대 노인들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지금 노년을 준비하는 50대는 그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다. 자녀를 예전처럼 많이 낳지 않아 자식이 품을 떠난 이후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자신의 시간을 운용하는 기회도 늘었다.

최 교수는 이를 '新노년문화'라 지칭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숙고와 대비가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 중심 사고 먼저 버려야

시대의 변화도 인정하고, 변해야겠다는 당위도 인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과거 윤리에 젖어온 이들이 그간의 습을 버리고 금세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 교수는 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 변화의 방법을 제시했다.

"시아버님이 시력을 잃으셔서 생활하는데 곤란을 겪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식들의 고민과 불편함은 말로 다 못하죠. 마음 언저리에 항상 응어리가 진 듯 부모뵙기도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픈 것이 자식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효 관념에 젖은 부모의 생각은 또 달라요.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도 자식들에게 매일 같이 전화하며 자식들 걱정을 놓지 않는데, 정작 자녀들은 이틀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최 교수는 '융합'으로 표현되는 이들 부모-자식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식에게 베풀고 희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는 생각과 태도에서 갈등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내 생각은 옳고 자녀들은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평가받기가 어렵다. 이는 자녀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삶의 목표 등을 전가하면서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이루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최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나를 분리시키고 개별 삶과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가족 중심의 사고'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유교적 윤리의 영향에 따라 가족의 개념이 중시돼 왔다. 세계의 중심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보다는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는 관계가 강조됐고, 당연히 효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모만을 위한 자녀, 장남을 위한 동생의 개념은 오히려 지금 여기의 가족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움직이는 노년이 행복하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애정이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힘들게 할지라도, 노인들의 노년기 행복감의 척도는 여전히 자식의 행복이었다.

최 교수가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에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자식에 대한 애정은 어쩌면 부모의 어쩔 수 없는 '무조건적 감정'일지 모른다. 문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억눌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승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최 교수가 강조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다.

"자식들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주려고 회사일에만 매진하는 가장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는 아버지의 생각이 자식들에게 은연중에 주입되게 되고, 그것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아내와의 관계죠. 은퇴 후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 교수는 노년기 교육 기회의 확대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사회 활동 역시 적극 활용하라고 권했다. 이때 사찰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 법회 활동과 경전 봉독 등의 지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명상을 지속할 경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템플스테이 등을 포함한 여행, 찬불가 배우기 등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도 역시 노년의 삶에 적지 않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말한다.

다음 주제: 바람직한 가정과 부부상(강사 최훈동 · 7월 3일)

■질의 응답

-30~40대가 '폭포수'에 비유된다면, 50~60대는 '바다로 흐르는 강물', 그 이상은 '바다'로 개념 지을 수 있다. 폭포수는 지식은 넘치나 지혜가 부족한 탓에 자식을 양육할 만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다. 고기는 바다에서 양육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바다에 비유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다. 그런데 왜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것일까?

▲현재 60~70대 노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한 이용하지도 못하는 듯하다. 그들이 역할자로서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그에 따른 행동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노인들의 멘토링(후견인)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삶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가정에서 세대간의 종교 문제도 갈등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종교 문제로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이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가치관이 명확하게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인지, 문제되는 사안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제사를 미풍양속의 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 등이 그 예다. 현재로서는 내부적인 타협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최혜경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가족학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성인 및 노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노년학회 이사 · 대한가정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랑학> <노인과 실버산업> 등의 저서가 있다.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임원 공고

승정원 원장 지철
종의회 의장 무송
호법원 원장 대원
교육원 원장 구진
연수원 원장 도명
총무원 원장 도법

● 서울 총무원
총무부장 일두
교육부장 무초
문화부장 도심
연수부장 법연
비구니부장 혜광
문화국장 시행
연수국장 지우
의전국장 원명

● 포교사단
서울포교국장 보현
부산포교국장 혜현
대구포교국장 혜원

● 포교단특별자문위원
청암스님 성안스님
광운스님 법정스님
청강스님 해월스님

● 각시 도 종무원 원장
경기종무원 원장 법화
경북종무원 원장 태룡
충남종무원 원장 수암
경남종무원 원장 원타
대구종무원 원장 성진
대전종무원 원장 혜각
사서실국장 성부
수행특보 성덕 성혜

■서울총무원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2층)
대표전화 02)3217-4611 팩스 02)391-8583

한국생활불교조계종
경남법사단종무원
법사승려종무원 원장 도해 대법사

종무원.총국장 혜명법사
종무 1국 청송법사
종무 2국 혜연법사
수진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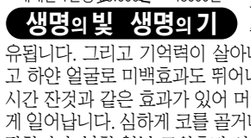
● 부산지부종무소
지국장 혜성법사
부산지부 051)865-7975
● 충남지부종무소
지국장 성각법사
충남지부 041)547-1442
● 강원지부종무소
지국장 덕경법사
강원지부 033)553-6653
● 포교사단
태성법사, 법정법사, 혜경법사
목암법사, 개안법사, 자은법사
혜정법사, 덕운법사, 성수법사

※ 법사 및 부처님 신봉제자 입종바랍니다

■사무실 : 경남 마산시 중성동 20-35(2층)
대표전화 055)241-0253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생명의빛 생명의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125,000원~~ → 95.000원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천년 고찰에서 고향생각 달랬어요”

부산불교신도회, 재부 외국인 노동자 범어사 초청
공양 · 사찰안내 · 법문 등 … 연 2~4회 행사 계획



부산불교신도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범어사 초청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사진은 6월 20일 범어사를 찾은 부산 거주 외국인노동자들.

“한국 사찰에 처음 와 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반타(25 · 베트남)

“서울에서 일하다가 부산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범어사에는 처음 왔는데 스님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돼 기뻐요.” 완진흥(30 · 베트남)

고국을 떠나 먼 이국땅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부산의 외국인 노동자 50여 명이 6월 20일 오후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초청으로 범어사를 찾았다. 네팔, 베트남,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그들이 떠나온 곳은 달라도 모두 이국 생활의 고달픔과 소외감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들이었다.

그래서일까? 점심 공양 후 자원봉사자의 안내로 범어사를 둘러본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좋다” “아름답다” “즐겁다” 등 한마디 짧은 말로 혹은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불교신도회가 부산 인근에 거주하는 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개최한 첫 행사로 우선 부산과 양산 인근에서 한국어 공부 모임의 외국인들이 범어사에 초청됐다. 공양, 사찰 안내, 범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의 법문, 선물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공병수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머나먼 이국 생활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우리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신심의 안정을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연말에 다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이날 행사를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연 4회 정도로 확대, 재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포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여해 교류를 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수행과 참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가신도 중심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부산불교신회는 7월 5일 오후 7시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부산불교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신도회 포교교육분과(위원장 이숙희)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지역신도회의 활성화를 위한 종단의 역할과 정책이라는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의 기조 발제와 부산불교신도회의 역할과 과제, 지역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승가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불교계의 내외적 변화에 맞춘 부산불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051)853-2021

글 · 사진=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순국선열 합동 위령재 봉행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서 1천여 대중 참가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운송)은 6월 24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제24회 순국선열호국전몰군경 합동위령재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재에는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법정, 총무원장 운송, 종회의장 성주, 교육원장 송파, 대한불교종단협의회의장 의륜, 호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배상도 칠곡군수, 6 · 25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1천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의전단이 법전사 법당에서 순국선열 위패를 이운해오는 이운식을 시작으로 법요식과 위령재가 거행됐다.

위령재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육법공양, 묵념, 헌화 및 분향, 묘법연화경 봉독, 대회사, 추모제 헌시로 이어졌다.

종정 혜륜 스님은 “24년 전 참선을 하다가 칠곡이 한국전쟁당시 치열했던 접전지였음을 알고 위령탑과 전적비를 세우게 됐다”며 “위령재를 통해 모든 불자들에게 호국불교의 이상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애국애족의 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울산 정토사 설법전 상량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6월 23일 설법전 법당 상량식 및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초청 설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은 포교원장 도영 스님,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을 비롯한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상량식을 가진 설법전은 2004년 불사를 시작해 1층에 85평 규모의 생활관에 신도휴게실, 신도회의실, 사무실, 차방, 불교용품점을 두고 2층은 3백여 명의 대중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설법전을 갖췄다.

상량식에 앞서 한국운전기사불자회 울산 지역회 창립 법회와 함께 열린 도영 스님 초청 설법회로 열렸다.

한편 덕진 스님은 7월 2일 12시 정토사 강당에서 스님의 명상 시집 <맑은 마음 고운 세상>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052)258-9944 **천미희 기자**

종교인 한자리 모여 화합

6월 24일 저녁 부산 여여선원 법당에 불교, 개신교, 가톨릭,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 6개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공동선 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 대표 정여) 주최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가 열린 이날 여여선원 법당은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인 선(善)을 향한 진솔한 마음들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에는 정여 스님(여여선원장), 월강 스님(금어사 주지), 한파 스님(가야불교문화원 이사장), 남궁성 교무(원불교), 신준성(유교), 김성수 도훈(천도교), 윤명관 목사(물만골 교회) 등 지역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마음을 열었다.

음악회에서는 6개 종교 대표의 공동 시낭송에 이어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기원과 한국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 기도회가 열렸다. 이어 여여선원 불교합창단, 반여성당 성가대 등의 찬불가, 찬송가 공연과 원불교 오해심 교무의 판소리, 박영재씨의 유교 시창 순서도 마련됐다.

천미희 기자

공군포병학교 군법당 낙성

대구 공군방공포병학교에 군법당 감천사가 들어서 군 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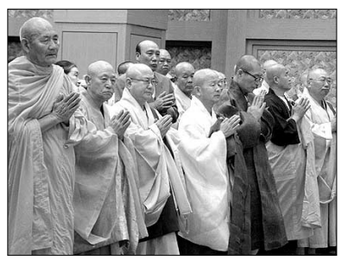
감천사는 조계종단에서 군포교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지원받고, 공군 복지단 보라매 법당에서 기본 자재를 보시 받아 지난 3월 23일부터 착공에 들어가 6월 19일 부처님 봉불 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낙성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공군 본부 군법당 선근 법사, K2 성무일승사 주지 등안 스님, 방공포병학교장 주형률 준장, 1여단장 이혁희 대령, K2 성무일승사 신도회장 신용탁 대령, 동화사 봉황합창단, 군 불자 장병 및 사병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총 80평 규모의 감천사는 조립식 건물로 57평 법당과 사무실 공양간을 갖추고 제9교구본사 동화사의 도움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후불탱 1위, 신중탱 1위를 모셨다. **배지선 기자**

“남 · 북 마음의 거리 좁히기 지속”

‘참여불교’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북한 어린이에게 자비의 신발 보내기 운동을 펼쳐온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의장 혜총)가 6월 20일 창립 1주년을 맞아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참여불교운동본부는 북녘어린이에게 자비의 신발보내기 운동에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트랙스타 퀸베이비 등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 임원을 비롯한 41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상임의장 혜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발은 거리를 좁혀 주는 수단”이라며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신발 보내기 운동에 불자들이 적극 동참해서 평화통일을 앞당기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열사, 그리고 북한 용천역 폭발참사 희생자를 위한 위령대재도 봉행됐다.

법회에는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 자비의 신발보내기 운동본부 단장 황정 스님, 랑사숙 후원회장, 왕선자 운영위원장, 안준태 부산시 정무부시장, 윤원호 열린 우리당 불자회 회장 등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참여불교운동본부의 창립 1주년을 축하했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2004년 5월 북한 용천역 폭발참사에 희생된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 봉행된 천도재를 계기로 창립된 단체로 2004년 9월부터 북녘어린이에게 매월 신발 1천 켤레를 지원하는 등 불교의 사회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평생 교육을 위한 백양 도예 타운 운영, 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동명대학 복지학과내 참여불교캠퍼스 개설 등 다양한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현재 참여불교캠퍼스에는 26명의 불자들이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향해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천미희 기자

남해 망운암 중창불사 회향법회

고산 스님 초청, 삼존불 점안



남해 망운산 망운암(주지 성각)이 6월 22일 보광전, 요사채 낙성 및 고산 스님 초청 삼존불 봉안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원로의원 고산 스님을 증명 법사로 봉행된 이날 법회는 남해사암련 회장 묘유 스님, 하영재 남해 군수, 김상현 부산일보 사장, 노기태 국제신문 사장을 비롯 2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불교TV 염불공양모임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낙성법회에서 주지 성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중생의 원력이 있는 곳에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고, 가피가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원만성취가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한 부처님의 진리”라며 불사 회향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법석에 오른 고산 스님은 “불법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속에 있다”며 “내 한 생각에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묘용이 나오므로 불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이루고 마침내는 성불해야 한다”고 설법했다.

이날 고산 스님과 성각 스님의 선서와 서화 50여 점이 전시된 선서화 특별전과 불자연예인 설운도, 김태곤 등이 출연한 산사 음악축제도 함께 열렸다.

천미희 기자

경봉 스님 열반 23주기 법회

양산 통도사 극락암(감원 명정)은 7월 3일 오전 10시 경봉 스님 열반 23주기 기념법회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경봉 스님이 직접 설립한 경봉장학회의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열리게 되며 오후 1시에는 경봉문도회도 열린다. (055)382-7083 **천미희 기자**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060-700-1080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우리이웃
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자유 2536
반냐라마 여름집중수행

근본불교 *Saṅgha* 반냐라마에서는 부처님이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지 2536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여름집중수행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싸띠수행(正念)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좋은 길라잡이 입니다.

구분	대 상	기 간	시작 / 마감
1차	대학생	7월 13일(수) - 7월 17일(일)	13일 수 오후 2시 17일 일 오후 2시
2차	일반인	7월20일(수) - 7월24일(일)	20일 수 오후 2시 24일 일 오후 2시
3차	교사직무연수	7월25일(월) - 7월29일(금)	25일 월 오후 2시 29일 금 오후 2시
4차	중 고등학생	7월29일(금) - 8월 2일(화)	29일 금 오후 2시 2일 화 오후 2시
5차	초등학생	8월 3일(수) - 8월 7일(일)	3일 수 오후 2시 7일 일 오후 2시
6차	일반인	8월 10일(수) - 8월 14일(일)	10일 수 오후 2시 14일 화 오후 2시

● **참가인원 :** 매회 40명 선착순 ● **참 가 비 :** 10만원, 교사 직무연수 15만원
● **준 비 물 :** 세면도구, 슬리퍼, 하얀색 상의(하의 수행복 지급)
● **문의 및 접수 :** 반냐라마 http://www.pannarama.net
011-1700-2841, 055)331-2841 / 전송 : 055)331-2842

우리가족의건강 지킴이
N-K NATURAL 묘향산 전 록 탕 건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행렬작용을 한다.
중년 남,녀들의 기력강화, 갱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아준다.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동의학 박사 허 창 걸
• NK내츄럴 대표 허창걸
• 사리원 동양대학교 졸업
•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약국장
• 한 의 담 당 동 의 학 박 사
묘향산 전록탕 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묘향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 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묘향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묘향산 전록탕은 묘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입니다.
판매원 : 록원 02) 771-2985 ● 제조원: NK내츄럴 ● 총판대리점모집 02) 755-9821

백장암 3층 석탑 '기우뚱'

탑지발굴 통한 해체 · 보존처리 시급 제기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이 심하게 기울어 안전문제와 보존처리가 시급하다.

백장암 3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는 6월 21일 백장암 현장에서 현재 조사진행중인 석탑의 안전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동현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윤덕향 전북대 교수 등 지도위원들은 "발굴유구에 대한 수방(水防) 조치와 3층석탑의 구조안전 진단이 시급하다"며 탑의 안전에 우려를 표했다.


상륜부가 현저하게 기울어진 백장암 3층석탑.

백장암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탑부재로 추정되는 팔부중상을 발굴하고도, 사찰에 알리지 않은 채 국가에 귀속처리해 물의를 빚은 곳. 지금은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소장 정인)가 후속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사학연구소는 탑지 주변 40×40m 지역을 발굴했다. 하지만 정작 백장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탑지는 손도 대지 못했다. 문화재청 시방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지도위원회에서는 탑의 안전과 탑지 발굴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금까지 발굴에서 제외된 탑지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창건초기 토층이 2m 가량 아래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돼 현재 탑 위치는 제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큰 데다, 탑의 구조적인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탑지 발굴과 탑의 보존처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윤덕향 전북대 교수는 "이번 발굴이 학술적 성격과 아울러 탑의 안전과 연관성을 갖는 만큼 석탑의 보존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석탑의 훼손상태가 심각하고, 기울어 있어 해체를 통한 보존처리가 시급하므로 탑을 해체복원할 것"을 주장했다. 박경식 단국대 교수 또한 "탑이 기울고 접합부에서 균열이 나타나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현 교수는 "구조안전진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발굴조사를 이끌고 있는 최태선 책임연구원(중앙승가대 교수)은 "제대로 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탑지 조사가 필수"라고 말했다. 주지 진웅 스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탑지를 발굴해 탑의 온전한 모습을 찾고, 정비안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원=박익순 기자

미륵사지석탑 해체 · 복원 어떻게?

'부분복원과 보존' 안에 무게

"국보 제11호 익산미륵사지석탑(서탑)을 어디까지 해체하고, 어떻게 복원하나?"

현재 2층까지 해체조사가 완료된 미륵사지석탑의 해체 범위와 복원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심포지엄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2안에 따른 미륵사지석탑 복원조감도.

윤홍로 문화재위원, 이상해 문화재위원, 박경식 단국대 교수, 조성룡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7일 경복궁 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미륵사지석탑 해체 및 복원 심포지엄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은 해체범위와 복원방법의 안을 제시했다.

배병선 건조물연구실장(국립문화재연구소)은 "1층은 미륵사지석탑 원형이 남아있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보존돼야 하지만 지반이 약하고 1층부의 변위가 심해 해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1층 해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석축만 해체한 후 정비 △1층 초석 상부까지 해체 △지반까지 완전히 해체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홍로 위원과 박경식 · 교수 등은 석축(석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부재로 보강한 석축)만 해체하는 것은 해체의 의미가 없으며, 1층 초석상부까지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해체범위보다 더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단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복원 방법. 사업단은 ▲해체 전 형태의 복원(1안, 구조를 안정화시킨 뒤 적절한 보강물로 석탑을 지탱하도록 하는 것) ▲부분복원과 보존(2안, 형태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복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 ▲완전 복원(3안, 상륜부까지 형태를 완전하게 갖추는 것)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2안을 취할 경우 6층까지, 3안의 경우 9층까지 복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성우 문화재위원(연세대 교수)과 강찬석 문화재전문위원(문화연대)은 백제당시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복원과 보존' 안을 지지했다.

또 이상해 문화재위원(성균관대 건축학과)은 "고고학적 · 건축학적 증거가 부족하면 미래를 위해 복구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말로 섣부른 보수를 경계했다.

박익순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하남 관음사

차별된 아이템으로 승부


생활기공체조로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는 관음사 주지 일학 스님의 지도로 광주 축협 조합원들이 생활기공체조를 하는 모습.

하남시 덕풍동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는 주택가의 복판에 있는 하남 관음사(주지 일학). 일반주택을 개조해 사찰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 관음사가 생활기공체조로 지역포교에 나서 눈길을 끈다.

생활기공체조가 지역포교 방편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주지 일학 스님이 오면서부터다. 지난해 10월 관음사에 온 일학 스님은 신도가 거의 없는 관음사를 되살리기 위해 20여년간 기공수련을 해 온 독특한 이력을 활용하기로 마음 먹은 것.

외에도 기공으로 다져진 내공을 활용한 염불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

관음사 공양주보살인 강정덕(74)씨. 친구 따라 불공을 올리러 관음사에 왔던 강보살은 기공 수련을 시작한 이후 하루가 다르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아예 관음사에 머물게 됐다. 이제 겨우 한달이 지났을 뿐인데 어깨와 무릎의 관절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다.

이제 관음사는 인근 지역민의 안식처 같은 도량으로 자리잡아가는 성장을 바탕으로 점차 포교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계준 신도회장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목왕리에 갖고 있던 2만여평의 땅을 수련원부지로 제공하면서 기공수련을 전문으로 하는 수련원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일학 스님은 "용도변경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수련원 건립불사가 시작된다"며 "100평 규모의 수련원 겸 법당을 가장 먼저 지어 기공수련을 응용한 1박2일 과정의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공수련의 중심도량으로 우뚝 설 관음사를 볼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031)794-2979

하남=박봉영 기자

생활 기공체조 · 염불로 지역포교에 진력

전문 수련원 건립, 참선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자주 몸이 아파 구전으로 내려온 불가의 기공수련을 시작한 일학 스님은 "몸이 병들면 그때부터는 삶 자체가 지옥이 된다"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기공체조를 알리는 것은 효과적인 포교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생활기공체조가 통합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 않았지만, 부임 8개월을 맞는 스님은 놀랄만한 포교 성과를 이뤄냈다. 광주 축협 조합원 50여명으로 만들어진 생활기공체조반과 서울대병원 유방암 환우회를 지도하게 됐고, 하남시청과 광주시청, 서울 서초구청과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일학 스님의 정성어린 지도

극빈층에 최상의 서비스를

여수 석천사 무료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준공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됐으면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을 위한 국내 최초 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사진)이 불교계 주도로 건립됐다.

여수 석천사(주지 진옥)는 무료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을 착공한 지 4년만에 공사를 마치고 7월 8일 오후 2시 준공법회를 갖는다.

'하얀연꽃'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을 위한 요양시설로 사업비 35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자체부담한 순수 불교복지기관이다.

여수시 돌산읍 계동 바닷가 4000여평의 대지에 자리한 요양전문시설인 '하얀연꽃'은 연건평 720평 규모의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여수에는 차상위층 노인 3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얀연꽃'에서 10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은 2~5인실 주거공간 50여개와 목욕탕,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등 현대화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소대상자는 기관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운데 정부나 지역사회,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10월경 본격적인 입소가 시작된다. 061)644-8877 www.scsa.com

이준엽기자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 축제



'백련, 빛과 색'을 주제로 하는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의 하소백련 축제가 시작됐다.

올해로 4회째 맞는 하소백련 축제는 6월 25~26일 양일간 차 명상, 어산범패 작법무, 에콰도르팀 시사이, 인디안 스프릿 등의 공연과 퍼포먼스 등을 시작으로 7월17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청운사는 무량광전을 건립하고 6월 23일 아미타불 점안법회를 봉행(사진)했다. 불교 전통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주불인 아미타불에 생명을 불어넣는 복장과 점안식으로 이어졌다. 25일 낙성식을 봉행한 무량광전은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을 본따 고려시대 사찰 건축 양식으로 조성됐다. 063)543-1248

이준엽기자

광주 동부경찰서 경승 위촉

광주 동구불교연합회 소속 사찰 주지스님 5명이 경승단을 구성하고 6월 10일 동부경찰서장실에서 경승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 진화(증심사), 석장(문빈정사), 한운(약사암), 시공(만경사), 정선(대광사)스님이 윤재문 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경승 위촉장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동부 경찰서 경승단은 경찰서 임직원과 유치인들을 위한 정기법회와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준엽기자

교도소불자회 대성사서 법회

청주여자교도소 불심회(회장 노순천)가 6월 18일 옥천 대성사에서 '불자의 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첫 사찰 법회를 개최했다.

청주여자교도소 직원 불자회인 불심회는 창립후 법회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의 지원으로 매월 정기 법회를 봉행할 수 있게 됐다. 불심회는 앞으로 대성사와 공동으로 불교모임 활성화,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움직이는 禪의 숨결 템플스테이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골굴사 · 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 지평'**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를 이용한 일반인 템플스테이는 년 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언 제 : **하계 - 7월 ~ 8월 (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 (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 동참금은 청소년-1일 2만, 한달 60만원, 성인-1일 3만,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골굴사)

수련내용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판소리, 활쏘기,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 회화를 원어민(외국인 행자님)이 지도합니다.(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판소리강사 1명, 다도강사 2명, 영어강사 1명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 필기도구 · 우산 · 운동화 · 운동복 등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울력 (도량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 공양
9시	오전 선무도 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55-1114

베푸는 불교 쌓이는 불심

경기 동두천 · 의정부 · 포천

동두천 군포교에 역점…사찰 대부분 사암련 활동

의정부 어린이 포교 적극적…사찰간 화합이 과제

포천 군부대 후원 · 장학회 · 노인복지 사업 전개

동두천

동두천 불교가 이렇게 달라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역민들도 "동두천 불교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며 의아해할 정도고, 동두천 스님들조차도 스스로 놀라고 있다. 10년 만에 동두천 불교가 살아난 것이다. 도대체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동두천사암연합회는 올해 봉축행사를 동두천 불교 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암연합회 소속 33개 사찰이 '한 번 해보자'며 의기투합했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동두천의 사찰은 모두 40여 개. 이 가운데 33개 사찰이 사암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포교 경험이 풍부한 법해 스님이 지난해 12월 동두천의 대표사찰인 자재암의 주지로 부임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동두천의 스님들이 법해 스님을 중심으로 동두천 불교를 일으켜 보자고 결의했고 유명무실했던 사암연합회를 재건했다. 그리고 지역 사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동두천 불교가 달라진 이유는 또 있다.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각 사찰들이 군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보문사 주지 정오 스님과 용하 스님이 시청불자회인 삼보회의 신행을 도우면서 재가불자 신행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또 자재암이 위치해 있는 소요산 국민관광지가 개발되고 내년까지 동두천에 전철이 개통될 경우 오히려 포교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

의정부 불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어느 지역보다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어린이 포교도 비교적 활발하다.

이 지역 15명의 비구니 스님 모임인 '자비회'는 시내에 위치한 '자비회관'에서 매주 마다 법회를 갖고 있으며, 자비장학회 운영을 통해 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불교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 자비회, 의정부포교원, 석림사, 봉화정사는 유치원을, 회룡사는 어린이 합창단과 어린이 법회 운영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정부 불교는 상당히 침체돼 있다. 회룡사, 의정부포교원 등 5~6개 사찰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사암연합회의 와해 때문이다.

2년 전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로 사찰들이 찬성쪽과 반대쪽으로 나뉘면서 대립했고 결국 상호간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사암연합회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사찰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희망에는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 우선 비구니 선원을 운영하고 있는 회룡사가 포교사찰임을 자임하고 나섰고, 운불련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또 서울 위쪽으로는 유일한 천태종 사찰인 의정부포교당이 8월에 녹양동 하동촌으로 이전하면서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뛰어든다.



동두천 자재암 주최로 지난 5월 열린 '동두천 경로잔치'. 지역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경로잔치를 연 이날 2500여명의 어르신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자재암은 매년 경로잔치를 여는 등 지역민들에 다가가는 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포천

지난 10여 년 간 어느 정도 성장세를 이뤄왔지만 서로의 힘을 결집시키지는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포천의 스님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만큼 포천 불교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비사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향적사 대안사 구암사 성불암은 불우이웃 및 군부대 후원 사업을, 보문정사는 어린이 포교를, 왕산사는 노인복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받기만 하는 불교'가 아닌 '베푸는 불교'를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암연합회가 정기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하고 소년소녀가장돕기,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 탁발에 나서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불교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포천불교가 자리를 잡아가자 최근 들어 포천 스님들은 불교회관을 짓고 불교대학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포교에 나서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 두 종단의 사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타 지역과 달리 15개 종단 사찰이 고루 분포돼 있어 화합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포천 불교를 위하는 마음은 하나라는 것도 포천 불교의 발전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인구 17만명에 사찰 수는 100여 개. 인구에 비해 사찰이 다소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인구가 계속해 늘고 있고, 공장이 계속 들어서면서 지역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데다,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볼 때 포천 불교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포천의 스님들은 말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포천불교 활성화의 주역

혜승 스님 (포천 보문정사 주지 · 포천경찰서 경승실장)



혜승 스님은 두 차례 사암연합회장을 맡아 포천불교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며 인재불사에 주력하고 있다. 포천경찰서 경승실장으로 9명의 경승을 이끌며 경찰포교에도 매진중이다. 삼론종 창종 멤버로 삼론종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을 지냈으며, 매주 포천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나눔, 불교 대중화의 지름길"

승법 스님 (포천 향적사 주지)



승법 스님은 나누는 것이 불교 대중화의 지름길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수시로 돕고 있고, 인근 농아시설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불우한 아이들도 7명이나 키웠다. 사암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사암련 차원의 복지시설 및 군부대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소외이웃 찾아 '주고 또 주고'

정오 스님 (동두천 보문사 주지)



3년간 동두천 노인대학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했고, 수시로 여주교도소를 다니며 재소자들을 보살피는가 하면, 지역민들을 위해 1천만원이 넘는 사비를 들여 약수터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정오 스님을 주변에서는 욕심없고 순수한 '촌사람'이라고 말한다. 30년 넘게 은사스님과 함께 살고 있는 스님의 꿈은 무료 양로원을 지어 불우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다.

어린이법회 · 합창단 운영

성견 스님 (의정부 회룡사 주지)



성견 스님은 지난해 입적한 은사 혜주 스님의 뜻을 이어 회룡사를 의정부 제1의 수행 · 포교도량으로 가꾸는데 여념이 없다. 어린이 포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고 어린이 법회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자비회 산하의 (사)자비장학회 이사와 광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사찰, 지역주민 쉼터로

석봉 스님 (포천 흥룡사 주지)



백운계곡이라는 관광지에 위치한 절의 특성을 살려 흥룡사를 포천시민의 쉼터이자 관광사찰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포천시 및 광동학원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석봉 스님은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의 상좌로 일본 대정대학과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의정부 송산노인복지회관 관장도 맡고 있다.

지역포교 변화 바람 일으켜

법해 스님 (동두천 자재암 주지 · 동두천사암연합회장)



법해 스님은 지난해 12월 자재암 주지로 부임, 6개월여 만에 동두천 불교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동두천 시차원의 경로잔치를 개최했는가 하면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합창단을 창단했으며, 초 · 중 · 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스님은 지역주민들이 편안히 기도하고 쉴 수 있는 수련원을 건립하겠다는 발원을 갖고 있다.

정법의 기초 신도교육 역점

관적 스님 (포천 선광사 주지)



올바른 교육만이 정법을 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소신으로 신도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관적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은사로 출가, 통도사 해인사 법주사 선원, 해인사 율원 등지에서 공부했다.

95년 선광사를 창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무료유치원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편안하고 친근한 사찰로"

지순 스님 (포천 만덕사 주지)



지순 스님은, 입적한 前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이 가장 아꼈다는 손상좌. 태고종 대종사 혜숭 스님과 함께 20년 전 포천에 와서 만덕사를 일궜다. 만덕사를 깨달음의 동산으로 가꾸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만덕사 인근의 야외법당을 장엄하게 꾸며서 누구나 편안하게 쉬면서 친근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역 활성화 위해 동분서주

혜성 스님 (동두천 덕수사 주지)



혜성 스님은 동두천사암련 총무를 맡아 회장인 법해 스님과 함께 동두천 불교 활성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 태고학회 이사, 28사단 지도법사 등을 맡고 있다.

평상시 신도들에게 인욕바라밀을 강조하는 혜성 스님은 염불원과 선원을 건립해 실력있는 후학을 키워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경기북부 유일 천태종 사찰

탄성 스님 (천태종 의정부포교당 주지)



올 1월부터 경기북부의 유일한 천태종 사찰인 의정부포교당 주지를 맡아 천태종 저변확대와 불교포교의 중책을 맡게 된 30대의 젊은 스님. 내년부터 사암연합회에 가입해 지역 사찰들과 함께 하며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탄성 스님은 의정부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군부대와 함께 전몰장병을 위한 천도재를 준비중이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요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창 우미산 황새골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요양원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향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김성수 김동욱 정규열 등 388,110원
황인운 50,000원

총 누적금액 41,543,050원



통영 보건소와 자생원 원생들이 6월19일 열린 통영 미래사 산사음악회에서 휠체어 댄스와 수화 노래를 공연하고 있다.

휠체어 댄스·수화노래 박수갈채

통영 미래사, 장애우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성황

산사의 밤은 아름답다. 게다가 울울창창한 전나무 숲을 타고 신비한 오카리나 소리가 흐르고 휠체어를 탄 장애우들과 일반인들이 나란히 앉아 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면 산사의 아름다움은 배가된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던 6월 19일, 통영 미래사(주지 여진)의 풍경이 꼭 이랬다.

"장애우들을 진정 특별한 친구로 맞이하기 위한 음악회"라는 주지 여진 스님의 말처럼 이날 음악회는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만나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마음을 나누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리였다.

효봉 스님이 수행했던 토굴터가 있는 통영 미래사가 장애우들과 일반인들의 문화 · 복지 도량을 지향하며 올해로 세 번째 개최한 산사음악회. 이날 음악회에는 통영보건소와 자생원 등에서 70여 명의 장애우들과 일반인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저녁 7시경에 시작된 공연은 미래사 합창단인 자항합창단의 찬불가공연, 클래식 기타 연주, 오카리나 연주, 사물놀이 공연, 진의장 통영시장의 시낭송 등에 이어 '한계령'의 가수 양희은 씨의 무대에 이르자 절정에 달했다.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대웅전 탱화와 불상이 조화를 이룬 무대는 조명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러나 그 어떤 무대보다 화려하게 빛났던 무대는 바로 장애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선보인 휠체어 댄스와 수화 노래. 통영 보건소와 자생원 원생들이 꾸민 이 무대에서는 포크댄스를 변형시킨 휠체어 댄스와 수화 노래가 선보여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휠체어 댄스팀의 일원으로 무대에 오른 박화석(37 · 지체장애) 씨는 "절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는 처음이라 너무 기분이 좋다. 자주 자주 이런 음악회가 열렸으면 좋겠고 좀 더 연습을 해서 다음 공연 때는 더 멋진 춤을 보여주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자생원 임영애 실장은 "표현은 잘 안되지만 자생원 원생들이 이런 음악회에 한번 참석하거나 관람을 하고 나면 활력소가 되어 재활 의지가 높아진다"며 "장애우를 배려하며 음악과 춤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음악회를 열어주신 여진 스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통영에서 참가한 최미영 씨도 "장애우들을 위한 음악회여서 그런지 모든 음악이 더 감동적으로 들리는 것 같다"며 "이런 음악회가 평소 장애인들에게 무관심했던 나를 돌아보고 장애를 딛고 일어서려는 이들에게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병원 봉사활동으로 병들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여진 스님은 통영 미래사에 장애우들을 위한 화장실과 휠체어 통로를 설치할 정도로 장애우들에겐 특별한 친구다. 여진 스님은 "장애우들은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장애우들이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기 전에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자"고 거듭 강조했다.

글 · 사진/통영=천미희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노숙자 쉼터 '서계 보현의 집' 식사봉사자들

어머니 손맛까지 담았어요

서울역 너머 조용한 주택가가 늘어선 서계동. 겉보기에는 다른 주택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노숙인 쉼터 '보현의 집'이 동네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 식구들이 각자의 일터에 갔다가 하나 둘 돌아오는 오후 5시, '보현의 집'에서도 여느 집에서 그러한 것처럼 저녁 짓는 냄새가 흘러나온다.

틀림없는 어머니의 국 냄새, 반찬 냄새. 지하에 마련된 주방에서 일하는 김순옥(54) 조리사와 벌써 6년째 봉사활동 중인 임정수(56) · 윤문자(58) 보살의 손맛이 함께 어우러졌다.

이렇게 저렇게, 모두 가슴에 담은 사연은 다르지만 보현의 집 식구들 모두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식구들에게 집에서 늘 하던 식사 준비로 즐거움을 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보현의 집'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6월 22일. 윤문자 보살은 계속되는 봉사활동에 오른손이 퉁퉁 부었다. 그래도 봉사는 쉴 수 없다. 한 손이라도 일을 거들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다.

윤 보살과 함께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선 임정수 보살은 한 '보현의 집' 식구들에게 감동을 받아 계속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어느 아저씨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조촐하게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분들이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지만은 않구나 싶더라고요."

조리원으로 일하고는 있지만 봉사자의 몫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는 김순옥 보살도 여기에 한마디 거든다.

"아저씨들이 참 순수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내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중에 꼭 불고기 거리도 사오고 떡도 해오고 그래요."

노숙인 하면 게으르다는 사회적 인식. 옆에서 지켜본 봉사자들은 '보현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만큼은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니 그런 편견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다.

봉사자들이 금방 지은 밥에 정성으로 요리한 반찬이 가득한 서계 '보현의 집'에는 식구들을 믿어주는 봉자자들의 마음이 있어 늘 희망의 기운이 샘솟는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식사 봉사자들이 6월 22일 갓 지은 따뜻한 저녁으로 노숙자 쉼터 '서계 보현의 집' 식구들을 대접하고 있다.

세탁기 · 수건 · 옷 후원해 주세요

자활을 꿈꾸는 노숙인들을 돌보는 서계동 '보현의 집'에 요즘 걱정이 하나 있다. 세탁기가 고장 나 더운 날씨 때문에 늘어난 빨랫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세탁기도 필요하지만 입소할 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 수건이나 옷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02)711-7735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제21기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돕는데 만족을 느끼며
나의 요구를 이해하는, 민감하고 지각있는 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호스피스 윤리 中 -

교육안내
• 일 정 / 2005년 7월 24일(일요일) ~ 2005년 7월 31일(일요일) 7박 8일
• 내 용 / 24개 호스피스 전문과목과 20여명의 최고경사진, 임상과 이론을 겸한 전문인력양성 집중교육
• 장 소 / 정토마을
• 대 상 / - 스님, 재가 법사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불교인으로서 상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인 원 / 남 · 여 35명
• 교 육 비 / 29만원 (학인스님 50% 할인)
• 원 서 접 수 / 홈페이지접수, 전화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접수받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육생 선발은 1차서류 심사후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원 서 마 감 / 2005년 7월 15일 도착분까지
• 문 의 처 / 정토마을 사무국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043) 298-2258(代) FAX. 043) 298-1457
http://www.jungtoh.com e-mail : jungtoh2@jungtoh.com
■ 불교호스피스연합 : http://cafe.daum.net/BHU
함께 할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 모집분야 - 간호사 0명
불교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각계 스님 및 불제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 PALLIATIVE CARE CENTER 정 토 마 을 정토마을 호스피스는 불교 의료복지 포교의 확산과 노력을 경주합니다.
(재)정토사관자재회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실크로드의 길 중에 하나인 파미르고원은 수많은 서역 구법승들이 넘나들던 전법과 구법의 길입니다. 그 옛날 달마대사가 넘었다는 총령도 파미르고원을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왕이 현재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정복하였고, 고대 그리스 문명과의 접목으로 간다라 불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쇼카 대왕이래 불교를 부흥시킨 카니시카 왕이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운 곳도 간다라입니다. 불교 최고의 부처님 고행상은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상과 사원 등 간다라와 파미르고원, 중국의 우루무치까지 고대 유적을 따라 순례하는 전법의 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출발일 : 1차 7월 22일 출발 - 8월 4일 도착, 2차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수미산 순례 24일
• 출발일 : 8월 23일 출발 - 9월 15일 도착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게왕국-마나사로바-파양-사가-장무-카투만두-인천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실크로드와 수미산 여행은 불교를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대구불교방송
캐나다 공립학교 영어연수
7.26 - 8.21(4주간)
선착순 15명 모집
www.dgbbs.co.kr
053)427-5114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조계종찰’ 禪旨 설악에 ‘우뚝’

조계종, 진전사 중창 복원…6월 26일 대웅전 낙성 및 점안식

통일신라 시대인 서기 821년(헌덕왕 13).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서라벌로 돌아온 도의(道義 · 생몰연대 미상) 국사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외친다. “문자에 입각하지 않으며, 경전의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으니,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르쳐, 본연의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곧 묻히게 된다. 경전을 읽고 외우며 연구하는 등 교학불교(敎學佛敎) 전통에 익숙해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허황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왕즉불(王卽佛), 왕이 부처님이며, 귀족은 보살이고, 백성은 중생이라는 신라 왕권불교에 무모할 정도로 도전장을 내민 스님에게 돌아온 것은 ‘마귀의 말(魔言)’이라는 비난과 배척뿐이었다. 그러자 스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깨닫고 설악산 자락에 둥지를 틀게 된다. 그곳이 바로 양양 진전사다.



중창 복원된 진전사가 어둠을 뚫고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진전사 복원으로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꿈꿔본다.



도의국사 부도로 추정되는 보물 제439호 부도.

중국 남종선 이은 한국선 출발지
도의 · 염거 · 체징 · 일연 등 수행
부석사 등 참고, 고려 양식 이뤄

조계종조(曹溪宗祖) 도의 국사가 주석했던 양양 진전사(주지 대전)가 복원됐다. 6월 26일 진전사 대웅전 낙성식 및 점안식 앞두고 22일 찾은 진전사는 조금은 들뜬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선기(禪機)가 배어나고 있었지만 진전사 들머리 6.5km부터 늘어선 오색연등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조계종찰(曹溪宗刹) 중창 복원을 축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37번지에 위치한 진전사는 9761평(32,268㎡) 부지에 20평(68.44㎡) 규모인 대웅전 적광보전(寂光寶殿)과 42.34평(139.99㎡)의 요사채로 꾸며져 있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대웅전은 영주 부석사 등 고려시대 불교건축물을 참고해 주심포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이뤄졌다. 또 현지에서 발굴된 기와 모양과 문양을 재현해 기와를 올렸다. 요사채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양식.

진전사 중창 복원 불사는 동국대 석좌교수를 지낸 정영호 박사(71 · 단국대 석주선박물관장)가 3,150평을 당시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에게 기증하면서 본격화됐다. 1965년부터 도의 국사와 진전사지 연구에 몰두한 그는, 30여 년 전 매입했던 진전사지를 오현 스님의 복원 의지를 확인하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시주했다.

이후 신흥사가 6,611평을 매입하고 양양군이 4,969평을 추가로 매입했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가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발굴조사와 학술조사를 했으며, 2004년 4월 착공식이 봉행됐다. 1년여 동안 총 18억52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 박사는 “도의 국사와 진전사지를 연구한지 40여년 만에 진전사가 중창 복원돼 눈물이 날 정도”라며 감격에 겨워했다.

진전사 인근에 위치한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도의국사 부도로 추정되는 보물 제439호 부도는 그 옛날 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삼층석탑은 신라식 일반형으로 2층 기단을 갖추고 있으며, 상륜부는 노반석까지 남아있고 그 이상은 결실됐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진전사 삼층석탑은 아주 아담하게 잘 생겼다. ‘귀엽다. 예쁘다’고 표현하기에는 단정한 맛이 강하고 ‘야무지다’고 표현하면 부드러운 인상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



신흥사 부주지 마근 스님이 진전사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팔각원당형 부도 양식의 시초인 보물 제439호 부도는 일반적인 부도와 달리 팔각형의 탑신(塔身)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아래부분이 석탑에서와 같은 2단의 4각 기단(基壇)을 하고 있어 보는 이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도의 국사가 왕즉불이 아닌 자심즉불(自心卽佛)을 외치며 인간 본연의 평등과 존엄성의 가치를 일깨우며 변혁을 꿈꿨던 곳. 남종의 조사선이 최초로 전해진 곳 진전사. 진전사 중창 복원으로 한국 선(禪)불교가 새로운 중흥을 꿈꾸고 있다.

양양=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진전사와 도의 국사

진전사지는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가지산문(迦智山門) 개산조 도의 국사가 주석했을 뿐 아니라 염거(廉居) 화상이나 보조체징(普照體澄) 국사 일연 선사 같은 고승들이 진전사에서 사자상승(師資相承)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절터다.

중국의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선종을 들여와 1조가 됐듯, 도의 국사 또한 육조혜능(六祖慧能)의 법을 이은 서당지장(西堂智藏) 선사에게 법을 받아 남종의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했다. 이후 도의 국사는 염거 스님에게, 염거스님은 보조체징 스님에게 법을 전하자 장흥 보림사에서 가지산문이 열렸다.

조계종 종헌 제1조에 적시된 것처럼 ‘본종은 신라 도의 국사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불교의 초조(初祖)인 도의 국사가 주석했던 진전사가 조계종찰로서 위상을 갖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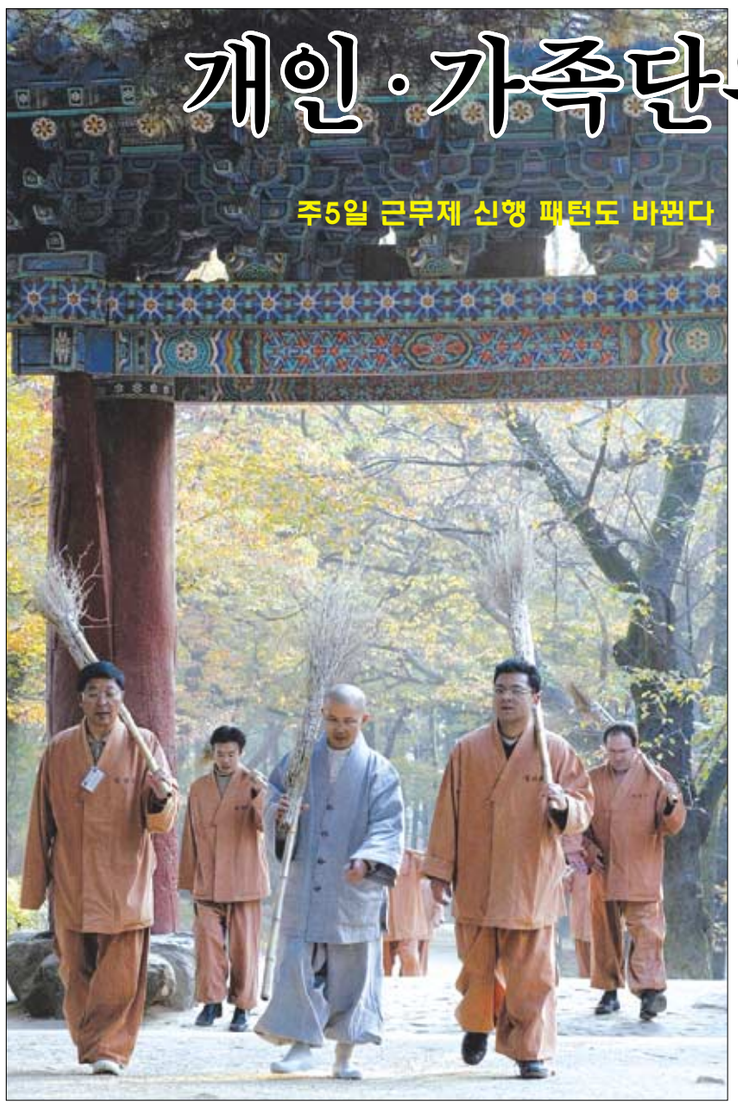
불경금책

(1) 실물크기(3.5×5cm) – 금강경 24매
(2) 실물크기(5×7cm) – 금강경 24매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고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 소장용으로 최고급 소형금병풍도 주문제작 한다. 기도정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불경금병풍

관세음보살도 관세음보살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 37cm× 세로74cm)
소법당,스님방,불자님 개인소장용
합격기원, 소원성취,백일기도 재례용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개인·가족단위 신행 늘어날 듯

주5일 근무제 신행 패턴도 바뀐다

7월 1일 300명이상 사업장·공공기관으로 확대

직장불자들은 2002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가족이 함께하는 신행패턴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주말을 이용해 직장인들이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국은행 불자모임인 불이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소 다니는 원찰이 없는 안구용씨(은행국 안정분석팀). 그는 2002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주말이면 평소 가보고 싶었던 사찰을 참배하거나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다.

안구용씨는 "주5일 근무제로 달라진 생활 가운데 가족과 함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성지순례·봉사 등 계획 많이 세워
사찰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해야

2002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금융업계의 경우 직장신행단체의 활동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법회 등 직장단체의 활동이 평일에 집중돼 있어 주5일 근무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대신 주말을 이용하는 성지순례, 봉사활동 등은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주5일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불자들의 신행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비상한 관심을 끈다. 특히 이번 확대대상에는 직장신행단체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공무원불자들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직장 신행단체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250여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불자회는 불자회별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대전시청 공무원불자회의 경우 휴일을 이용한 봉사활동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회원들의 자율적인 시간 활용에 맡기고 있다.

전형진 대전시청 불자회 총무는 "직장불자회가 휴일을 중요시하는 직장인불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복지시설 봉사, 원찰내 신행활동 등 회원의 개인적인 신행활동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직장인들의 근무패턴 변화는 불자들의 신행패턴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신행·포교의 일선이라 할 수 있는 사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직장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돼 왔다. 산중사찰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된 2002년부터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휴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직장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신도조직 활용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돼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은 "주5일 근무제가 완전 시행되는 2008년까지 도심사찰과 산중사찰, 가족과 개인 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사찰을 찾는 것처럼 사람들의 발길을 사찰로 향하도록 하는 일은 결국 불교 내에 그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김장근

대구불교산악회 회장

전국불교산악인회 창립 주도
지역 환경감시·대외활동 앞장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대구불교산악회 김장근 회장(49·대구 동구청 나비생태원 팀장·사진)은 10년 전 대구에서 처음으로 불교산악회를 창립하고 전국산악인연합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김 회장은 군 전역 후 원만사 청년회원으로 활동했다. "놀 줄도 모르고, 특기도, 취미도 없어 불교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한 것 뿐"이라는 김회장. 그러나 24년간 이어온 신행활동이 결코 적지 않다. 원만사 청년회장을 거쳐 대불청 대구지구장, 동화사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대구불교대학총동문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직장에서도 동구청 일심회 총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김회장이 무엇보다 마음 쓰이는 곳은 대구불교산악회다.

대구불교산악회는 1995년 3월 대구지역 불교청년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능금불청산악회'로 창립됐고, 일반 신도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대구불교산악회로 개명했다. 이후 김회장은 1997년 6월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대구불교산악회는 1996년 7월 진천 보탑사에서 녹색환경감시단을 발족해 사찰환경 수호와 대구지역 환경지킴이로 활동했고,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산행을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재보호에도 한몫을 담당했다. 또, 월1회 무료 급식소봉사활동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대외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구불교산악회는 6월 12일 동화사에서 제8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를 개최해 회원 배가와 조직확대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번에도 김회장은 새벽 3시까지 수많은 업무를 감당해냈다. 그러다보니 김회장의 집은 온통 서류뭉치들로 가득하다. 심지어 고등학생 아들까지 나서 2시간이나 걸려 불자들에게 일일이 안내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6월 12일 제8차 전국산악인대회는 전국 2000여명의 불자산악인이 모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김회장은 그동안 수고한 회원들을 격려하며 또 뒷정리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김회장은 최근 가뜩이나 마른 체구가 더욱 말랐다는 소릴 자주 듣는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수행자 김회장은 이제 몸의 살 대신 마음의 살을 찌워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배지선 기자

불자의원들 '신행 up' 분주

우리당, '이타회' 결성 … 정각회, 활성화 모색



열린우리당 이타회는 6월 24일 창립법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조용수 기자

열린우리당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이타회가 결성되고 국회 정각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조직 활성화에 나서는 등 불자의원들의 행보가 빨라져 주목된다.

국회 정각회(회장 이용희)는 6월 3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관문사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창립 1주년 기념 조찬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세일 부회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인 부회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등 조직개편과 함께 열린우리당 불자의원 모임인 이타회 창립에 따른 신규회원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창립 이후 이렇다할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정각회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정각회는 이날 조찬법회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으로부터 '불자의원의 역할과 신행'에 대한 법문을 들을 예정이다.

6월 24일에는 열린우리당 이타회(회장 윤원호)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주요 종단 대표를 비롯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등 정관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타회에는 윤원호 회장을 비롯해 최재성 의원(간사), 이용희 의원, 강창희 의원, 이영호 의원 등 불자의원들과 친불교적인 성향을 보여온 의원 20여명이 가입했다.

박봉영 기자

자비실천하는 모범단체 되길…

홍성경찰서 불자회·울산 운불련 창립



충남 홍성경찰서 불교회와 운전기사불자연합회 울산지역회가 창립됐다.

홍성경찰서 불교회는 6월 26일 홍성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열었다.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과 공주 갑사 주지 장곡 스님,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초대회장에 손정희 경사(경무과), 총무에 장형훈 경사(오관지구대)가 선출됐다.

홍성경찰서 불교회는 앞으로 월1회 정기법회, 성지순례, 불우이웃돕기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앞서 6월 23일에는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울산지역회가 창립돼 울산지역에서도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운불련'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995년 창립돼 울산지역에서 활동해온 법륜회(회장 정태만)가 운불련의 울산지역회로 가입하고 이날 창립법회(사진)를 연 것.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운불련 울산지역회 지도법사 목산(백양사), 정각(도솔암), 덕진(정토사)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60여명의 운전기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운불련 울산지역회는 매월 1회 정기법회와 산행법회, 분기별 성지순례, 울산시립노인요양원 봉사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탱화의 미적가치에서 각각의 의미까지 전달 **신비한 불화의 세계**



사찰에서 만나는 많은 종류의 탱화들, 그 안에는 다양한 불보살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 명호들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비한 불화의 세계>는 부처님을 주존(主尊)으로 하는 상단탱화, 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중단탱화, 신중과 천왕 등을 형상화한 하단 탱화 등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류별로 선보여 우리를 불화의 세계로 한걸음 다가서게 합니다.
소개되는 불화들은 박정자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명장의 붓끝으로 살아난 부처님 형상의 장엄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박정자 지음 / 광진문화사 / 3만원 / 양장본 올 칼라 / 신국판

부처님을 친견하는 사불(寫佛) 수행

한국 최초 사불 교본 출간 !! 붓끝 하나하나에 환희심을 담는 사불수행!! 이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권】 249쪽/50,000원 【2권】 269쪽/55,000원 【3권】87쪽/20,000원 【4권】55쪽/15,000원

● 사불 교본 1,2,3,4 (책크기 : 4절 395 × 545mm)

1권 – 탱화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상단, 중단, 하단 독존도의 탱화초와 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상초를 그리고 채색할 수 있다.
2권 – 관음 32응신도와 42수관음, 천수천안관음의 출현, 53불을 매일 그리고 채색하여 예불할 수 있다.
3권 – 만다라와를 그리고 채색하여 초파일 연등에 붙이거나 법당이나 가정에서 실에 꿰어 부처님을 장엄할 수 있다.
4권 – 삼신불, 팔대보살, 시왕님을 그려보고 채색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지장재일에는 지장보살을, 관음재일에는 관세음보살을, 약사재일에는 약사여래를 그려 부처님 복장에 넣어 모시거나 법당 부처님 좌복에 모시고 기도하여 신심을 높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

사불수행이란 ?

조금은 생소한 수행법이지만 이미 고려시대부터 사경과 함께 널리 행하여 그 찬란한 빛을 발했으나 억불정책의 과정에서 맥이 끊어지고 지금은 사경활동만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불수행은 사경보다 쉬워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마음속의 부처님을 눈으로 확인하며 신심을 다져 가기 때문에 불자들의 신심을 마음 깊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되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불이라는 또 다른 수행으로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들의 절마당에서 모든 불자님들이 천백억화신의 부처님을 사불하여 금수강산을 불국정토로 이루고자 발원하나이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만하 박정자 합장

주문전화 061)333-4472 (은행계좌에 입금 후 전화하시면 택배로 배달)
국민은행 073-01-0289-484 / 농협 637015-52-036279 예금주 박정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00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 천도재 49재 | 정안식 | 용왕산신재 | 바라나비춤 | 상가영불 | 천도시식전문 |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720-5682

학 인 모 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범음 · 범패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무보시 학인을 모집합니다.
바라, 사물 다루는 법, 49재, 의식 및 전통교육
문의처 055)381-1199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바라춤.작법.살풀이
49재,천도재,기타의식에 정성을 다해서 안무해 드리겠습니다 _()_
010-9209-0142
불교무용 속성 강좌

원효대사의 기신론소 특강
본 대승불교연구원은 원효대사의 기신론소를 특강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특강안내
• 일 시 : 2005년 7월 2일 (매주 토요일 10시 30분 - 12시 30분)
• 장 소 : 대승불교연구원 (동국대 전철역 위쪽 엠베스더 호텔옆 대학문화원)
• 강 사 : 오형근 교수(현 동국대 명예교수)
• 교 재 : 원효찬 대승기신론소 • 수강료 : 월 5만원
문의 02)2264-712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전 성불사
011-591-8228

행 자 모 집
천일기도후 수계
자격: 40세 미만, 남,녀 고졸이상
천일기도 의지가 있는 분만 연락요!!
011-468-90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
02)917-3363

비구비구니 기도스님,행자 모십니다
▷부산
016-9730-3003

서울시내 조용한 조계종 사찰입니다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6-9755-8988

부전스님 모십니다
유서깊은 도심사찰
금법당 수국사 사부대중 합장
02)356-2001,
011-746-86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내 산사
055)335-6449

신심있고 건강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도심속의 신축건물 사찰임
▷울산 선암사
011-860-8793
052)282-8793

기도하실분 행자모집 합니다
054)373-0383
010-4528-9807

도심포교사찰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050-2000-2233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에게 달마그림 보시해드립니다 오셔서 받아가세요
010-6462-0343
주강합장

승용차를 보시해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소승은 깊은 산사에서 용맹정진하고 있는 비구입니다. 교통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011-9601-6676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비구니 스님선방
30명정도. 해인사 부근
40대후반에서50대
010-9456-8495

좋은인연으로 공경에 빠져있는 불자에게 모든일을 자원봉사로 해결 도와주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처사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50~60대 승용차 소유
011-831-6434

부전자리 구합니다
각종 불공 · 제의식
비구 51세, 경험풍부
(서울,경기지역)
010-6310-7112

유황 법제를 전수합니다
054)751-8225

부전스님 모십니다
본사는 일산신시가지 옆에 있는 사찰로서 제사가 많은 절이며 주지스님이 공석일 때가 많습니다 사찰운영이나 장례문화에 관심이 계신분은 아래로 이력서 및 연락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31)906-51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384-7557

행 자 모 집
천년고찰이며 전통수행도량인 본 사찰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심과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백담사 033)462-6969

포교원안내
• 위치: 용산구 남영동 대로변 4호선 출구
• 2층건물 2층 • 평수 : 약 6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아미타 관음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합 1천만원 월 30만원
033)647-5475
011-750-5424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 3층건물중 3층
• 평수 5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A급 답사 후 절충 즉시법회가능
011-9761-161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읍 소재
• 대지: 120평 건평: 43평(임법당) 요사채, 용왕당
• 스님건강상 (급)
• 가액: 1억7천만원
055)672-3313
011-872-3320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참 자아를 찾고 이 세상의 불국도를 실현코저 하는 원력을 가진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 해 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 낙산사 홍련암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671-6079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 부처님 진신사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진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4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2개월
• 고급과정 : 2개월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7. 4
월 · 화반(주 · 야간 : 4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강북구
● 임법당: 40평
● 부지: 61평
● 가액: 3억5천

● 위치 : 경기 가평
● 법당 : 25평
● 요사 : 실 90평
● 부지 : 672평
● 가액 : 4억

● 위치 : 전북 순창
● 법당 : 17평
● 요사 : 25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 서울시내큰사찰-45억
② 경기신축사찰-4억3천
③ 강원문화재사찰3만2천평-7억
④ 경기산속사찰3000평-8억
⑤ 봉천동사찰175평-4억5천
⑥ 서울토굴국유지150평-1억5천
⑦ 충청여법한사찰3천평-9억
⑧ 여주1200평-1억2천

♦사찰다량보유,공양주부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안내

● 경남 김해시 내동 상가주택
● 법당 3층
● 대지 78평, 건평 약 150평
● 은행융자 9천5백만원 전세 1억 천오백만원
● 가액 : 3억 5천만원 (1억4천만있으면 입주 가능)
● 3층법당만 전 · 월세 가능 (전세 7천만원)

010-8410-20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동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600만원
● 교통편리 몸만 오시면 됨

018-541-1890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2억 8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785-5670
053)986-2227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40평
● 법당 : 12평
● 요사 : 12평
● 가액 : 2억 3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시내에서 5분거리
● 평수: 건물 40평, 사용부지: 500평
● 임법당, 방4개, 입식부엌, 목욕탕2개
● 가액: 6천8백만원 1년 도지 20만원
● 아름들이 노송이 보기좋게 감싸고 있음

011-806-4867

포교당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부지 405평 건평 목조 한옥 20평
● 가액: 1억 8천

041)753-8137
010-4202-3699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도심속 사찰 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지역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대지 8×6미터 코너 112평 건평 120평 1층상가 4개 2층법당 최고시설 완벽함 1층상가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 가액 4억 8천중 상가보증금 융자금 빼고 2억 7천이며, 개인사찰 등기 완료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께서 답사하시어의논바람
● 주차 80%.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010-3166-8483/032)667-8485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 부지: 40평
● 법당: 20평(임법당, 방2개)
● 가액: 7천9백만원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서 포교지로 좋습니다(철학관적지)

● 위치 : 경남 김해시
● 부지 : 100평, 법당 : 40평(3층)
● 요사채 : 40평(2층)
● 주지실, 종무소, 공양간: 40평(1층)
● 가액: 3억8천만원
● 특징: 신축한 도심사찰로 건축비만 4억이 투자됨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자리중에 자리! 국내 최고의 자리!

영험의 자리!(백문이 불여일견)
● 신당동 중앙시장 건너편
● 평수 : 20평
● 보증금 1,000만원 / 월7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2)2236-2284
019-634-3069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당진군 합덕읍
● 평수 : 330평(등기허가,170평(구구지) 합 500평, 건평 115평 (3채 중 1채는 단독 전세, 매매 가능) 법당 50평(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짐)
● 조건 정리 되었고 산세수려, 마당넓고 차진입 가능, 물-바위속으로 600자
● 전세 1억(년비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양도 2억. 인연있는분 만나고싶습니다.

041)363-4905
011-325-1272

포교당안내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즉시법회. 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02)2208-609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
※ 계곡 및 산세좋음

● 위치 : 부산시내 서구
● 부지 340평
● 법당 40평
● 요사 40평
● 가액 4억5천(융자가능)
※ 산세좋으며 바다 전망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청주시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 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편리)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만원
시설비 9백만원.집기일체

043)211-7893
019-656-2766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평수 : 2층 20평
● 법당, 거실, 방2개
● 시설물: 사찰 집기류 일절 시설비 700만원
● 가액: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

031)667-0529
010-3906-0528

포교당안내

● 위치: 서초구 방배동 4층 48평 (이수역 4, 7호선 환승역 2분거리)
● 가액: 보 3000 / 월 100(보증금 조절가) 시설비 답사후 결정(시설A급)

● 위치: 대구시 동구 불로동 3층 65평
● 가액: 총금액 2300만원(집세, 시설비 포함)

016-213-2416(서울)
016-296-0385(대구)

사찰(급)안내

● 위치: 서울 광진구 (상가 3층 건물)
● 법당1,방2(주방 및 거실1) 쾌적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에 월60만원
시설권리금 2천5백만원(부동)
※ 양도광고는 단1회뿐임※

011-458-2955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서울에서 1시간30분)
● 화장터 장례예식장 300m사이
● 법당납골당 최고 명당자리 (민원없음)
(건축설계, 토목공사 완료)

● 위치: 경기도 광주 (서울에서 30분)
● 대지: 290평 건평: 110평
새통나무 기와집 2동
대웅전 요사채 방8개
● 경기도 광주사찰 투자하여 운영하실분 모심

011-9109-3660/031)767-0837
011-9004-3613

포교당 안내

● 위치 : 용인시 도심포교 최적지
● 42평 건물 4층 옥상 사용가능
● 법당, 산신각, 방2개 주방, 거실, 욕실
● 보증금 : 4천만원.월10만원
시설비 : 답사

017-372-89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3층 중 3층.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9969-9895
032)572-750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인근섬
● 대지: 120평 밭: 200평 요사채18평(방4개) 법당: 30평(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불심있는 지역으로 포교불사에 관심있는 스님 적합
● 가액: 보증금 1억6천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1-9576-164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 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 2칸, 주방, 화장실, 베란다, 시설완비, 대로변, 역세권 유동 인구 많고 위치 최고 좋음 포교원 운영해 보실분 인연기다립니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7324-511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창동 (전철역 3분거리)
● 규모 : 17평 아파트 1층 (복도식 코너)
● 가액 : 8,500만원(답사후 절충)
● 현재 법회 운영중 (철학 겸비 호조건)

연락처 011-9036-9993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6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전망좋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7억3천만원

011-9411-530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평수 : 200평
● 법당 20평(기와단청), 삼존불, 약사전, 신중단, 각단 후불탱화, 범종, 원불, 삼성각(5평기와), 요사채 20평, 방3칸, 입식부엌(정화조 유), 산신지지가 응집된곳
● 가액 : 상담후 결정

010-6440-3062

암자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 법당 : 12평
● 삼존불, 신중, 칠성, 각단탱화
● 요사채, 방 4개, 공양실 창고, 욕실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8678-9950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2리
● 맑고 청정한 소나무 숲속도량
● 조용히 공부하며 사실분 적합
● 차진입 전기들어옴 컨테이너 가로등있음
● 관리지역 725평
● 가액: 4500만원

011-373-4858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땅: 1300평
● 법당1, 요사채2동
● 가액: 1억8천

011-9335-5535

암자안내

● 위치: 경북 군위군 춘산면
● 천년고찰 법당 및 요사 3동
● 대지 : 198평, 법당 뒤 야산 9천5백평 산밑 밭 약 1,000평
● 가액:통땅 6천 8백만원 (가격절충가능)

011-380-5611
031)251-5615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부근
● 대지 68평, 건평 35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269-8688
052)223-8617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법당, 요사채
● 가액: 4억6천만원

011-9961-0241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성주군 과천면 금봉리 학산동
● 국가보물사찰
● 대지: 601평 요사채 조립식 건물 2동 시설완비
● 총가액: 3700만원

016-504-327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 평수: 30평
● 전세: 1800만(월20만)
시설비는 스님 방문 후 절충

051)781-3037
011-594-1526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포교당안내

● 위치: 일산
● 평수 113평(분양)
● 시설 위치 A급
● 포교에 뜻이 있는 분 적극환영

011-749-4553

토굴작은암자

● 위치: 경북 영천시
● 임법당, 보일러방 5개, 입식주방
● 샤워실, 마당에 텃밭있음 비품일체
● 가액: 2800만원

010-8582-0551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주지실 3평 주차장 200평

051)941-0195
010-6480-6960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 중구 반구2동
● 2층건물의 2층. 45평
● 방2개, 거실1, 법당별도
● 시설일체 완비

018-205-5979
052)293-1237

사찰안내

● 위치: 군산 성산
● 총 720평
● 사찰대지 268평, 임야 452평
● 가액: 3억5천만원

011-675-9828

포교당안내

● 위치 : 안양역 부근
● 50평. 3층 건물에 2층
● 가액 : 보증금 1천 7백만원에 월 6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31)466-0706

사찰(불교대학)안내

● 위치: 인구 60만(대구 달서구 소재) 8차선 대로변 지하철1분거리
● 건물: 3층(70평) 방4개 창고1개, 법당(30평)삼존불 후불탱화 원불 인등
● 가액: 보증금 2천5백만원(월 70만원) 시설비는 최저로 보시합니다

011-699-9120

암자토굴안내

● 위치 : 합천 가야산 지역
● 면적 : 450평
● 임법당 요사채 1동(45평), 방7개, 예집12평, 창고 20평, 최신심야보일러, 법당 · 주방시설일체완비, 전답 1000평사용가능.
● 특징 : 900고지 청정지역, 최신 황토 방 요사채.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 답사 후 절충 (대출가능)

018-689-0455

사 찰 안 내

● 충북 보은에 있는 사찰입니다.
● 요사채 54평(인법당1,큰방1, 방5, 주방, 욕실2, 좌변기 화장실2), 창고10평, 하우스15평, 심야전기 보일러, 지하암반수 등입니다.
●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주위는 송림이 우거진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을은 1km 떨어져 있습니다.
● 인연있는 (급히)스님을 찾습니다. 전세(조정가능)

연락처011-763-10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건물(시설): 방2개, 주방(총 40평)
● 법당: 삼존불, 신중, 시왕 탱화 모셔져 있음
● 특징: 에어컨, 집기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600만원 월 23만원 (외유관계로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011-9850-2946

사찰(급)안내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 IC인근 서울에서 20분거리
● 대지: 671평
● 건평: 법당20평, 요사50평, 주방한옥15평
● 내용: 천불조성, 주불(목불4자)
● 즉시입주가능
● 추가내용: 추가건축허가 92평 허가 득
● 융자: 5천만원
가액: 3억 8천만원

017-313-2161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 평수: 2층 3층 각 30평
2층: 접견실, 공양간(큰방), 스님방
3층: 법당(삼존불 각단탱화) 지장보살(탱화) 산신각(산신탱화)
● 가액: 보증금 1000만 월 60만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3167-1774
032)662-1774

스님건강이 좋지 않아 포교원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서울 신림동 2층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 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불
● 법당 외 방1개 주방 화장실 총 30평
● 보증금 시설비 5000만원, 월 50만원
● 12년 포교원 운영 책임있게 포교하실 조계종스님만 연락주세요

019-495-5933

사찰(불교대학)안내

● 위치: 인구 60만(대구 달서구 소재) 8차선 대로변 지하철1분거리
● 건물: 3층(70평) 방4개 창고1개, 법당(30평)삼존불 후불탱화 원불 인등
● 가액: 보증금 2천5백만원(월 70만원) 시설비는 최저로 보시합니다

011-699-9120

대명당터(급)안내

● 위치: 계룡산 국사봉 산하 대문앞까지 포장완비
● 용도: 수도원, 사찰, 별장, 주택 등 다용도로 최적
● 대지: 366평 건물 52평중 기와 38평 슬라브 14평 법당용 약18평 그외 방 8칸
● 가액: 2억3천만원(1~2년 분납가)

041)736-8311
019-403-8311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불교 관련 분과토론 관심 집중

제 9차 세계여성학대회가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이화여대에서 개최됐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79개국 2063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환경, 미디어, 과학 등 20여개의 소분과 주제 아래 5000여개의 분과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약 280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젠더와 종교(Gender & Religion)' 주제의 소분과를 통해 여성과 종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중 불교관련 분과토론은 ▲한국불교여성의 종교체험 명명하기 ▲일본불교의 성문제 ▲아시아의 여성과 전통종교 ▲대만불교의 여성 지도력 ▲천성산을 감싸 안은 인류-도롱뇽의 초록공명: 지율 스님 등 모두 5개가 열렸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대만, 일본 등에서 참가한 학자들의 논문 13편이 발표됐으며 여성불자들의 현황과 이슈를 짚어보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여성, 불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나

한국사회의 소수자, 여성의 권리와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에 불교는 어떻게 길잡이가 되고 있을까? 이번 대회를 통해 발표된 한국불교 관련 논문은 7편. 이들은 각각 조선시대, 근·현대 등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접근으로 한국 여성불자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봤다. 더불어 조선시대 유교전통이라는 틀을 거치며 함께 억압받던 한국불교와 여성은 필연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돼 왔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불교를 이끄는 중심적인 힘이 여성에게 있다고 평가했다.



79개국 2063명 여성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진 세계여성학대회 개막식. 오른쪽에서부터 윤후정 초대 여성학회장,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네번째가 영부인 권양숙 여사, 여섯번째가 장필화 대회조직위원장, 거트루드 몽겔라 범아프리카의회 의장. 사진=고영배 기자

79개국 2063명 참가… 불교관련 논문 13편
전세계 여성불자 아우르는 분과 토론 아쉬워

조선조 여성과 불교 '동맹관계'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김성은씨는 조선실록 등을 근거로 "유교전통에 의한 억압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조선시대 여성과 불교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일종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며 "핍박받는 현실에서 벗어나 주체가 될 수 있는 절에서 여성들은 위안을 얻었으며 숭유정책으로 설자리를 잃어가던 불교는 사찰을 찾는 여성들에 의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21일 분과토론 발표자 황혜숙(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 강사)씨 역시 "13세기 조선시대 신유학파가 성행하던 때 불교와 여성은 모두 소외받는 존재였다"고 전제한 뒤 "한글창제와 함께 유학자들에게 경시됐던 불교경전이 유교전통의 소수자인 여성에 의해 활발히 번역됐다"고 설명했다.

불교를 통해 여성의 권익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은 조선시대를 지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계속됐다. 박진영 교수(미국 아메리칸대)는 한국 근대사회의 대표적인 신여성 김일엽 스님과 나혜석의 비교를 통해 두 여성의 자아(참나)를 찾는 과정에 있어 불교가 미친 영향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두 인물은 모두 억압을 강요당했던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자아해방을 갈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불교는 이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참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여성불자의 숫자와 규모는 남성불자에 비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그들의 역할과 이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마르씨 미들브룩스(서울대 종교학 석사)씨는 '한국의 근대신앙 정의' 논문을 통해 "여성중심적 불교를 흔히 '치마불교', '보살불교'로 일컫는데 이러한 '기복'이 소극적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여성 수행을 고무하지 않는지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미(동국대 박사과정) 씨는 "여성수행을 증작하고 이를 평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탈가부장적 사고"라고 덧붙였다.

여성불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여성불자들의 사회적 역량이 확대되는 장치와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 전망은 밝다.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은 "한국사회의 여성지위 향상에 따라 여성불자들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발원은 세미나, 여성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교도소 교화활동, 호주제 폐지 운동 등 사회 각층의 문제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한국여성불자의 영역을 새롭게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또 한국불교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불교권 국가들의 여성불자의 현황과 활동, 영향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는 "특히 일본불교는 최근 활발한 연구교류가 이뤄지는 한국, 대만불교에 비해 공론화 되지 않은 편"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일본불교의 현황을 접하게 됐다"고 평했다.

일본불교 여성 역할 미약

20일 열린 일본 여성불교 분과토론은 여성불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카노 하루코 쿠니군데 세이센대 교수), 낙태아 천도재(히비노 유리 가나자와대 박사과정), 여성의 성지출입 금지(미나모토 준코 킨사이대 교수) 등 일본 여성불자의 지위와 현실을 드러냈다.

오키노 교수는 "금욕주의적 특징으로 인해 일본불교에서는 여성이 마력적이며 수행에 위협적인 존재로 왜곡되어 왔다"며 "오늘날에도 잔존해 있는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가불자들의 조직화된 사회참여 활동으로도 잘 알려진 대만불교의 중심은 여성이었다. 23일 '대만불교의 여성지도력' 분과토론을 통해 즐리아 후앙(대만 칭화대학) 교수는 쳉옌(證嚴) 스님이 설립한 대만의 대표적인 재가단체 자제공덕회의 구조와 특성에 나타난 여성불자들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후앙 교수는 "카리스마적인 여성 종교지도자의 역할과 이를 따르는 불자들의 종교적 자아성취 및 희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제공덕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교관련 분과토론에는 미국, 독일, 브라질, 네팔 등 다양한 국적, 종교를 가진 참석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반응으로 토론에 참여,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서구여성 불교관' 연구 과제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는 불교인구와 이웃종교 관련 분과토론들이 범지역적·이론적 주제로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불교현황만을 다룬 이번 대회의 불교분과는 다소 제한적인 논의만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참가자들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의 여성학센터 소장이자 현지 불교단체의 법사 샤론 다비에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여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지속됨을 알게 됐다"며 "가능하다면 다음 대회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서구 여성불자들의 현황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강연을 마친 지율 스님이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행사참석자들과 함께 대형 천에 도롱뇽을 수놓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모성 본성은 환경과 직결됩니다"
지율 스님, 세계여성학대회서 기조강연

4차례에 걸쳐 총 200일이 넘는 단식으로 우리 사회에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던 지율 스님이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학자들 앞에 섰다. 바로 6월 22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세계여성학대회 종교분과 토론에서 기조강연을 한 것이다. 다른 피부, 다른 관심, 다른 나이였지만 스님의 강연을 들은 200여명의 방청객은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여성의 힘은 팅 비고 고요하며 넓고 평탄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평화롭고 균등합니다. 낳고 기르는 지구적이고 모성적인 본능은 여성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성산 도롱뇽을 위한 외로운 투쟁-지율 스님의 초록공명 운동과 에코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스님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성들이야 말로 환경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들의 미래가 환경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스님은 현재 진행중인 '도롱뇽 소송'을 꼽으며 여성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역설했다.

스님은 또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언뜻 보기에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관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제까지는 가진 자들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싸움일 뿐이었다"고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비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괴되어 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과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스님은 방청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지율 스님은 "이제 우리의 선택은 개발이냐 보존이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혜 수녀는 "도롱뇽 소송과 천성산 지키기 활동 등 지율 스님의 행보는 건강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원불교 이원조 교무도 "지율 스님의 단식은 경제 논리에 의해 생명과 평화를 소홀히 함으로써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스테판 블랙(35·미국)씨는 "성직자로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만금 갯벌이 있는 부안에서 스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 올라온 김정임(42)씨는 "아픔을 같이 하고 있어서인지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강연을 마친 지율 스님은 행사참석자들과 함께 도롱뇽 수놓기 시연을 벌였다. 대형천에 정성스럽게 도롱뇽을 수놓은 지율 스님은 "도롱뇽이 천성산의 많은 생명과 함께 보다 편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표현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종선사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드립니다.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뜬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 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쓸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중 8,9명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바램입니다. 단돈 10원도 댓가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도와 준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 내 나이 75세 재산세 200여만원에 월 의료보험료 13만원 내며 병원에 한번 가지 않은 편한 영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에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씌워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 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충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부터 1주일간은 부산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 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서울 전수도장은 월, 화, 수요일이 상담일입니다)
☎ 02)2216-6278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올림

일주문



신행단체 분야별 연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6월 25, 26일 화성 용주사에서 교도소 및 직장 직능 신행단체 분야별 연수를 실시했다.



불레협 지도자연수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운광 스님은 7월 2~4일 서울 봉은사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지도자연수를 실시한다.(02)742-7344



공불련 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송도근 회장 대행은 6월 25~26일 양산 통도사에서 통도사 율원장 혜남 스님을 법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교정인연합회 하계수련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7월 2, 3일 평창 월정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입제식은 2일 저녁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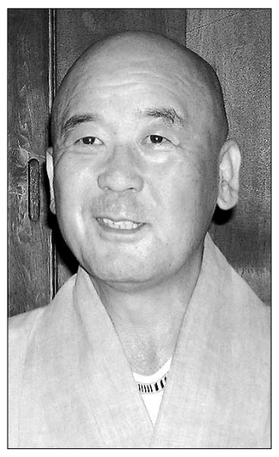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기념법회

부산불교거사림회 배호암 회장은 창립 33주년을 맞아 6월 28일 오후 7시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대성 스님 초청 기념법회를 개최한다.(051)816-2241

"자신을 위한 여행 떠나듯 와 보세요"

本社와 '자비 명상' 템플스테이 여는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



'나 · 너 · 우리함께' 큰 주제 아래
10회 동안 테마별 프로그램 진행

"'중생이 앓으니 내가 앓는다'는 유마거사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자비의 마음을 이웃과 함께할 때 불국토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과 수행법이 있지만 이번 여름기간은 특히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7월 1일부터 10회에 걸쳐 '나 너, 우리 함께'라는 대 주제로 여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여는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사진)은 행사기획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본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는 '치유' '새출발' '참회' '가족' '소년소녀가장' '부부' '장애우' '노인' '취업대기 청년' 등 모두 10차에 걸쳐 매주 2박3일씩 진행될 예정이다. '치유'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새출발'은 이혼경험자들, '참회'는 낙태나 유산 등의 슬픔을 지닌 사람들, '가족'은 가족해체풍토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화목을 위해, '부부'는 배우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가정,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그리고 취업난이 심한 요즘 청년취업대기자들을 위해 열리는 것.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이 진행하고 매회 전문가들이 동참하며 '자기긍정명상' '가치관 경매' '공동체놀이' '편지쓰기' 등, 각 주제에 따른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된다.

"절에 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서일 겁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거둔다는 인연의 법칙을 믿고 주인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픔에 매몰돼 자신을 학대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번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한번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지구에서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템플스테이는 프랑스언론에 집중소개되는 등 국내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실시하는 사찰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 마곡사 템플스테이의 특징은 무엇일까.

"소수의 인원으로 가슴 깊이 안고있는 한이나 아픔을 집단상담 방법과 명상으로 직접 느낀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쓰므로 지금 현재를 바로 보게 합니다. '지금 현재'야 말로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불교불모지 충청도에 위치한 마곡사는 다른 조계종 교구본사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템플스테이의 명가(名家)로 유명해지면서, 마곡사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진각 스님은 "힘이 모아지면 대전에 불교방송도 만들고 공주와 부여에 불교대학도 만들어 불자님들이 좋은 부처님법을 가까이서 접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원력도 내비쳤다.

스님은 여름사찰수련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마곡사 뿐 아니라 전국 사찰 수련회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도 주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여행간다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와서, 그동안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자기 마음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에서만 이러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너와 내가 같다는 평등하고 나누는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마세요."(041)841-6221

공주=이경숙 기자

지역 사찰 100% 회원 가입을 목표로…

대전사암련 새 회장 운봉 스님



대전사암연합회 제18대 회장에 운봉 스님(운봉암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전임 회장 만다 스님의 유고로 6월 15일 회의를 연 대전사암련은 전형위원 5인의 추대를 받아 운봉 스님을 새 회장으로 전격 선출했다.

"대전지역에 위치한 절들은 공원부지 안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불사하기도 힘들고 법당 보수공사를 하는 것에도 제약이 큽니다. 회원 절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힘이 되어 주고 싶은 것이 회장으로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운봉 스님은 대전지역 사암들이 단합해 같이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사암련 소속 사찰은 280여 개, 정회원 사찰은 220개이다. 대전지역 사찰이 500여개 된다는 스님은 "지역 사찰 모두를 회원 사찰로 만드는 것이 임기중에 이루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라고 말한다.

스님은 "사회복지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 대전에 거주하는 어려운 노인들을 모시고 살아갈 터전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도 펴보였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일붕 서경보 스님 열반 9주기 추모재



(재)일붕선교종(총무원장 동봉)은 6월 15일 의령 일붕사에서 일붕 서경보 스님 열반 9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동봉, 재단이사장 경원, 일붕사 주지 혜운, 일붕문도회장 도기, 일붕존자유지보존협의회 공동의장 붕해, 학암 스님 등과 허남식 부산시장 등 2500여 명이 동참했다.

일산노인복지관 깨끗한 거리 캠페인



경기도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 취업알선센터는 6월 18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센터 어르신 60명과 인근 호곡중학교 학생 16명이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선도'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서는 쓰레기 문제와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가 함께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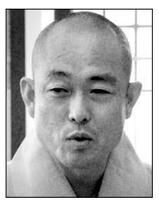
한국불교기자협회 정기연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는 6월 18~19일 평창 월정사와 양양 낙산사에서 상반기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현대불교신문 등 6개 회원사 회원과 가족 34명이 참석했다. 낙산사에서 열린 입제식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낙산사 관람,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환경의제21 마무리에 최선"

조계종 환경위 상임운영위원장 성효 스님



"조계종이 지난 3년여간 추진해 온 불교환경의제21 수립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상임운영위원장에 선출된 성효 스님(용인 용덕사 주지 · 사진)은 최근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교환경의제21' 수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평소 환경교육운동에 관심을 쏟아온 스님은 "수행환경 전반을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 사부대중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효 스님은 "7월에 불교환경의제21 최종안을 검토하고 8월말에 다시 환경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내용을 확정하겠다"며 "늦어도 10월경에는 종교계 사상 처음으로 환경의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힌 스님은 "환경위원회가 조계종의 환경종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경작한 보리 팔아 금강대에 장학금

금강대 시설과장 인산 스님



"주경야선(晝耕夜禪)이 몸에 배어서인지 노는 땅을 그냥 둘 수 없었죠. 학교에서 얻은 소득이니 학교를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학금으로 기탁할 작정입니다"

천태종 인산 스님(사진)이 손수 경작한 보리를 팔아 금강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6월 18일 실시한 상월농협 보리수매에서 인산 스님은 kg당 4200원씩, 총 3600kg을 팔아 약 1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학교가 농사를 지었다는 말에 의아해 하면서 반신반의하던 면사무소와 농협직원들도 이 지역에서 금강대가 단위면적당 가장 높은 수확량을 기록했다며 놀라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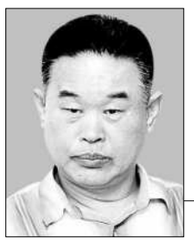
금강대 시설과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인산 스님이 교내 땅 3000여 평에 보리를 파종한 것은 지난해 10월. 금강대는 학교가 커질 것을 대비해 주변에 넉넉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재학생들이 적어 유휴부지가 많은 편이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띤 인산 스님은 "남들보다 늦은 시기에 고랑도 내지 않고 직파해 과연 수확이 될까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매일 아침 몇몇 학인스님들과 함께한 기도 덕분인지 보리가 쑥쑥 자라 주변 보리밭보다 2배가 넘는 소출이 나왔다"며 흡족해 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불자 세상보기

김 재 영
동방불교대 교수

수류탄 맞은 '인성교육'

최근 전방부대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참혹하게 꺾여버린 20대 초반 젊은 아들들의 아까운 인생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이 나라가 싫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는 절규가 어찌 몇몇 부모님들만의 심정이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사회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두고 여러 조사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육군당국은 사건을 일으킨 병사의 군 부적응과 심리장애가 사건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발표했다. 유가족과 사회일각에서도 사고자의 비정상적인 인성과 심리적 장애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전문가들은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이상(異常)심리-리셋(reset)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음에 안 맞으면 확 판을 깨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일컫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우발적인 충동이나 병영문화의 전근대성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현대사회의 심리적 특성, 지식정보화사회의 심리적 특성과 보다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기난사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고찰되고 처방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사고자가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리적 기제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현상으로 보편화되고 광범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군대 부적응 병사들이 17%를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총기난사 사건과 유사한 사회병리적 사건들이 군대나 사회에서 이미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폭력과 인격모독을 수반하는 병영문화의 전근대적인 부조리는 어느정도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성의 문제, 인간교육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병영문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고자가 좀 더 자제력 있고 통찰력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회피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평소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지니고 있었더라면 동료를 향하여 수류탄을 투척하는 극단적 행위는 극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에게로 환원되는 보편적 과제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인간성, 인간적 가치를 증득할 수 있는 적절한 인간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없는 이 시대 사회구조에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은 거의 자기 제어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거의 포기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거의 포기하고 마을에서 어른들이 사회적 훈육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 허점을 사이버 문화가 점령해가고 있다.

사이버 세계가 현실 세계를 대체하고 기계적인 원리가 인간적인 윤리를 대체하고 가상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를 대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이미 비(非)인간화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 사회가 비인간화의 폭류 속에서 휩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출산률 · 이혼률 · 낙태율이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인간성 회복, 인간교육 회복. 이것은 결코 낡은 구호가 아니다. 우리가 모두 나서야할 시대적 과제이다. 한국 불교가 발 벗고 나서야할 긴급한 시대적 화두인 것이다. 이것 말고 달리 길이 없지 않겠는가?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가 창립 일주년 기념법회를 가진다. 또 열린우리당 불자의원 모임인 이타회가 창립법회를 했다.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불자 국회의원들의 조직적 활동이 이를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정치가 잘되고 못되느냐가 국민의 행복과 고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에 불교적 이념을 정치에 올바르게 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불자들의 활동이야 말로 불교적 이념을 정치에 반영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약한 것은 불교계 전반에 걸친 정치적 의식과 조직적 활동의 취약성 때문이다. 단지 정치인 불자들을 규합하는 것으로 정치를 통해 불교적 이념을 구현하는 조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불교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는 정치적 이념을 창출해 정치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불교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올바른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의식이 일반화돼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정치인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정치적으로 반영하는 틀도 갖춘다면 불자정치인들의 활동이 힘을 얻고 조직화될 것이다.

여의도에 연꽃 심는 의원 되길

그러나 이러한 제반 여건이 골고루 성숙되어 나가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시발점은 역시 정치인 불자들의 자각과 단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불교계가 관심을 가지고 응답을 해야 할 정치적 문제들이 제시되고, 불교적 이념을 각 당의 정치적 이념과 조화되는 정강정책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자 정치인들의 친목단체이거나 불교계의 직접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창구가 아닌, 진정한 불자 정치인들의 모임을 이상으로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타산이 우선되는 현실의 정치풍토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큰 이상을 향해 나갈 때 오히려 작은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말로, 새로운 전기를 추구하는 정각회와 새 출발을 하는 이타회에 천만 불자들의 기대와 격려를 전한다. 교계에서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범 종단적 정책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지니고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구체적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기에.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얼짱 열풍

인간의 이 몸뚱이는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어 꽃이나 향으로 보호되고 있다. 온갖 오물이 가득차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훌륭한 것으로 알고 또 남을 업신여긴다면 그는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숫타니파타〉

최근 대형 로펌 등 변호사 업계도 '외모'로 채용한다는 기사가 났다.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증가하면서 대형 로펌이나 소규모 법률 사무소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변호사를 골라서 채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신보다는 외형이나 물질이 중시되는 사회라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구현하기위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감각적 유혹에 사로잡혀 중심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을 보는 바른 안목을 지녀야 할 이들이 아닌가? '변호사 업계에 불고 있는 얼짱 열풍'이라는 말이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하루하루 수많은 어처구니없는 사건 사고 소식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쏟아져 나온다. 취재중 산중사찰에 있는 어느 스님이 "모두 행복하길 바라면서 그 반대로 향하고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제 우리는 과연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때다.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 말씀처럼 온갖 오물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단지 꽃이나 향으로 보호되어 있을 뿐이다. 매스컴을 통해 방영되었던 한 여성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히 떠오른다. 수많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잃어버린 가여운 여성이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향을 맡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할 때다. ■배지선(대구 주재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폐단 너무 크다 '공감'을 읽고

"임명권이 교구본사에 있으니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선거를 하니 부정된 선거라니!"

종단의 정치 행정 상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상태를 보는 것 같다. 이 나라의 정치 행정 상태를 칭찬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데 종단은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과 달리 세속법을 따라가며 세속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행정제도를 날마다 바꾸어도 정치 행정인과 국민의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아무 소용없듯이 종단이 세속법을 따라 정치 행정 제도를 바꾼들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행자에게 바른 세상과 바른 수행력이 없다면 제도란 한낱 공염불일 뿐인 것을."

<아함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원로는 다섯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둘째 제반 현상을 인과 관계로 분석하는 능력, 셋째 말씀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 넷째 제반 현상을 경험적으로 인식 분석하는 능력, 다섯째 제반 사항을 시대에 맞게 청정하고 활동력으로 처리하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이와 같은 기준으로 원로를 뽑고 있는가. 나는 가톨릭에서 교황을 뽑는 법을 보고 무척 부끄러웠다. 종단은 더욱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 없이 원로를 뽑겠지만 부처님이 안 계신 오늘날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원로를 뽑아야 할 것이다. 예전에 없었던 행정의 수장은 이러한 능력에 행정 능력까지 포함해서 뽑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사람을 어떻게 뽑는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상과 수행력과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자질론적 입장에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질론이 불교의 전통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자질이 있는가를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두손 모아 발원하오니 수행자는 세속법을 따르지 않으며 부처님 법을 따라 세속에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자.

홍범 스님(광명 보현사)

장애인과 함께 할 공간 만들어야

장애인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들은 늘 느리고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불교신문에 531호 실린 주몽재활원 은재의 이야기는 장애는 병이 아니라 단지 불편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생각해보면 장애는 사실 그리 드문 일만은 아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10% 이상이 각종 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후천적 장애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과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시급한 일은 우리 마음의 자세일 것이다. 장애인들을 우리가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을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를 바꾸기 전까지 장애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MBC에서 장애인을 오락프로그램의 MC로 내세우는 등 그들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제 불교계에서도 장애인 포교에 신경써야 한다. 그들에게도 감로수 같은 법문을 공감할 기회를 불교계에서 솔선수범해 제공해 주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친구가 되어 더불어 살아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유준식(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현대' 만평 심 민 섭



Btn 불교TV

불교TV 와 함께하는
백두산·북경·만리장성 성지순례

2005. 7. 7(목) ~ 7. 12(화) 5박 6일 일정 금액 1.080,000 원


지도법사
김용사 회주 자광스님

7월 7일
★ 장춘 도착 - 위황궁, 영화 촬영소
★ 연길 - 백두산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

7월 8일
★ 백두산 등정(짚차)천지
장백폭포, 소천지, 자연온천 관광
★ 온천욕 체험



7월 9일
★ 백두산을 출발하여 이동중
자연 박물관 관광
★ 용정으로 이동 후 윤동주 시비,
해란강, 일송정 원경 관광
★ 두만강, 북한 남양시 원경 감상



7월 10일
★ 천안문 광장
★ 자금성 ★ 경산공원
★ 서태후의 여름별장 '이화원'
★ 서커스 관람



7월 11일
★ 만리장성(케이블카)
★ 용경협(유람선) ★ 명 13릉 관광
★ 발맛사지 체험



7월 12일
★ 왕부정 거리 관광

불교TV 사업부 ☎ 02-3270-3333 / 887-2148 여행매니아 02-720-4525 www.btn.co.kr

온라인 여시아문(yosiamun.com)

국내 최대에서 세계 최대 **불서전문 서점**으로 변신

"해외 불서 가장 싸고 빠르게 구입하려면 인터넷 여시아문(www.yosiamun.com)으로 오세요."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으로 10여년간 불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 온 책방 '여시아문'이 온라인 서점으로 거듭나면서, 신속한 배송시스템을 갖춘 외국 불서 판매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3만여 종, 8만 여권의 불서를 갖추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전해 온 여시아문은 당분간 매장을 잠정 휴업하는 대신, 온라인 여시아문을 강화해 추가로 3만 5천여종의 외국 도서를 판매합니다. 인터넷과 전화(02-2004-8220), 팩스 (02-737-0696) 주문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 저렴한 비용으로 독자들을 찾아가 불교 세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은 기존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앉아서 국 · 내외 불서를 주문하는 것은 물론 즉석에서 책 내용을 읽을 수 있는 e-book 발간, 특별회원제 운영 등 다양한 기능으로 독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해외불서 판매 시작

3만5천여종 15일 내로 배송 가능
인도 MRML · Paljor 출판사등 독점 계약


MRML 아쇼크 자인 사장


팔조 출판사 데왓상 사장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되는 여시아문에서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3만5천 여종에 달하는 불교관련 외국 도서(표 참조)를 다량 수입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반 대형서점의 외국도서 판매가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 9일에서 최대 15일 사이에 배송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불자들이 원서로 된 불서를 고가에 구매하는 부담과 시간낭비를 줄여줌으로써 불교의 세계화와 현대화를 앞당기기 위한 본사의 포교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불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의 MRML 및 Paljor 출판사와 독점 도서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불교 및 일반 교양도서, 문학서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20권의 불서를 공급한 MRML과 195권의 티베트 불서를 독점공급한 Paljor 출판사는 세계적인 불교출판사로서 한국과 인도 및 티베트 불교출판문화의 교류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1952년 설립된 문쉬람 마노하랄 출판사(Munshiram Manoharlal, www.mrmlbooks.com)는 지금까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시크교, 요가, 산스크리트 문학 등 종교와 철학 분야에 많은 명저를 출간한 종교 · 철학 전문출판사입니다. 이외에도 인도 예술, 고고학, 역사, 지리학, 여행, 인도법률, 인도의학, 약초 재배, 문학 및 언어학, 사전, 예술 관련서적 1천5백여 권을 발간한 사회 · 인문 분야의 중견출판사입니다. 특히 창작 출판물 외에도 유명 불교 계간지인 <샴발라 선(Shambhala Sun)> 남아시아 판(South East Asia Edition)과 인도 빨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관련 책자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대표 아쇼크 자인 씨는 "여시아문을 통해 한국의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인도의 양서들을 다채롭게 선보일 수 있게돼 기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팔조 출판사(Paljor Publication, www.paljorpublications.com)는 문화 종교와 함께 티베트 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전문출판사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저서를 포함한 불교, 문화, 역사, 언어 등 티베트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책을 망라해 출판하고 있어, 인도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명도와 규모를 함께 갖춘 출판사입니다. 게다가 '티베트 고문서 도서관(Library of Tibetan Archives)'의 보유서적에 대한 권리도 독점하고 있어 소장가치가 높은 희귀 서적의 재발간 및 출판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지난 해 맺은 계약에 따라 '티베트 고문서 도서관'에 대한 한국 내 번역 및 출판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팔조 출판사의 영업담당 체링 씨는 "이번에 선보이는 팔조의 주요 도서를 통해 한국불자들이 티베트 불교와 불법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여시아문 해외불서 카테고리

Art, Archaeology and Architecture	미술, 고고학, 건축학
Buddhism	불교
Belleslettres	미문학(美文學)
Dictionary, Terminology, Handbook and Index	사전, 어휘, 안내서, 목차
Economics	경제학
Forthcoming	근간서적
Geography, Travel and Voyage	지리학, 여행, 항해 · 여행
Hinduism	힌두교
History, Culture and Politics	역사, 문화, 정치
Indian Law	인도법
Indian Medicine and Medical Plants	인도의학, 인도약초
Islam	이슬람교
Jainism	자이나교
Language, Literature and Linguistics	언어, 문학, 언어학
Music, Dance and Theatre	음악, 춤, 연극
Numismatics and Epigraphy	화폐학, 금석학
Religion and Philosophy/Philosophy of Society	종교와 철학, 사회철학
Sanskrit	산스크리트문학
Sikhism	시크교
Society and Anthropology	사회와 인류학
Tibetan Studies	티베트경전
Indian Archaeology	인도 고고학
Health	건강
Zen Philosophy	선학

※ 인도의 불서는 2~3일 만에, 미국 · 유럽의 불서는 9~15일내에 배송된다.

여시아문을 열면 상품이 푸짐

특별이벤트(6월8일~7월8일)에 참가해 福 받으세요

▲ 여시아문을 열어라~!!

새롭게 문을 여는 여시아문의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달동안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는 모든 분에게는 평생 여시아문에서 책을 구입하실 때 5%의 할인을 받으실 수있는 회원자격을 드립니다. 기회는 딱 한달! 이번기회에 언제나 부담없이 특별한 5%의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이북(e-book) 받고 저북 받고~!!

이번에 여시아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e-book을 구매하시면 매주 10분을 추첨, 여시아문에서 출간하는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e-book도 구매하시고 책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시아문을 도배하자~!!

여시아문의 모든 도서 리뷰섹션과 여시아문 카페에 글을 남겨보세요. 좋은 평이나 글을 남기신 고객 중 매주 10분을 추첨하여 여시아문에서 출간하는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 여시아문을 고쳐라~!!

새롭게 오픈한 여시아문 사이트내에 존재하는 버그를 찾아 주세요. 깨져버린 이미지와 오타, 연결되지 않는 링크 등등 여시아문을 활짝 열게 할 수 없는 버그들을 찾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매주 10명을 추첨을 통하여 여시아문에서 마련한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연실합장주, 열쇠고리 등이며 사정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의 주문에 따라 배송작업을 진행중인 본사 직원.

카페 여시아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

이젠 책속의 카페, 카페속의 책에서 또다른 여시아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시아문 카페가 오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시아문 카페에서는 단순히 고객이 도서만을 구입하는 기존의 일방적인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처음 카페에 가입하고 인사를 나누는 '일주문'을 비롯해, 아무 형식없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말할 수 있는 '나눔의 문',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소개의 문',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회향의 문', 고객이 직접 책을 쓸 수 있고 그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참여의 문', 책과 함께한 시간을 담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찰라의 문' 등이 있어 고객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다피아 · 붓다뉴스와 통합회원제 운영

불교뉴스·각종 정보 편리하게 만날수 있어

여시아문은 현대불교미디어센터(HBMC)의 한가족으로서 최대 불교포털 부다피아(buddhapia.com), 실시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buddhanews.com)와 함께 통합회원제로 운영하여 로그인 한번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불교계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 광대한 콘텐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HBMC의 모든 사이트 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 기능에서는 붓다뉴스의 불교뉴스와 부다피아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여시아문에서 고객이 구입하고 싶은 모든 도서를 따로 스크랩하고 저장해 이후 클릭 한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야말로 불교 정보의 모든 것을 단한번의 접속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여시아문 사이트 개편의 특징입니다.

우수독자 특별회원제

구매실적따라 4등급 분류 혜택

여시아문은 보다 체계적인 독자 서비스를 위해 특별회원제를 신설,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개편된 여시아문 회원제는 구매횟수 및 구매액에 따라 총 4등급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등급별 할인 적용 범위

구매수	구매수	금액	혜택(할인율)
A등급	50회	300만원	10%
B등급	30회	100만원	7%
C등급	20회	50만원	5%
D등급	10회	10만원	3%

(연단위로 계산되며 할인율은 구매횟수와 구매액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구매시 적용)

e-book 서비스

교리 · 문예서 등 84종 1차 제작 완료
일반 도서가격의 40%…파일 영구보존

디지털 출판문화를 대표하는 전자책, 즉 e-book을 이젠 여시아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e-book은 종이로 인쇄되어 출간되는 일반도서와는 달리 컴퓨터의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일반 도서가격의 40% 정도나 되는 저렴한 가격, 직접 서점에 가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편리함, 파일을 영구보존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시아문에서 선보이는 e-book중에는 현대불교에서 직접 제작한 청오 스님의 <기초교리> 한/영판을 비롯해 여시아문, 불광출판사, 우리출판사 등 불교출판사들의 단행본과 한정섭 법사의 강의 시리즈 등 총 84종의 책을 1차로 제작, 판매합니다.

■ 여시아문 e-book 리스트

여시아문	감산자전,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내 사주 내가 푼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돌부처,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방편개시, 배낭으로 담아온 인도, 법수로 배우는 불교,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 부처님께 재를 털면, 불성이란 무엇인가, 삶은 고가 아니다, 생활 속의 불법수행, 선방일기,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아름다움과 깨달음, 왜사,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찬불동요, 참선요지, 허공의 딸꾹질, 어떤 회상 정말 봄은 오는가
불광 출판사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메아리 없는 골짜기, 반야심경강의, 삶의 빛을 찾아,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행복의 법칙
우리출판사	구름의 품안에서, 동서양의 비교, 모계효도, 밥티의 소원, 복없는 아이, 삼성각, 선은 무문, 수도와 효도의 길, 수평선의 희망, 숲속의 이야기, 아리랑, 인연가, 자비성불, 자비의 문, 자장가, 태양에 생명이 있다
한정섭 법사	극락세계 이야기, 금강경 오가해,기독교의 상담심리와 불교의 상담심리, 나비의 꿈, 대혜종고 선사와 간화선, 무념국사, 미륵부처님 이야기, 방생의식, 법화경 약찬게, 부모은중경, 불교병리학, 불교신앙의 본질, 불교신행상담, 비유의 세계, 석가여래 성도기, 소동파, 소설달마대사, 약사신앙, 우리말 치문경훈, 유마경과 승만경, 육조대사, 이민환법사법어집, 인과 이야기, 인생 그리고 허무와 공, 조주선과 임제선, 지장보살 본원경 강의, 현대세계사에서의 기독교와 불교
도서출판 솔바람	설법전서 1권~9권
금호미술관	소나무야 소나무야
대한불교진흥원	대불전 1, 2, 3
현대불교신문	The Moon Year 청오스님의 기초교리 (한글 · 영문) 불교와 수학 과학과 불교

죽음의 호수를 생명의 바다로

시화호 항공환경감시단 비행단장

양창호

향기 도반의



'죽음의 호수'라 불리던 시화호가 되살아나는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사진은 매일 오전 · 오후 두차례 시화호 상공을 돌며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시화호 항공환경감시단 양창호 단장(오른쪽)과 김수근 교관.


항공환경감시단이 촬영한 시화호 전경.


시화호 환경감사단 양창호 단장.

시화호란?

1984년 정부는 반월만에 12.7㎞의 시화호 방조제를 건설해 여의도의 20배에 이르는 담수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시화호 인근에 형성된 공단과 도시에서 폐수가 빗물관을 타고 흘러 시화호를 오염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이 같은 오염은 결국 시화호를 '죽음의 호수'로 만들어 놓았다. 1996년 언론에 시화호의 상황이 보도된 후에도 수자원관리공사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다, 지난 2001년 담수화를 포기하고 바닷물로 시화호를 채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18명이 징계됐고, 하수배출업체 18개가 고발조치 됐다.

이제 남은 일은 바닷물로 채워진 시화호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다. 최근 조수간만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해양스포츠단지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시화호의 갯벌을 살리자고 입을 모은다. '갯벌 국립공원 추진운동본부'는 시화호를 포함한 서남해안 갯벌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화호 근처 비행장 만들어 15년간 폐수 방출 · 밀렵 등 불법행위 감시

사법권 없어 협박, 살해위협도
200m 저공비행 매일 초긴장
주말이면 법회 참석, 운전봉사

비행기가 날아오른다. 무게 255kg의 초경량 비행기가 가볍게 육지에서 바퀴를 떼고 하늘로 향한다. 발 아래로 펼쳐지는 1만2000평의 호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죽음의 호수' 시화호다.

20여 년간 지속된 난개발과 수질오염으로 '환경오염의 대명사' '간척사업 실패의 표본'으로 일컬어지는 시화호. 국토개발에만 치중한 채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정부는 지난 2001년, 결국 여의도의 20배에 이르는 담수호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하루 두 차례씩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끌어들였다. 시화호의 목숨부터 살리자는 것이다. 덕분에 지난해에는 쇠돌고래과인 상괭이가 발견될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시화호의 변화를 자연의 놀라운 자정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곁에 시화호 항공환경감시단 양창호 비행단장(40, 안산항공 대표)이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지 못한다.

"아직도 시화호에 몰래 폐수를 버리거나 금지된 어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를 다시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위입니다."

양 단장이 항공 감시활동을 시작한 것은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1990년부터다. 호주에서 초경량 비행기를 처음 만나 매료된 그는 안산 시화호 근처에 직접 비행장을 만들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시화호 상공을 비행하던 양 단장은 우연히 공장폐수를 몰래 버리는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에는 시화호의 수질오염문제가 언론에 드러나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맑은 시화호에 독성이 함유된 오폐수를 버리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후 매일 항공 감시활동을 벌이게 됐죠."

양 단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화호의 수질은 날로 악화됐다. 시화호 인근에 형성된 공단과 도시에서 폐수가 빗물관을 타고 흘러 시화호를 오염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돈에 눈이 먼 공장들은 밤이나 비 오는 날이면 폐수를 시화호에 그대로 토해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절감한 양 단장은 99년 정식으로 항공환경감시단을 발족했다.

양 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은 매일 오전 9시 사무실에 도착한다. 전날 촬영해 둔 항공사진을 정리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했을 때 찍은 증거사진을 CD에 담아 두기 위해서다.

오전 11시면 격납고 문이 열린다. 한 대에 무려 1억원을 호가하는 CH701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성규(40) 김수근(42) 안재성(40) 교관이 차례로 비행기의 상태를 점검한 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시작한다. 항공감시가 시작됨과 동시에 다른 단원들은 보트를 타고 시화호를 돌아본다. 고기잡이가 금지된 시화호 안에서 불법어로를 벌이는 어선은 없는지, 밀렵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퇴약볕 아래 두 시간에 걸쳐 감시활동을 마치고 나면 직접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식사 후 양 단장이 경찰서나 법원에 적발된 사건을 접수하러가는 사이에도 전화벨은 쉬지 않고 울린다. 익명의 제보자들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개인이 신고를 할 경우 민원이 잘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항공감시단에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후 3시, 한 차례 더 정기 감시활동을 벌이고 나면 단원들은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초경량 비행기를 타고 수면에서 고작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공을 저공비행하며 호숫가를 둘러보는 일은 시종 고도의 긴장상태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불법행위가 더 잦아 웬만해서는 감시활동을 쉴 수도 없다.

그동안 양 단장과 단원들이 적발한 불법행위는 어림잡아 600~700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닌 민간 감시단에 의해 고소당한 사람들이 법 절차에 순순히 따를 리는 만무할 터. 협박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그나마 양전(?)한 편이다. 감시단의 보트에 구멍을 뚫어 시화호에 수장시키려 하기도 하고 살해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14년간에 걸친 꾸준한 활동으로 현재 감시단 회원은 120여명으로 늘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출해야할 경비도 만만치 않지만, 양 단장은 비행기와 보트는 물론 항공장비와 카메라 등도 자비를 들여 구입하고 있다.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 지원비를 받게 되면 혹여 감시 고발 활동에 객관성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지만, 결코 시화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같이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양 단장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곳은 사찰이다. 주말이면 근처 수리사를 찾아 법회 참가자들을 위해 자동차 운전 봉사를 하는 양 단장은 "고즈넉한 산사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를 찾게 된다"고 말한다.

하루하루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양 단장이지만, 최근 들어 "감시활동을 시작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하는 일이 잦아졌다. 개인의 힘으로 관공서나 정부 조직을 상대하기가 너무나 벅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감시활동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한번 오염된 자연은 치유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시화호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자연을 아끼고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 모든 환경오염을 막을 순 없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시화호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보살님! 올 백중재에는
'염불환향곡'이 인기입니다!

어디 염불만한 기도와 수행이 있겠습니까?

올 봄,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을 출간하였습니다
『염불환향곡』은 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외우거나 따라 읽기 쉽게
리듬이 스며있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제 염불로서 각 가정에 부처님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해설집
· 독송집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
기성 쾌선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해설집 : 신국판 / 198쪽 / 가격 7,000원
독송집 : 국배판 / 92쪽 / 가격 5,000원

구입은 인터넷 · 통신판매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즉시 전화 · 인터넷 주문배달 되며, 대형 서점 및 불교총판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代), 02)2004-8220(여시아문),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특별대담 고우 스님-전재강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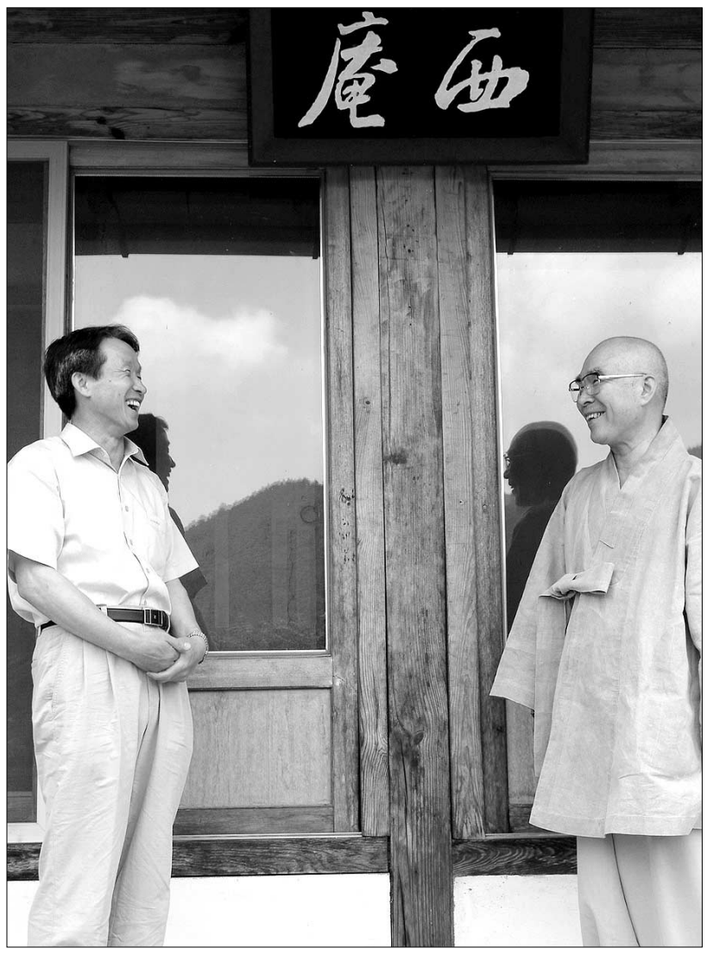
‘서장’을 다시 말한다

‘나는 누군가’ 근본 물음에 正見 제시

녹음이 한껏 짙어가는 태백산. 흰 구름이 유유히 떠가는 하늘 아래 인가(人家)가 끝난 곳에서 산은 시작됐다. 그리고 산길이 끝난 곳, 거기에 절이 있었다. 경북 봉화 각화사 서암. 전재강 교수(안동대 국문과)가 스승 고우 스님을 찾았다. 4년 전, 몇몇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틈에 끼어 고우 스님에게 <서장> 강의를 들었던 전 교수. 방문을 열자, 스님이 반갑게 맞았다.

방에는 대혜종고 선사의 진영이 걸려있었다. 재가자에게 선수행의 모든 것을 편지로 알려줬던 당대 선지식 대혜종고 선사. 고우 스님은 전 교수에게 대혜 선사와 재가자들의 서신을 묶은 <서장(書狀)>이 정견(正見)을 세우는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6월 17일, 그렇게 제자는 스승을 다시 만났다. 과연 <서장>이 현대를 사는 출·재가자들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서장>의 핵심사상은 무엇인지, 제자 전 교수는 스승 고우 스님에게 의심보따리를 풀어헤쳤다.



대담을 마친 고우 스님과 전재강 교수가 서암 처마밑에서 서로 마주보며 파안대소하고 있다. 태백산 능선이 유리문에 그 자태를 잔잔히 드러내는 것이 인상적이다. 사진=김철우 기자

전재강 : <서장>은 어떤 성격의 책인지, 나아가서 왜 출·재가들이 공부해야 하고 또 마음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고우 스님 :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해 존재원리를 발견한 분입니다. 그 존재원리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바로 선(禪)이죠. 중국 대혜종고 선사는 <서장>을 통해 당시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법으로 선을 제시했어요.

때문에 <서장>의 성격은 시공을 초월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죠. 그래서 <서장>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공부의 필요성, 마음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줘요.

특히 <서장>은 존재원리가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강조해요. 이를 본래성불(本來成佛)이라 말하죠.

생활에서 선 구현하는 전통 살려야

전재강 : <서장>은 재가선의 활성화, 생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현대인들에게도 <서장>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우 스님 : <서장>은 시대의 필요에 의해 관심을 갖게 된 선어록이에요. 그 필요는 무엇일까요? 자기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불안한 마음 때문이죠. 선을 해야 한다는 까닭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 존재근원에 대한 무지가 중생들에게 이기심을 일으켜,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등의 대립·갈등·투쟁을 만들어냈죠. 그런 이유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도 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은 특히 부처님이 발견한 존재원리를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해 그 생활을 완성시켜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선은 생활에 매우 밀접해 있어요. 선이 우리에게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까닭도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출·재가자들은 너무 도식화된 간화선에 얽매여 일상생활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점을 지양하고 생활을 통해 선을 구현해가는 전통을 살려야 해요. 대혜 스님도 이를 강조했어요. 화두를 통해 존재원리 체험을 생활과 병행할 것을 당부했죠.

전재강 : 그렇군요. 스님, 사실 <서장>이 나오기 이전에는 조사선의 쇠퇴기였다고 봅니다. 스승의 말씀 한 마디에 깨닫는 ‘언하대오(言下大悟)’의 전통이 약해진 때였어요. 그래서 하근기 수행자를 위해 나온 극약처방이 바로 간화선 아닙니까?

고우 스님 : 간화선이 조사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사실 이 둘은 같습니다. 조사선 속에도 정형화만 안 됐을 뿐, 간화선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간화라는 말이 없었지,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해왔던 거죠. 이후 대혜 스님이 간화선이란 이름도 붙이고, 그것을 정형화시켰어요. 대혜 스님 당시에는 선공부가 사대부에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선수행하는 사람들이 선의 본질인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존재원리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험 없이 그냥 말로써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풍조가 생기게 됐어요. 결국 간화선은 조사스님들의 말에서 의심을 일으켜 깨달으라고 한 수행법이에요.

간화선과 회광반조, 따로 봐선 안돼

전재강 : 그럼 대혜 스님은 <서장>에서 간화선이 입각한 근본적인 입장, 선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선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 선 수행에서 경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고우 스님 : <서장>이라고 해서 별다른 법이 아니에요. <서장>이 불법이고 불법이 <서장>입니다. 조사선이나 간화선이나 모두 다 하나에요. 그럼 부처님이 발견한 존재원리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견성유무를 떠나 6근(根) 6식(識)을 통해 현상을 보고 느끼고 감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을 만드는 본질은 안 보고 있어요. 부처님이 혜안(慧眼)으로 보신 시각은 현상은 물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지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현상과 혜안으로 보는 시각은 달라요. 부처님의 시각이 바로 보는 것이고, 육안으로 보는 것은 착각이지요.

또 선수행에서 경계할 점은 사량분별로써 존재원리를 이해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병폐입니다. 그런데 이 병폐는 그냥 병폐로 끝나지 않고, 선수행을 구두선(口頭禪)으로 떨어뜨려 일생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말로는 깨친 듯하지만, 정작 실제생활에는 실행이 안 되는 구두선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전재강 : 선의 본지는 일체가 ‘본래성불(本來成佛)’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혜 스님은 <서장>에서 간화선을 매우 강조했지만, 다른 편지를 보면 간화선 이외 회광반조(廻光返照)라는 선을 말씀하시기도 한 듯합니다. 선법 가운데 회광반조법의 근본 입장도 간화선의 근본 입장과 같습니까? 또 대혜 스님이 말씀하시는 회광반조법이란 어떤 수행 방법입니까?

고우 스님 : 본래성불은 모든 불교에서 강조하는 말이죠. 원시불교에서는 현상이 있든 없든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고 했죠. 결국 ‘연기=법=여래=존재’인 셈입니다. 이는 현상만 보고 본질을 못 보는 중생도 역시 본래 성불해 있고, 현상과 본질을 함께 혜안으로 보는 부처님도 본래성불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체험해가는 데 간화선법과 회광반조법이 있지요.

<서장>에는 간화선법이 2/3, 회광반조법이 1/3 정도 돼요. 대혜 스님이 간화선법만 고집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간화선법과 회광반조법을 유연하게 제시했지, 편협하게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간화선법과 회광반조법은 무엇일까요? 선문에서는 간화선을 성성적적(惺惺寂寂), 회광반조는 적적성성(寂寂惺惺)이라 했어요. 이것을 원시불교에 비교한다면, 간화선은 위빠사나, 회광반조는 사마타라고 할 수 있어요. 혜능 스님의 제자인 영가 스님도 이렇게 보았어요.

여기에서 매우 조심할 것은 위빠사나는 혜(慧)고 사마타는 정(定)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혜를 나눠놓고 보면 안 돼요. 혜능 스님은 이렇게 보는 것을 <단경>에서 외도라 했어요. 즉 간화선과 회광반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수행법이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간화선은 쌍조(雙照)로써, 회광반조법은 쌍차(雙遮)로써 수행해야 해요. 그러면 정혜가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게 돼요.

전재강 : <서장>에서 대혜 스님은 묵조선을 배척하면서 잘못된 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묵조선은 어떤 것이며 무엇이 잘못 됐기에 비판했나요? 간화선이나 회광반조와 대비해 소위 ‘묵조사배(師邪輩)’의 문제점을 설명해주십시오.

고우 스님 : 대혜 스님은 회광반조법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대혜 스님 스스로도 회광반조와 간화선을 합쳐 공부방법을 제시했어요. 대혜 스님이 배척한 묵조선은 회광반조하는 묵조선이 아니에요. 적적만 하는 묵조선을 비판했어요. 실제로 굉지정각 선사가 강조한 묵조선을 꾸짖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대혜 스님은 <서장>에서 적적만 하는 묵조선을 비판하는 내용도 많지만, 반대로 ‘있다’에 집착해 성성만 수행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배척하고 있어요.

‘본래성불’만 깨달으면 평화세상

전재강 : 그럼 묵조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고우 스님 : 그렇죠, 묵조선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전재강 : 묵조선이 바로 회광반조입니까?

고우 스님 : 그렇죠. 앞서 강조했듯이 쌍차쌍조로 수행을 해야 해요.

전재강 : 스님께서는 <서장>의 어떤 대목에서 감명을 받으셨습니까?

고우 스님 : ‘본래성불’이란 말이 가장 중요해요.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말이지요. 부처님이 혜안으로 발견한 세계에는 우리도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본래성불만 깨달으면, 이 세상에의 갈등과 대립, 투쟁 등은 하루아침에 종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성불이란 이 대목, 즉 ‘모든 존재는 부처로서 존재한다’는 이 말에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전재강 : 요즘은 살아있는 선지식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장>은 진정한 선지식이 된다고 봅니다. <서장>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우 스님 : 선지식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선지식은 본래성불 그 자리를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본래부처로 돼있다고 해도, ‘내가 있다’는 착각으로 그 본질인 본래성불을 보지도 계합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지식은 그런 우리에게 본래성불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지식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목표를 향해 가는 이유를 정견(正見)으로 설명해요. 또 정견을 갖춰주게 하지요.

‘수행혼란시대’…전통수행법 알아야

전재강 :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선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서장>의 내용과 큰스님의 오랜 선수행의 경험에 근거해 선수행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고우 스님 : 요즘 우리 사회는 근원적인 불안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불안이 겹치면서 ‘수행붐’이 일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수행붐을 ‘돈벌이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큰 문제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을 ‘수행혼란시대’라고 말해요. 다양한 수행법이 정말로 근원적인 불안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면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인지 짚어봐야 해요.

전통 수행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발을 잘 딛어야 합니다. 선지식은 수행자들에게 정견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정견에 의해 바로 수행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정견에 의해 일상생활화 하는 노력하면서 그 속에서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정리/경북 봉화=김철우 기자

‘서장’은 어떤 책?

선방 수좌들간에는 모든 것은 다 버려도 이 책만은 짊어지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사스님들의 어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어록이다. 대혜종고 선사(1089~1163)의 날카로운 가르침을 담은 이 책은 ‘천고(天古)의 절서(絶書)’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게 한다.

<서장>은 대혜 선사가 주로 사대부들에게 ‘선 공부에 관한 여러 가지 요지’를 대답해준 편지글로서, 그의 제자 혜연이 기록하고 황문창이 중편한 것으로, <대혜어록> 30권 가운데 25~30권에 해당한다. 수록된 62편의 서신 가운데에는 스님 2인, 여성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대의 지식인이자

불교의식(범음 범패)수련생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2기)
- 교육방법 : (1) 출강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① 송 주 편(도량석·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49재·시다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2005년 7월 7일(목) 오후 2시 (목탁,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 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목조건축물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서광사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방염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⑦ - 고양 문사수법회

말하고 듣고 수행하며 '내가 부처' 확인

도량이름이 선원도 절도 아니다. '법회(法會)'다. 그 흔한 소원성취 불공기도도, 망자를 위한 49재도 없다. 오직 법문을 듣고 생각하고 수행만 한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문사수(聞思修)'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聞), 나 자신을 비춰보아(思), 내 삶을 수정해 정토에 이른다는 것(修), 문사수법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때문에 문사수법회는 그 이름처럼 '법회'가 중심이다. 매주 대중·경전·수련·정진법회 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법회로 시작해서 법회로 끝나는 셈이다. 그럼 문사수가 법회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사수법회 회원들이 경기도 고양법당에서 한글 <금강경>을 합송하고 있다.

#'듣고 생각하고 닦기'

문사수법회 김태영 상임법사는 법회를 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법회는 스스로의 삶이 잘못된 생각의 그림자에 가려져 불행과 모순에 잠겨 있음을 자각하고, 마침내 자신의 참생명 가치를 깨우쳐 밝고 맑은 나날을 만들어 가자는데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금강경으로 배우는 불교' 강좌를 매주 화요일 고양시 문사수법회 법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 법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가치를 불법을 통해,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회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잠시 후, 법회가 시작됐다. 20여 대중들이 한글로 된 <금강경>을 일제히 합송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금강경> 13분(分)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독송이 끝나자 곧장 김 법사가 대중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깨달음은 '깨는' 걸까요, '깨치는' 걸까요?"

"…."

"스스로 깨는 겁니다. 상대적인 틀 속의 나를 깨는 거지요. 항상 경전과 법문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변화시켜야 해요. 그것이 문사수 수행의 핵심이지요."

김 법사가 문사수 수행 원리를 설명했다. '깨친 부처'나 '못 깨친 중생'이나 본래 같다는 것이 문사수 수행법의 기본이라는 말이다. 즉 부처든 중생이든 이미 깨쳐있다는 것이다. '부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다. '내 참생명이 곧 부처의 참생명'이란 수행모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염불은 부처님 법문, 염불로써 깨친다

그럼,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김 법사는 '염불'로써 깨닫는다고 말했다.

"염불은 스스로 자신의 참생명을 드러내지요. 또 입 달린 중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자기 일상생활을 비춰보고 참된 방향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수정해간다는 '문사수 삼혜(三慧)'가 바로 염불 수행의 구체적인 행법이 되는 거죠."

'내가 바로 부처임'을 알게 하는 힘이 된다는 염불. 문사수법회에서 6년 넘게 수행해온 최향순(51·미등)씨는 문사수 염불은 '회청염불(回聽念佛)'이라고 말했다.

"내가 말하는 독경과 염불 소리를 내가 듣죠. '내가 부처'라는 가르침을 말하고 듣는 거죠. 내 입으로 부처의 법문을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청염불이에요. 이것이 문사수 법회의 수행원리이자 핵심이에요.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염불에 몰입하게 돼 변하는 내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게 됐죠. 내가 부처라고 확인하게 되니 세상을 당당하게 살수 있게 됐어요."

5년째 문사수 염불수행을 해오는 박기범(35·법조)씨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세상을 무조건 잘 살겠다'는 정신적 무장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죠. 그런데 염불을 하면서, 이런 꽉 막힌 제 생각이 어느 순간 무장해제가 되더군요. 대신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사이버 '공개 정진' 프로그램 도입

지난 1988년 창립한 문사수법회의 특징은 6개월 과정의 불교공부 프로그램에 있다. '입문→교리학습→불교강좌 수강→경전법회→대중법회'의 과정을 밟는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불교이해의 안목을 틔우는 한편, 본격적인 수행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매월 한 차례 진행되는 문사수법회 회주 한탑 스님의 대중법문은 회원들의 전반적인 수행상태를 점검해주고 있다. 또 김태영 상임법사가 맡고 있는 신행개별상담은 회원들에게 자기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돕고 있다.

특히 문사수법회는 최근 새 단장해 문을 연 문사수법회 홈페이지(www.munsasu.org)에서 '사이버 공개 정진서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본인의 정진목표를 예경, 법공양, 발원, 염불, 찬탄(회향) 등으로 나눠 공개·발표하도록 해, 본인은 물론 회원들의 수행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031)966-3581

글·사진=김철우 기자

지도자를 위한 하타요가 강좌

요가뿌람은 요가지도자들을 위한 하타요가 강의를 개설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요가전공 교수를 역임한 이강언 원장이 강사로 나선 이번 강좌에서는 하타요가 경전의 실수행 부분을 해설·실습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아사나(동작) 체크포인트를 지도하는 등 아사나 수업의 교수법을 제시하는 한편, 수업을 통해 하타요가 수련의 방향도 모색할 예정이다. 7월 2일부터 2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6시에 진행된다. (016) 786-5923

종로구민회관서 요가문화제

한국요가문화협회는 7월 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요가문화제 '요가사랑 생명사랑 그 영원한 세계와의 만남'을 연다. 일반 요가 수련자의 테마별 시연회, 지도자 과정 수련자 및 전문가의 시연회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참가비 5천원. (02)3673-3020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3> 당나라 시대의 러시안룰렛 도박꾼들

목숨을 담보로 게임을 하는 러시안룰렛은 당사자도 당사자이러니와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 더 땀을 쥐게 한다. 탄알이 한 발 든 6연발 권총의 실린더를 돌린 뒤 순서대로 자신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목숨을 걸고 승부를 가리는 도박의 일종이다. 19세기말 러시아귀족들이 즐겨 했다고 한다. 미친 짓 같은데도, 그래도 뭔지는 몰라도, 뭔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 선종사에는 8세기 무렵 이미 러시아룰렛에 버금가는 사건이 있었다. '모 아니면 도'는 '부처 아니면 중생'이라는 선종의 깨달음관(觀)과 연결되면서 극단적인 승부사적 기질의 소유자들을 만들어 내는 토양이 됐다.

구봉도건(?~921) 선사는 석상경저(807~888) 선사에게 인가를 받게 되었다. 스승에 대한 신뢰는 시봉으로 이어졌다. 열심히 시자소임을 보는데 얼마 되지 않아 스승이 갑자기 열반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구봉에게는 개인적으로 의지해야 할 한 스승이 없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총림은 공석의 방장스님을 다시 모셔야 하는 큰 일임을 의미한다. 젊은 구봉의 법력은 대중들이 알 길이 없다. 관례대로 당중의 제일좌인 수좌를 천거하여 방장으로 모시고자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구봉은 이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좌차대로 법랍대로 서열대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젊은 공부인의 기개로 볼 때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태어나는 거야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 무슨 순서가 있으며, 출가야 순서가 있지만 깨달음이 순서대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중처소는 대놓고 대들 수도 없는 분위기다. 그래서 그 수좌를 뒷방으로 불렀다. 단둘이 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른 바 요즘 애들 말대로 '맞짱'을 뜬 것이다.

"나의 물음에 열반하신 스승의 뜻에 맞게 분명히 대답하신다면 제가 스승에게 하던대로 꼭 같이 시봉을 하겠습니다."

깨친 안목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준다면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말이다. 수좌는 자신있게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마음대로 물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구봉은 "스승께서 '쉬고 쉬어라(休去歇去). 한 생각이 만년이다. 식은 재와 마른 나무같이 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밝힌 말씀입니까?"하고 물었다. 즉각 대답했다. "그건 일색변사(一色邊事)를 밝힌 것이지."

그러나 그 답변은 구봉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깨친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자 그 수좌가 구봉이 쥐고 있던 향을 달라고 하였다.

"그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지. 좋아! 그럼 뭔가를 보여주지. 내가 열반하신 방장스님과 마음이 계합되지 않았다면 이 향이 다 탄 이후에도 내가 살아있을 거야."

공부 경지 보여주려 수좌스님 앉은 자리서 입적
구봉 선사, 깨달음 증표로 끝까지 좌탈 인정 안해

그렇게 말하고는 향불을 피운지 얼마 되지 않아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입적해 버렸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과정을 지켜보던 구봉의 태도가 더 입을 벌어지게 한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열반해버린 수좌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앉아서나 서서나 죽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설사 앉아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스승의 뜻은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어쨌든 둘 다 대단한 경지이다. 방장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좌탈(坐脫)로 자기 공부경지를 보여주려는 제일수좌나 또 그것을 보고도 인정에 끄달리지 않고 좌탈 자체가 깨달음의 증표가 될 수 없다는 자기안목을 다시금 확인시킨 구봉 선사 모두 난형난제라 하겠다.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도박꾼이다. 깨달음은 무가보(無價寶)이니 어찌 몇푼 판돈에 비하겠는가. 이런 기상이 선풍을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지게 한 저력일 것이다. 법은 인정으로 나이로 친소(親疎)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는 없다. 그건 모두가 망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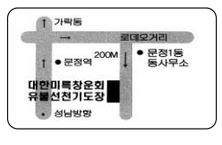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돈교(頓教)의 법문(法門)이란 무엇인가

돈오란 깨달음의 '특성' 알려주는 말

<진역 화엄경소>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총섭(總攝)하는 일구인 돈교법문(頓教法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⑷ "지금 이 경(經)은 원만무상(圓滿無上)의 돈교법문(頓教法門)이라, 법계법문을 널리 열어 무변의 행덕(行德)을 현시한다. 행덕을 거리낌 없이 내보여도 계단이 있는 까닭에 가히 닦을 수 있고, 법문이 끝이 없으나 열어도 모두 부합하는 까닭에 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문에 초입(超入)한 사람은 들어섬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지 않음이 없다. 이 덕(德)을 닦는 사람은 얻음이 없기 때문에 얻지 않음도 없다. 삼현십성(三賢十聖)이 이에서 행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삼신시불(三身十佛)이 구비치 않은 덕이 없으니(화엄경의) 그 문장이 밝게 빛나고 그 뜻이 넓고 무궁함을 무슨 말로 칭탄하랴."

⑸ "대방광불화엄(大方廣佛華嚴)이란 이름은, 법계가 무한하기에 대방광(大方廣)이요, 행덕이 끝이 없으므로 불화엄(佛華嚴)이다. 대방이 아니면 불화를 넓힐 수 없고, 불화가 아니면 대방을 장엄할 수 없다. 이래서 방(方)과 화(華)의 뜻을 함께 들어 그 광엄(廣嚴)의 종(宗)을 드러냈다."

"이른바 경(經)이란, 원만 법륜이 시방에 두루 들리고, 무여(無餘) 세계의 삼세를 두루 전하니 끝없는 유정(有情)들의 지극한 궤도요 최종적 진리라, 그래서 '길(徑)'이라 부른다. 이 취지를 들어, 제목에 걸었으니, 고로, 대방광불화엄경이라 한다."

선의 래디칼리즘

선(禪)은 불교의 궁극이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 그것을 제외한 어떤 수식도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근본주의정신, 요즘 말로 래디칼리즘에 철저했습니다. '선' 하면 떠오르는 고의적인 기행과 과격한 교육방식도 이같은 지향의 부산물로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파격이 본질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온건하게 차근차근한 방식으로 법을 가르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즈음의 시절과 근기로는 후자의 방식이 더욱 절실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각설하고, 선이 대결하고자 했던 상대는 '대승의 번쇄 치밀한 교학'과, '정토의 의타적 기복의식'이었습니다. 교학에 대한 대결의식은 "문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不立文字, 敎外別傳) 마음의 본질을 곧바로 드러내어(直指人心) 궁극적인 깨달음을 열겠다(見性成佛)"는 캐치프레이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의 정신을 간명하게 정식화한 '돈오점수(頓悟漸修)'는 교학도 교학이지만, 특히나 정토를 의식하고 제창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토는 자신의 내적 가능성보다 타율적 구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전통은 "나는 하잘것없는 중생이다. 저 너머 정토에 계시는 무한한 힘의 부처들이 나를 이 비참한 사바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러 오실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일구월심 서방을 향해 간절하게 기구합니다.

저는 정토가 위대한 깨달음을 위한 하심(下心), 혹은 헌신의 위대한 위의(威儀)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 깨달음은 경전을 모래로 세거나, 서방정토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큰 경지를 이루겠다는 발심과, 그에 걸맞는 바른 수행의 길을 걸어야만 기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그 근본정신을 너무 오랫동안 망각해 왔습니다. 선은 이처럼 교학에 치이고 정토에 소외된 대중들의 무기력을 충격적으로 일깨우려 합니다. 그것은 흡사 죽어가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쓴다는 용천혈의 대침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대침이 바로 돈오(頓悟)입니다.

선의 돈오는 곧 화엄 법계의 소식

돈오가 무엇이냐에 대해 분분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절집에서는 돈오를 '몰록 깨침'이라고들 합니다. 이 말에서 연상되듯이, 다들 돈오를 '깨달음에 걸리는 시간'과 연관해서 읽고 있습니다. 즉 돈오란 깨달음이 단번에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같은 해석이 수많은 오해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돈오의 돈(頓)이란 깨달음에 이르는 '기간(span)'의 장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가 말하는 궁극적 깨달음의 '특성(nature)'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대목을 유의해 보셔야 합니다. 돈오란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문득,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화엄이 설파하듯 깨달음이란 원래 오고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즉, 돈(頓)이란, "깨달음은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찾거나 이루거나 하는 '시간'과 '점차(漸)'로 더듬지 말라는 것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효는 초시간적 사건으로서의 법(法)의 세계가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움직이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여럿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거나 '깨달음'이란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이 말들은 시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깨달음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누누이 얘기했듯이, 시간이란 차이와 구분에서 탄생하는 바, 그 간격을 여읜 영원의 본지풍광(本地風光)에서는 번뇌(煩惱)와 보리(菩提) 사이의 거리가 어느새 지워져 있습니다. 얼시구, 거기서는 허망이 곧 진실이라 부처(聖)와 범부(凡)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고, 일상(日常)이 곧 성사(聖事)라 닦을 것도 깨달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승(二乘) 사과(四果)의 점차(漸次)와 계제(階梯)가 빛을 잃고 맙니다. 돈오(頓悟)란 바로 이 본분사(本分事)의 역설을 알리자는 것이니, 여기 서서야 원효의 다음 말이 어름하니 집혀올 것입니다.

"그 문에 초입(超入)한 사람은 들어섬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지 않음이 없다. 이 덕(德)을 닦는 사람은 얻음이 없기 때문에 얻지 않음도 없다. 삼현십성(三賢十聖)이 이에서 행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삼신시불(三身十佛)이 구비치 않은 덕이 없으니(화엄경의) 그 문장이 밝게 빛나고 그 뜻이 넓고 무궁함을 무슨 말로 칭탄하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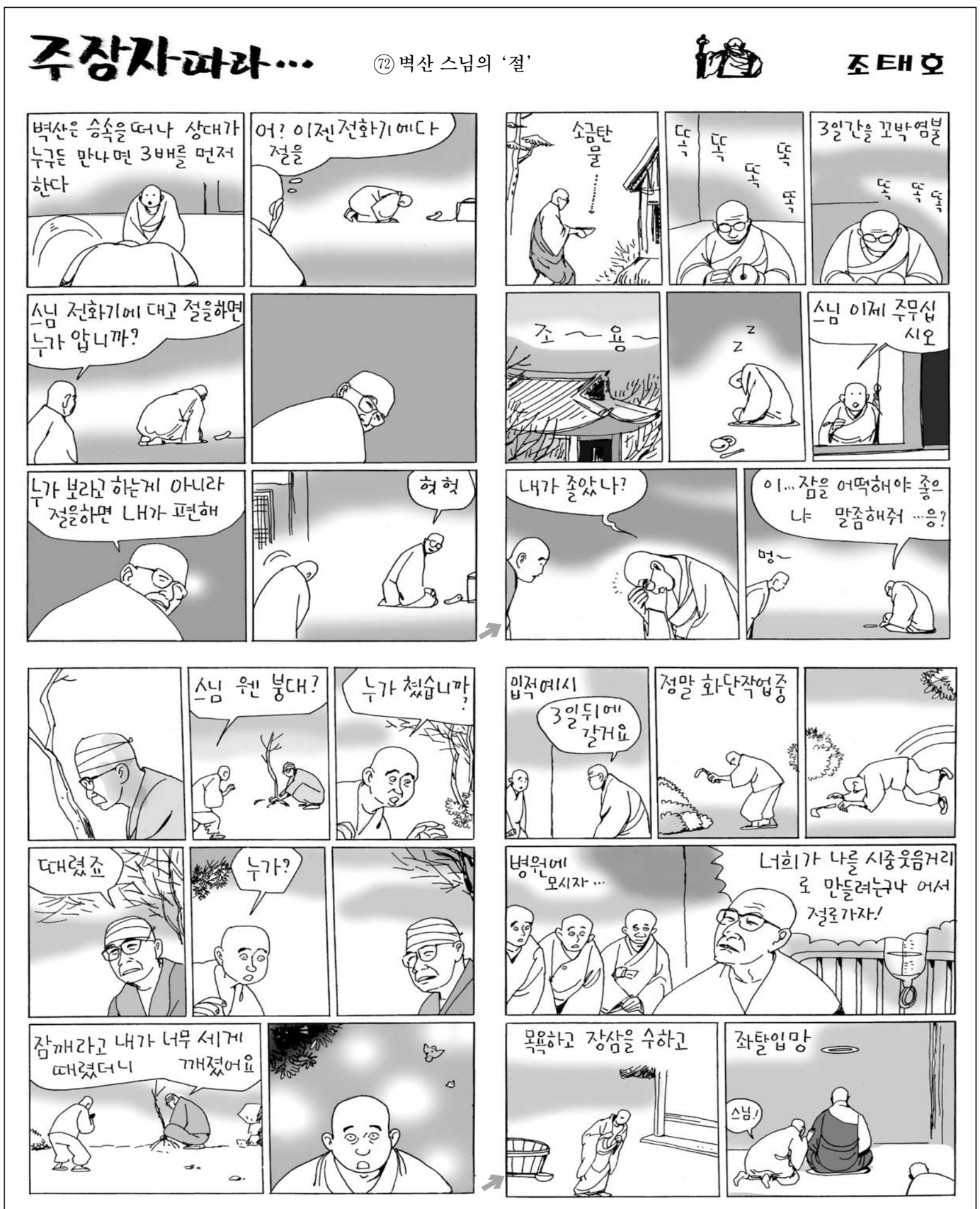
이런, 그러고 보니 선의 돈오는 화엄이 일러주는 법계의 소식과 짝, 한 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자속의 돈오

지금 제가 한 말은 기특한 문자속일 뿐입니다. 허나, 지눌 스님은 문자의 이해가 정확해야 길을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돈오를 불교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적 이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돈오란 여실(如實)의 언교(言敎)요, 문자(文字)의 지귀(指歸)이다." 그렇습니다. 돈오란 법계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고, 불경의 문자 속에 담긴 근본 메시지입니다.

제 미욕한 생각에, 오수(悟修)의 돈점(頓漸)을 둘러싼 만단(萬端)의 갈등(葛藤)을 풀기 위해서는 이 자리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하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벽산 스님(碧山, 1914~1987): 경북 성주生. 법주사 청공 스님을 은사로 출가, 청주지역 포교에 공이 큼. 조계종 중앙종회 1 · 2 · 3대 의원 역임.

네티즌 교리문답

청규(淸規)란?

문 사찰에 처음 찾을 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원이란 곳이었는데, 문 앞에 '청규'라는 말이 붙어있더군요. 무슨 뜻인지 몰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모르더군요.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궁금이)

답1 : 청규(淸規)란 청정한 규칙이라는 뜻으로 총림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생활규칙을 말합니다. 청규는 대해(大海)와 같이 청정한 무리, 즉 출가 수행하는 스님들을 뜻하는 청정대해중(淸淨大海衆)의 첫 글자인 '청'과 수행자가 지켜야 할 규칙인 규구준승(規矩準繩)의 '규'를 합친 말이죠.

청규의 원초적인 형태는 중국의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선사에 의해 제정된 〈백장고청규〉입니다. 당시 선종은 아직 독립된 사원이 없고, 별다른 제도와 의식도 없었죠. 백장선사는 선승이 머물며 수행하는 도량을 정하고, 기존의 규범들을 선종총림의 수행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성문화했습니다. 백장선사가 지은 초기 청규 즉 고청규(古淸規)의 전문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전등록(傳燈錄)〉 제6권 〈선문규식(禪門規式)〉에 일부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규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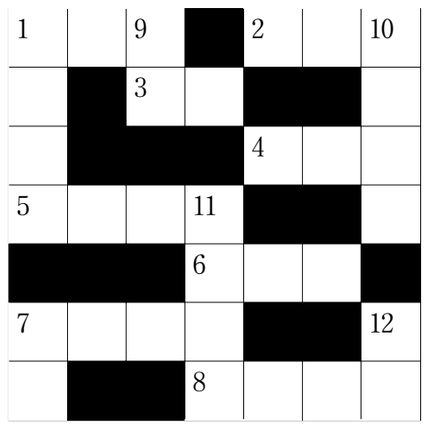
답2 : 청규하면 백장선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장선사가 제정한 청규에 따르면 선원에는 부처님과 보살상을 안치하는 불전(佛殿)을 세우지 않고, 다만 설법을 하는 법당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장(方丈), 승당(僧堂) 등을 두고 운영하고, 좌선(坐禪), 입당(入堂, 승당에 들어가는 것), 재죽(齋粥, 불가의 정해진 식사방법), 보청(普請, 선원 수행자가 모두 일하는 것) 등 총림의 운영규칙을 정해놓았습니다. (금강소석)

답3 : 청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백장 선사가 강조한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一日不食)'라는 말일 겁니다. 이 청규는 생산노동을 수행의 덕목으로 백장선사가 처음으로 도입한 청규지요. 백장청규 이후 선원에서는 시대에 맞는 청규를 제정해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제방선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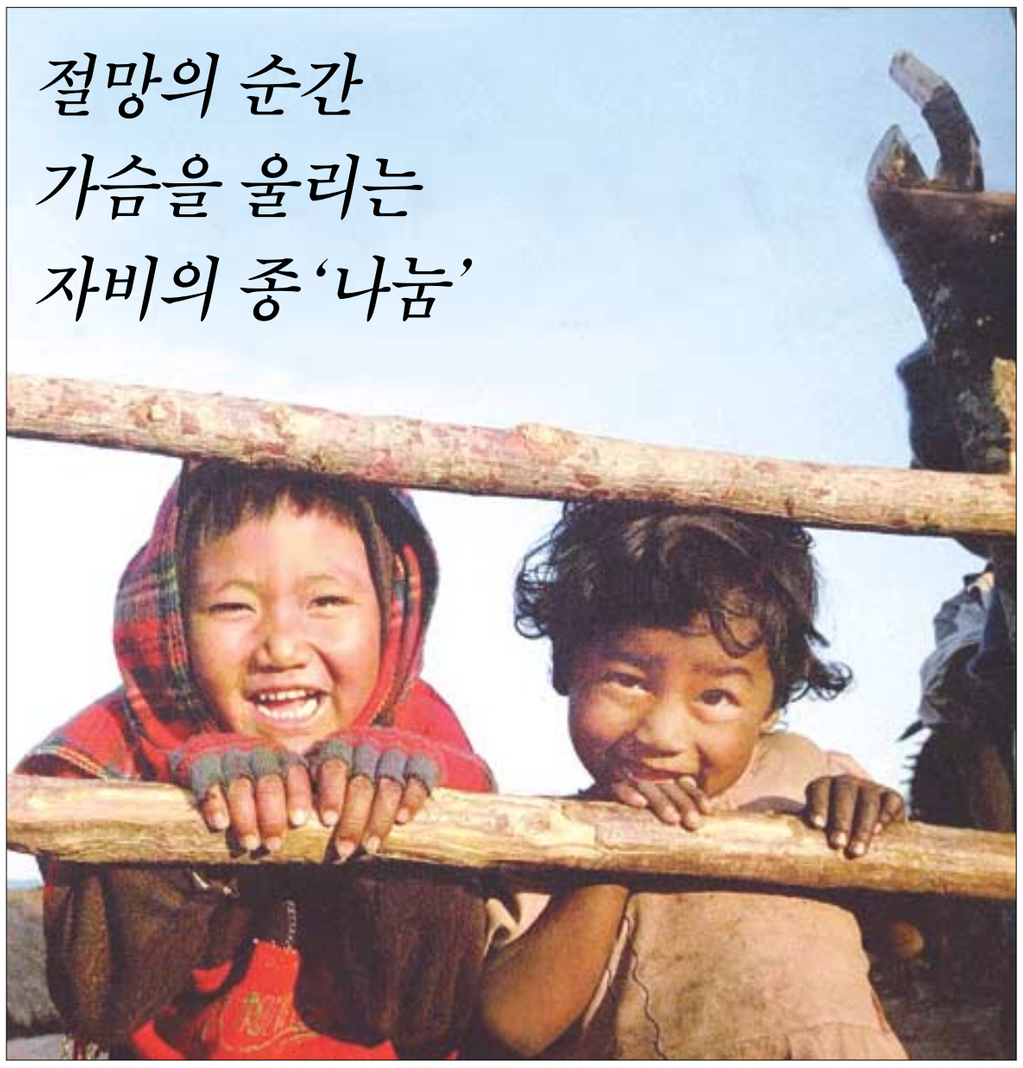
가로 1. 발 아래서 머리 위로 줄을 돌려 넘기면서 하는 운동 2. 노동3권은 ○○○,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 전투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 4. 암벽 등에 새긴 불상 5.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해신 6. 하나의 식물체 속에 유전자형이 다른 조직이 서로 접촉하여 존재하는 현상 7. '집집마다'를 뜻하는 한자성어 8. 만화영화 '캔디'에서 캔디의 영원한 왕자님.

세로 1. 후생동물의 조직 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세포로, 모든 신체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세포 7. 더하고 뺌 9.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 10. 늘 생각하고 잊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11. 세르판테스의 소설 주인공으로 비현실주의자의 대명사로 쓰임. 12.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75년 작품으로 뉴 잉글랜드의 작은 해안 피서지 애미티(Amity)의 식인 상어를 소재로 한 영화.


물을 긷고 있는 에티오피아 난민들.

아무것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을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 가슴을 울리는 자비의 종 '나눔'


나눔은 "기꺼이 주려는 고귀한 품성"이다. <나눔>을 쓴 데이브 토이센은 30여년간 세계 난민지역을 돌며 구호활동을 펼쳐 왔다. 사진속 이라크 아이들의 눈망울이 천진난만하다.



나눔
데이브 토이센
(월드비전 캐나다 회장)지음
윤길순 옮김 | 해냄 | 9천원

加 월드비전 회장, 30년간 세계 분쟁·재난현장서 건져올린 '나눔'에 대한 따뜻한 통찰

"아무것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을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습니다."(데이브 토이센)

<나눔>은 데이브 토이센(월드비전 캐나다 회장)이 30년간 에티오피아, 이라크, 코소보 등 세계의 분쟁지역과 재난현장을 다니며 건져올린 '나눔'에 대한 따뜻한 통찰을 전하는 책이다. 세상 곳곳에서 나눔과 관용,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가슴 뭉클한 일화를 통해 '나눔'의 힘과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지은이는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기꺼이 주려는 마음, 남을 보살피고 이해하는 단순하고 따뜻한 마음과 그 실천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과연 나눔으로 이 험한 세상을 구하고 내 삶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지은이는 삶에 대한 한줄기 기대마저 짓밟힌 참혹한 구호현장에서 쓰러진 이들을 다시 일으키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목격한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도 오히려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너그러운 사람들도 만난다. 코소보 내전이 드리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지은이에게 초콜릿을 건네던 상처투성이 소녀 릴리단의 이야기는 진한 감동을 전한다. 릴리단은 내전중 군인들이 휘두른 소총의 개머리판에 맞아 팔이 부러졌다. 급기야는 의식을 잃었고, 군인들에 의해 버려졌다. 그때 지은이가 발견하고 보니 릴리단의 성한 한쪽 손에 조그맣게 은박지로 싼 것이 쥐어져 있었다. 구호단체에서 받은 초콜릿이었다.

의식이 깨어난 릴리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초콜릿을 지은이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그때의 감회를 이렇게 털어놓는다. "깔고 자는 옷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몸과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뿐인 그 아이가…. 초콜릿을 받으며 난 어쩔 줄을 몰랐다. 아무 사심 없는 이 너그러운 행동에 그만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지은이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는 '나눔의 마음'이라는 희망의 욕구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가 나눔의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물질은 물론 마음을 나눈 이들이 많았다.

14세의 어린 나이로 '아이들에게 자유를'이란 단체를 만들어 아동노동 착취를 고발한 캐나다 소년도 있었다. 아들을 죽인 젊은 군인을 용서해 고국에 화해의 물꼬를 튼 르완다의 여성 데보라 니라카브리르키라의 이야기는 가슴 뭉클하다.

이렇듯 삶에 대한 한줄기 기대마저 짓밟힌 참혹한 구호현장에서도 쓰러진 이들을 다시 일으키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나눔'의 놀라운 힘을 목격한 지은이는 이제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특히,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나누는 평범한 '영웅'들을 통해 나눔이 비범한 이들의 전유물이거나 거창한 실천이 아님을, 이미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이상적인 이야기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갈등에 대해 지혜를 선사하고,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들려준다.

가령 지은이는 "자신이 번 돈 중 일정액을 정해 지역사회나 국가, 세계의 고통을 덜기 위해 노력하는 자산단체들에 기부하는 것을 실천하자."고 조언한다.

책 말미에 실린 두 가지 '부록'도 눈에 띈다.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4가지 '비법'. 즉 '내면에 힘써라' '좋은 태도를 가져라' '지금 가진 것을 나누어라'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등도 소개해 준다. 또 훌륭한 자선단체를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네가지 요소(말과 행동의 일치, 후원자를 중시여기는 곳, 책임있는 관리 감독, 실천에 옮기는 곳)를 통해서는 지은이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현실적인 고민을 했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면 "천 번의 기도보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을 주는 일이 훨씬 낫다"는 간디의 말처럼 보살행을 실천할데가 없는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든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이노베이터-트렌드를 창조하는 자
김영세 지음 | 랜덤하우스 지음 | 1만2천원

이 책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성공을 일궈낸 이노베이터 김영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자신감을 어떻게 실현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시장을 휩쓴 프리즘 스타일의 MP3 플레이어, 랍스타 모양으로 기능성과 즐거움을 동시에 주는 가스버너, 우리 고유의 태극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애크미 컬렉션의 태극패턴 등 그의 디자인은 '상상을 막대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인 지은이는 트렌드를 쫓기보다 자신감을 팔라고 주장한다. 21세기 인간 중심의 디지털 시대를 여는 인간형은 다름 아닌 '이노베이터, 즉 혁신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자'라는 것이다. 가령 자신의 아이디어와 호기심, 꿈만으로 세상과 대적하고 자기 생각을 실현하는 일로 승부를 거는 사람, 물건을 발명하건 시스템을 개혁하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혁신가 등등.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순수한 호기심에 대한 단순한 몰입과 자기 생각을 실현해내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말한다.

몰입과 열정은 창조의 어머니

멋진 디자이너가 되는 그만의 비결이 궁금한 이에게 이 책은 지침서라기 보다는 본보기가 된다. '누구나 보는 것을 보되, 아무도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해내야 한다' '와이 낫(Why not?)에서 출발하라' 같은 경구가 있는가 하면, '블랙박스' '디자인 게이트' '적절한 디자인(right design)' 'D(Digital)+D(Design)=D(Dream)'처럼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단어도 튀어나온다.

수많은 메모와 스케치, 스케치에 따른 구상 등 자기자신을 한순간도 긴장에서 풀어내지 않고, 오히려 긴장을 즐기는 지은이는 디자이너로서뿐 아니라 비즈니스적 감각마저 탁월하다.

일례로 그는 자신의 첫 히트작인 '여행용 골프가방'이 특허를 내지 않아 곧바로 모방품이 나왔을 때보다, 또다른 회사에서 이를 변형한 작품이 나왔을 때 더 반성했다고 말한다.

즉 자신이 '모방'에 분노하며 포기했을 때, 다른 디자이너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조를 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큰 깨달음이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가 이제껏 해왔던 창조적 활동들을 39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정리하고 있다. 가령 변화를 따르는 사람은 '트렌드를 쫓지만',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가령 일본 소니사의 제품은 굳이 상품명을 보지 않아도 한눈에 소니만의 형태와 색깔, 기능성을 중시한 디자인 등이 인식돼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유행상품을 떼거리로 따라가는 형태를 반복한다는 매서운 비판도 한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문신애(서울여대 디자인학부 교수)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기청량 조청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 개인상담 및 세미나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자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개인상담과 교육/세미나를 실시합니다.
● 불안증 및 공포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개인상담 : 전화예약에 의한 상담실시
◎ 세 미 나 : 수시모집 및 교육실시
◆ 상담지도전문가

설기문 박사 :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1997년 이후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전생상담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전생퇴행 ", " 최면과 최면치료", " 전생가기 참 쉽다 " 와 같은 다수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201-1102호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indcoach@naver.com



소원성취

신비한 영험
부엉이
길상도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영흥도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승려로써 부처님 법과는 십만팔천리나 어긋나는 행위인 줄 알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바 소승이 도움이 되고자 부엉이(길상도)를 소개드립니다.
소승은 법화경을 토굴에서 10년 동안을 수행 주력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운 달마도도 첫번째 방송에 소개된 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컸었고 지금 부엉이(길상도)를 처음 소개하려 합니다. 부엉이 길상도의 원력은 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며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자식 걱정 하시는 분, 시험을 앞둔 취업과 학업성취 등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상도이므로 벽에 걸어 놓으면 3년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번창하여 성공 하실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소, 나이, 생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달마도도 한컵 무료 보시합니다.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계좌번호 : 우체국 201103-02-149423 예금주 김금수
서래달마원 원장 석구암 합장

폐허를 법당으로 일군

보각 스님 자서전



폐허가 되다시피한 수락산 석림사를 수행 도량으로 일군 보각 스님. 스님은 오늘도 손수 밭을 갈며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제공=효림

한국전쟁이 끝난 후 모두가 어렵게 살아가던 그 시절, 소학교를 겨우 마친 소녀는 병원에서 '무면허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불교계에는 정화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했고, 소녀가 일하던 병원에도 다친 스님들이 입원해 간호를 받고 있었다. 그때 한 스님이 건넨 <팔상록>은 이 '간호사 소녀'를 '보각 스님'으로 바꾸어 놓았다.

수락산 석림사 주지로 40여 년간 사찰 중창불사와 지역포교에 앞장서 온 보각 스님이 자서전 <스님, 바랑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를 펴냈다. 출가 사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외적인 활동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비구니 스님이 자서전을 펴낸 것은 한국 불교계에서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스님, 바랑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보각 스님 지음
효림 | 1만원

1954년 상인 스님을 은사로 선학원에서 출가한 보각 스님은 효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이후 강원도 선방에서 수행 정진하던 스님은 은사 스님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절을 일으켜 세우라"는 뜻을 받들어 59년부터 석림사 주지를 맡게 됐다. 기울어져가는 법당에서 겨울이면 직접 땔감을 구하고 살림도구도 남이 쓰다 버린 것을 주워다 써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다 여름 장마 때 법당 대들보가 무너져 신도 한 명이 다치는 사고를 겪자 스님은 법당을 헐어 버렸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던 터라, 마당에 텐트를 치고 살며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시주금을 모아 법당 기둥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힘들 때 마다 '후학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절을 일으킨 스님은 석림사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지난 40여 년간의 중창불사 과정을 자서전에 생생히 담아 놓았다. 또한 스무 명이 넘는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매일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손수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야기도 눈물겹다. 스님은 "돈 고생, 몸 고생, 마음 고생도 많았지만 석림사는 내게 인욕수행 도량이었다"며 "석림사가 후학들의 든든한 수행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민족 정서 숨쉬는 우리 불화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탱화
김의식 지음 | 운주사 | 2만원

불화(佛畵)는 크게 건물 목재의 표면에 채색된 단청과 고정된 벽면에 채색하는 벽화, 종이나 비단 등에 채색해 불상 뒤에 거는 탱화로 구분할 수 있다. 법당과 불전을 장엄하는 불화를 조성하는 일은 오랜 경험과 인고의 노력을 요하는 작업으로, 구도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불교미술을 조성하는 이들은 불모(佛母)라 부른다.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탱화>는 사찰 법당 내부에 모셔진 탱화와 전각이나 전통건물에 채색되는 단청 등에 그려진 다양한 형상을 소개하는 책이다. 지은이는 김의식 화백. 1975년 불교미술에 입문한 김 화백은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대상(1990)과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1993)을 수상했으며, 1995년 단청문화재 수리기술자 제416호로 지정된 전통 불화작가다.

"불교미술이 작품성을 떠나 일반인들과 함께 느끼고 공유하며 감상하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책을 쓰게 됐다"는 김 화백은 "불교미술을 종교미술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통화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직·간접으로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불화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민족의식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책에는 지은이가 현장에서 붓과 씨름하며 흘렸던 땀방울이 담겨 있다. 1장 '한국의 불교미술'에서는 자신이 직접 그린 탱화와 현재 사찰에 봉안된 탱화 사진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의 역사를 개괄한다. 2장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에서는 사찰의 성립 과정과 전각이 갖는 의미, 각 전각에는 어떤 탱화가 모셔지는지를 설명한다. 3장 '전통문양, 그 아름다움과 상징의 세계'는 길상문, 태극문, 삼보문, 보상화당초문 등 단청과 탱화에 쓰이는 전통문양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의 문양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4부 '다시 피어나는 전통 불교미술'은 이 책의 백미(白眉)로, 김 화백의 30여년 노하우가 담겨 있다. 탱화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인 '출초(出草)'에서부터 종이나 헝겊을 겹쳐 붙이는 배접(褙接), 닥나무를 이용해 전통 한지 만드는 법, 물감이 스며들지 않도록 종이에 아교를 바르는 법, 색채 입히는 법까지 '탱화 조성의 모든 것'을 갈무리해 입문자들의 징검다리가 되어준다.

한편 김 화백은 '맹목적 답습에서 오는 도식화된 필선이나 도상의 반복에서 오는 정체성'이라는 현대 불교미술에 대한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이 같은 지적은 전통미술과 종교미술이 가지는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불화의 표현기법이나 작업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면 사찰에서 쉽게 스쳐가기 쉬운 탱화와 단청 등에 눈길이 좀 더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여말선초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나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
황인규 지음
혜안 | 3만원

"우리에게 불교사관은 있는가?"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황인규씨는 불교가 가장 탄압 받던 여말선초 시기에서 찾고 있다.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는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가던 시기인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불교계와 고승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 불교와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 책이다.

이미 전작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에서 고려 후기부터 여말선초에 이르는 불교계를 살펴보았던 지은이는 이번 책에서 여말선초에서 조선전기까지의 불교계와 고승들을 짚어보고 있다.

지은이는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유교적 가치관이 성립된 것은 16세기 중엽 이후이며, 그 이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의지해 삶을 영위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불교적 세계관과 사상관을 알아야 우리의 역사전통이나 정신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부에서는 고려 말부터 조선전기에 이르는 시기에 활동한 고승과 불교시책을, 2부에서는 불교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수선사계와 가지산문계 고승들의 활동을 검토한다. 3부에서는 신돈과 경한 스님 등 대표적인 고승들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한다.

새로나온 책

■ **<중국의 문화지리를 읽는다>**(후자오량 지음, 김태성 옮김, 휴머니스트, 2만원)=세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후자오량 교수(북경대)는 지난 10년간 각 분야 전문가와 공동으로 언어, 문학·예술, 인재, 음식,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문화의 차이를 모색해 본다. 이들은 중국 전역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가 중국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남과 북, 과거와 현재를 살살이 살펴보며 중국 문화의 핵심을 선명하게 짚어나간다.



또한 티베트와 신강, 귀주, 내몽고 등 주요 소수민족 집거지역의 문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책을 옮김 김태성 교수(호서대 중어중국학과)는 "중국 문화의 물적 토대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의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하나의 힘으로 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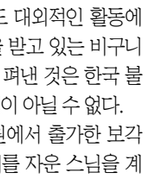
■ **<들꽃 진료소의 하루>**(도쿠나가 스스무 지음, 김난주 옮김, 샘터, 9천원)=23년간 일본 돗토리 지방에서 근무했던 의사 도쿠나가 스스무씨는 2001년, 갖 약과 차료 방법으로도 생을 돌이킬 수 없는 환자들이 편안하고 고요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자는 뜻에서 '들꽃 진료소'를 개원했다. <들꽃 진료소의 하루>에는 19개의 병상을 갖춘 호스피스 병동 '들꽃 진료소'에서 만난 환자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어린 딸을 두고 죽어가는 젊은 아버지와 임종을 앞둔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남편 등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환자들의 사연을 들려준다.



■ **<대학-인간의 길을 열다>**(윤홍식 엮음, 봉황동래, 1만2천원)=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임인 '흥여회(興與會)'를 이끌고 있는 윤홍식씨가 '창조적 <대학> 읽기'를 시도한다. 윤씨는 <대학>의 핵심 가르침을 '혈구지도(?矩之道)'라 보고, 이를 '남도 결국 나와 같으며,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삼아 남을 헤아리고 잘 대해주자는 도리'라고 설명한다. 본문해석 뿐 아니라 도표와 그림을 통해 <대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일광스님의 신행수기, 기도발 이야기
기도발 祈禱發
〈〈출판기념법회〉〉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탑사(塔寺)
· 날짜 : 2005년 7월 14일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전화 : 02)2635-2611
부처님의 가피력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불자에게 발현된다.
해가 중천에 뜨면 온 세상을 비추어 세상의 만물을 생성 존재하게 하지만 해가 먼 바다에서 떠오를 때 가장 높은 산 봉우리를 비추는 것 같이 지극히 기도하는 불자에게 부처님의 기도발이 있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사바세계 자력(自力)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탐진치 삼독의 결정체가 인간이요 사람이다.
여기에 자력이란 실로 어리석음의 극치요 무지의 소산이다.
겸손과 하심을 배워라. 불보살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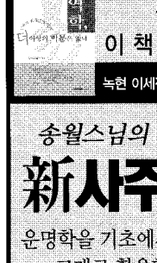
신광사 홈페이지 : www.kidobal.com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용은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구입문의 : 일광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051-442-6556)
도서출판 현대북스 (051-244-1251)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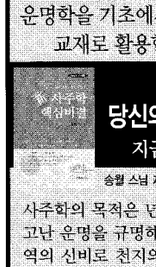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숙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땅·가게·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교제·결혼·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易學,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완결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격)까지 나온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현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08페이지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페이지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좋은 벗 풍경소리'는 그동안 20집에 달하는 찬불동요음반을 발표했다. 사진은 10년간 풍경소리를 이끌어 온 뮤지션 이종만(왼쪽) · 정유탁 씨. 사진=고영배 기자

'지금-여기' 세대 위한 음악 해야죠

10돌 맞은 '좋은 벗 풍경소리'

소식지 100호 발행, 찬불동요 · 창작앨범 20집 발매 성과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종재 지현스님 · 이하 풍경소리)'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시대를 담은 찬불동요' 보급에 헌신해 온 풍경소리는 10년간 매달 선보인 소식지 100호를 이번 달 발행한데 이어 최근 찬불동요 창작앨범 20집을 발매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한 가운데 10주년을 기념해 찬불가 포교를 다각화하는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풍경소리는 94년 이종만, 정유탁씨 등 몇몇 젊은 불자들이 서울 수송동 쪽방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찬불동요 보급을 위한 쉼없는 활동을 벌여왔다. 초기 3집까지의 작업만 해도 세월을 거치며 변질된 곡을 재정리한다는 생각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지만, 이후 시대에 맞는 찬불동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창작곡 작업에 뛰어들었다.

그들이 다량의 곡을 생산하면서 불교음악계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1950년대 찬불가도 가감없이 수용하고 또 즐겨부르던 불교계에 90년대 후반의 빠른 비트가 살아있는 가요풍의 찬불동요가 발을 내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운드적 패션'을 수용해 찬불동요에 색을 입히는 작업은 풍경소리의 과제가 됐고,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불교음악계 찬불동요의 흐름을 이끌게 됐다. 현재 어린이 여름 · 겨울 학교 연수에는 그들 앨범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고, '돼지임금' '스님생각' '합창' '오늘은 좋은날' '축제' 등의 히트곡들은 일상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회자될 정도다.

이동통신 벨소리 제공 등 신세대 포교 사업 다각화

풍경소리는 음반작업에서 보여준 도전과 시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찬불동요를 방편삼아 '지금-여기'의 세대들을 위한 포교의 문을 열었다.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풍경소리 일부 음악을 싸이월드(cyworld.com), 엠파스(empas.com),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등의 사이트에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풍경소리가 직접 제작한 찬불가 30여곡이 15개 사이트에 보급된 상태다. 또한 SK 텔레콤, KT 프리텔, LG 텔레콤 등에 핸드폰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250~300곡에 이르는 풍경소리의 찬불가 전곡 서비스를 완료할 예정이다.

찬불가를 노래방에 서비스하는 방안도 10주년 사업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노래방 반주기 전문업체인 '금영'과 머리를 맞대고 찬불가요 20곡, 찬불동요 80곡의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 찬불가 반주를 위한 피아노 악보집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풍경소리는 포교에 도움이 되는 찬불동요를 108곡 선정, 초급 · 중급 · 고급 등 수준별로 구성한 교본집 제작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올해 말 제작 관련 모연이 마무리 되는대로 출판할 계획이다.

그러나 10주년을 맞은 풍경소리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한다. 풍경소리 이종만(작곡가)씨는 "'7공주' 같은 어린이 가수그룹이 불교계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고 걷는 길은 길고 험할 듯하지만, 풍경소리의 삶은 늘 도약을 위한 도약의 반복이었기에 낯설지만은 않은 미래다. (02)723-9836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미디어 아트로 되살아난 박생광 작품세계

정신세계 3차원으로 재해석



손병돈 作 '얼굴'. 박생광 화백의 청담 스님 인물화 연작을 모티브로 삼았다.

용인 이영미술관(8월 3일 까지)

전통과 현대의 결합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예술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시대의 감각으로 전통을 되살린 작품을 봐도 과거의 껍데기만 현란하게 살아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옥 같이 다듬은 '과거의 정신'을 새 살에 재운 작가가 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을 이 시대의 첨단 예술언어로 다시금 되살린 작가 5명이 모였다. 문경원 · 이한수 · 이승준 · 이진준 · 손병돈 등의 미디어 작가군은 '전통미술의 현대적 형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박생광 화백의 작품을 미디어 언어로 재해석한 전시를 마련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박생광 작품에 깃든 정신세계다. 강렬한 단청의 채색, 복합적인 장면 연출 등 박 화백의 기법적인 특성을 적당히 버무린 전시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손병돈씨는 박생광 화백의 청담 스님 인물화 연작을 모티브로 삼아, 박 화백과 청담 스님의 시선을 비디오에 담은 작품을 완성했다. "얼굴이야말로 혼이 깃드는 장소이자 수행의 터널"이라는 손씨는, '소리없는 불법이 오고가는' 뭇중생의 얼굴을 비디오에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이승준씨는 박생광 작품에서 모든 개체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법을 읽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서 '비디오 설치' 작업으로 표현했다. '108 Elements For Circle(순환을 위한 108 요소)' 등이 공개된다. 박생광 작품 속 인물의 정신적 무게를 표현한 '망각의 숲'(이진준)은 2차원의 세계를 3차원으로 새롭게 해석 ·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용인 이영미술관에서 8월 3일까지 열린다. (031)213-8223

강신재 기자

윤이상 10주기, 유럽 현대음악 연주단 '앙상블 모데른' 공연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위한 3중주' 등

7월 3~8일 통영서 아카데미도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가 불자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10주기를 맞아 서울에서 기념공연을 여는 한편, 선생의 고향 통영에서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럽의 정상급 현대음악 연주단체인 앙상블 모데른은 7월 2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연주무대를 갖는다. 국제윤이상협회 한국사무국의 후원을 받아 기획된 이번 무대에서는 만프레드 슈탄케 등 유럽의 대표적 현대 작곡가 작품과 함께 '8중주'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을 위한 3중주' 등 윤이상 선생의 작품도 두 곡 연주된다.



유럽의 정상급 현대음악 연주단체 '앙상블 모데른'.

앙상블 모데른은 7월 3~8일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2005 국제윤이상아카데미에도 참가, 60여 명의 학생들에게 기악 · 지휘 · 작곡 등을 지도한다. 학생들은 앙상블 모데른 주요 단원들과 독주, 실내악 레슨, 앙상블 콘서트, 폐막 콘서트 등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아카데미 일정 동안에는 창원시립교향악단의 특별연주회(7월 5일 통영시민문화회관), 아카데미 참가자들의 연주로 이뤄지는 '윤이상 실내악의 밤'(7월 6일 통영시민문화회관) 등 특별행사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앙상블 모데른은 세계 각국 19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현대음악 연주단체로, 윤이상의 작품 중 '소관현악을 위한 인상'을 초연하는 등 윤이상 선생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02) 3474-8315

강신재 기자

불자들을 위한 하절기 특별 보급행사

투명한 느낌의 바람이 산사의 기운으로
불자들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연화2호 SIF-16FBI
- 후면 회전조절
- 3단 속도조절
- 3시간 일반 타이머
- 가격: 75,100
특별보급가: 43,000

연화3호 SIF-14GAI
- 전면 회전조절
- 3시간 일반 타이머
- 가격: 75,100
특별보급가: 38,000

연화4호 SIF-14GCCI
- 전면 회전조절
- 3시간 일반 타이머
- 5엽 날개
- 가격: 75,100
특별보급가: 40,000

연화5호 SIF-16WYI
- 4단 로터리식
- 상하 각도조절
- 전면 회전조절
- 날개크기 60cm(16")
- 가격: 64,100
특별보급가: 31,500

연화6호 SIF-07DTG
- 강약 3단 풍량조절
- 후면 회전조절
- 표면 펄도장
- 유럽풍 고전디자인
- 날개크기 7"/4 blade
- 가격: 35,200
특별보급가: 28,000

스님용 추천상품

연화 무선 찻주전자 K1
독일 직수입품!
- 한정수량 특별보급
- 300pes한정
- 220V/2000W
- 용량:1.7ℓ
- 고급스테인레스 소재
- 초고속가열 1컵(30초)
- 360(도) 회전
- 찻잎 거름 필터
- 코드보관장치
- 순간 재가열 기능
- 가격: 67,000

연화 삭발기
- 원터치 터보 장착방식으로 날의 움직임이 빠르다
- 충전+전기식
- 원터치 터보
- 특수 MiM 합금날 및 초강력 티타늄 코팅
- 밋살캡 -커트길이 조절
- ABS 소재의 초경량 제품
-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 충전시간 : 5시간
- 소비전력 : 5.5W
- 전원 : 110/220V
- 가격: 58,000

빅히트 상품
음이온 냉풍기
연화1호 SIF-2005RT
- 리모콘식
- 음이온기능
- 상하/좌우 풍향시스템
- 3단계 풍속조절
- 7시간 30분 예약 타이머
- 아이스팩 내장
- 바퀴 이동식
- 3D 입체 냉방 시스템
- 실로코팬 시스템
- 소비전력 160W

설치장소 사찰/법당/강당 사무실 등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207,000 → 특별보급가: 160,000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8>



병석(病席)의 위로

부처님께 귀의한 이후 평생 교단에 공양을 올리며 수행자 못지않게 신앙의 길을 걸어오던 급고독 장자가 무거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얘야, 어서 사리불 존자님께 가서 내가 무거운 병을 앓아 지금 위독하다고 말씀드려라. 존자님을 뵙고 싶어도 찾아갈 힘이 없으니 제발 가엾게 여기셔서 집으로 좀 와주십사고 청하여라."

이 말을 전해들은 사리불 존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급고독 장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장자는 병문안을 온 사리불을 보자 너무나 고맙고 황송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리불은 그를 눕히며 말하였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장자여, 저기 옆에 다른 평상이 있으니 나는 거기에 앉으면 됩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음식을 드실 수는 있습니까? 많이 괴롭습니까?"

사리불의 따뜻한 음성에 급고독 장자는 금세 어린아이라도 되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아프며, 이러다가는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급고독 장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사리불은 말하였습니다.

"장자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착한 일 하나 한 것 없는 어리석은 범부라면 죽은 뒤 지옥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겠지만 장자께서는 부처님과 승단을 향한 고결한 믿음을 지니셨으니 그 믿음의 힘으로 고통이 사라지고 지극한 즐거움만 생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어리석은 범부라면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여 죽은 뒤에 지옥에 날 것이지만 장자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으니 성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범부라면 지독하게 인색하고 욕심이 많았기에 죽은 뒤에 지옥에 날 것이 걱정되겠지만 장자께서는 언제나 은혜롭게 베풀었고 선한 지혜를 지녔으니 이로 인하여 고통은 사라지고 성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자의 첫 번째 자리인 수다원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사리불의 다정한 위로를 듣던 장자는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병석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급고독 장자는 사리불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중아함경)

병문안이 끝났으니 사리불 존자는 할 일을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리불은 장자에게 붙잡혔습니다. 급고독 장자가 자신이 언제 부처님을 처음 뵙게 되었으며, 어떤 인연으로 제자가 되었고 어떻게 부처님과 승단에 정사를 기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자의 이야기들은 사리불 존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하고 바쁘신 사리불 존자를 앉혀 놓고 뻔히 아는 이야기를 다시 되뇌는 급고독 장자에게는 그 시간만큼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부처님을 향해 품었던 장자의 그 순결한 환희심은 어쩌면 세월의 더께에 눌리고 육신의 병으로 인해 초라하게 위축되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이 들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어도 깊은 회한에 사무치게 되며, 선한 마음으로 지내왔던 평생의 세월이 한 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되는 법이니까요.

사리불 존자 방문으로 병마 이긴 급고독 장자처럼
병든 노인들에게 따뜻한 법문 해주는 스님 많아야

사리불 존자는 가장 먼저 환자의 착한 일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그를 힘내게 하였습니다. 위축되었던 환자는 힘을 얻었고, 자신이 지내오면서 가장 가치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환자의 그 길고 긴 넋두리를 들어준 것만으로 사리불 존자는 그에게 저절로 삶에 대한 기운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주변에는 평생 절에 다닌 노보살님들이 계신데 절에 찾아가도 스님들의 따뜻한 시선 한번 받기 힘들다고 낮은 소리로 푸념합니다. 그러다 병에 걸려 자리보전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절과의 인연은 끝난다고 합니다. 결국 오랜 세월 길러온 자신의 신앙에 깊은 회한을 품고서 불교에 등을 돌리는 경우까지 종종 생깁니다.

사리불 존자처럼 만사를 제쳐두고 찾아와서 그 손을 잡아주면서 '그동안 참 잘 사셨다' 며 건네는 위로의 말 한 마디 듣지 못하는 우리의 '노(老) 신자들'. 그들은 치마불교의 장본인이 아니라 이 땅에 불교를 살아있게 해 준 급고독 장자들입니다. 그들의 정성이 소중했다면 이제 그들이 내미는 손을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인연을 알면 '나'를 볼 수 있다



암도 스님은 복을 짓고 받고 누리는 법은 바로 팔정도를 지키는 삶이라고 강조한다.

지상 백고좌

암도 스님

(백양사 청량원 주석)

6월 21일 대전 지장사에서 열린 중창불사 성공발원 백고좌법회에 법문하기 위해 백양사에서 새벽길을 재촉해 온 암도(岩度) 스님.

스님은 기자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고맙다" 신도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고맙다"며 자신을 낮췄다.

불자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법으로 유명했던 스님은 5년 전 홀연히 백양사 청량원에 칩거하면서 초발심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수행에 몰두해 왔다. 다시 선원문을 나선 스님의 설법은 언제들어도 즐겁다.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날의 주제도 '복짓고 행복하게 사는법' 이었다.

신수봉행(信受奉行)하면
무량대복(無量大福)이 있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불법승 삼보를 믿고 받들어 행하면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우선 복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조건 가운데 인연이 좋아야 복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초년에 부모를 잘 만나면 부모복이 있다하고, 말년에 자식을 잘 두면 자식복, 중년에 처를 잘 만나면 처복, 남편을 잘 만나면 남편복 있다 합니다. 또 가는 곳 마다 먹을 것이 생기면 식복이 많다 하고 매일 일만 생기면 일복이, 돈이 자꾸 생기면 돈복이 많고 재복이 있다 합니다. 인연(因緣)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연 따라 태어나서 인연 따라 살다가 인연이 다하면 간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인연 놀음입니다. 전생의 업력을 따라서 인연이 생기는 겁니다. 인연은 인(因)과 연(緣)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자기 업이고, 연은 환경의 조건 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인연따라 근기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인연이 좋아야 하지만 본인이 근기가 훌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인연이 있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기법(緣起法)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인연 놀음
가족은 물론 친구·이웃
내 몸과 같다는 것 깨달아야

요즘 세상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화엄의 세계, 사사무애(事事無碍)의 시대입니다. 이무애(理無碍) 사무애(事無碍) 이사무애(理事無碍)를 다 뛰어넘은 굉장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아요. 그러나 복만 가지고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아는 자나를 본다' 고 하셨어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 친척 이웃이 내 몸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좋은 인연 지어서 좋은 복을 받으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짓고 받고 누리느냐. 개인은 우선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 깨달음의 길과 같은 건데 우선 정견(正見)을 가져야 합니다. 바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02)733-6141 / 팩스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 대표 : 범산 원광식 (인간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른 생활을 해야 해요. 바른생활이란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해요. 바른 견해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듣고 입으로 먹어보고 등등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 전체가 작용하는 것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일수사견(一水四見)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은 한 가지인데 업에 따라 중생이 달리 본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물을 볼 때 음료수 아니면 농수로 봅니다. 귀신들은 물이 불로 보이고, 신들은 유리로 보인답니다. 과학자는 H_2O라고 수소 산소가 2대1로 모이면 물이라고 해요. 물고기에게 물은 그저 집이에요. 우리가 공기를 의식 못하듯이 물고기는 물을 의식 못해요.

이렇게 견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업견(業見)이라 해서 업에 따라 견해가 달라집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는 것처럼 자기가 보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소견이 좁아집니다.

팔정도(八正道)는 개인완성이고 바르게 잘사는 행복한 길입니다. 아주 쉽죠? 정업과 정견을 하면 정념이라,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진. 정성껏 밀어붙이면 수도도 생활도 성공해요. 특히나 수도하는 사람은 팔정도대로 살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정(正定)입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진하다보면 선정삼매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진하면 니르바나라 하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요.

팔정도만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보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요즘 말로 봉사라 할 수 있는데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히 남도 나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자비심을 갖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봉사를 해야 해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법시, 재물로 도와주는 재시, 놀라지 않게 하는 무외시가 바로 봉사의 근본 정신입니다. 무외시는 다른 사람을 친철하게 안심시키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보시 다음에 지계(持戒)라고 하잖아요. 계율을 잘 지키면 자신이 건강해져요. 살생하지 말라면 안해야 해요. 살생 안하면 건강해요.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아픈 치레를 많이 해요. 병만 나는 게 아니라 단명해요. 상대를 많이 단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 과업으로 금생에 와서 단명하는 겁니다. 인연법이 그래요.

복을 지어놓으면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무량대복은 금방 안 생겨요. 큰 복은 잘 참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참는 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보살행 중에서도 잘 참는 것이 최고에요. 그러나 참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진바라밀이 중요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노력 안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성공의 아버지는 정진입니다. 그냥 노력이 아니고 정성껏 해야 합니다. 이게 복 받는 법입니다.

복을 받으면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지혜는 긍정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도피하게 돼서 복 지을 기회가 없어요. 헌신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의 삶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최고가 지혜로서 피안으로 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누리는 방법은 정신 통일을 해서 선정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신 통일되어 살고 있어요. 삼매 아닌 사람이 없는데 강도와 순도의 문제예요. 독서하다 정신통일되면 독서삼매라 하고 검도 하다 들어가면 검도삼매, 일하다 들어가면 사사삼매, 화두 들고 들어가면 간화삼매, 염불 하다 들어가면 염불삼매, 기도 하다 들어가면 기도삼매 삼매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본래 우주심
지혜는 긍정적인 사고
본래부처 믿어야 깨침의길 열려

복을 누리는 방법은 마음이, 정신이 통일되어 정신 질서가 생겨야 합니다. 모든 질서는 정신 질서부터입니다. 정신 통일을 하면 정신 · 행동 · 사회 · 국가 질서가 확립됩니다. 정신 질서가 없으면 행동도 사회도 정신이 빠져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가 우주심이예요. 그것도 대우주와 같이 넓고 크고 깨끗합니다. 정신통일을 해서 수다원(須陀洹) 사다함(斯陀含) 아나함(阿那含)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해 부처님같이 대아라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수도를 잘하면 수다원이라고 하는 정신세계에 올라가요. 지성인이 되는 겁니다. 지성이 개발되면 미신도 불신도 없어집니다. 사다함은 일심으로 정신 통일해 의지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또 수도를 열심히 하면 아나함에 올라가요. 이건 현인이예요. 현인이 되면 율곡 선생 정도 되는 겁니다.

더 수행을 많이 하면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면 성인이라, 부처님은 대아라한 대성인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차원이 높아지면 해탈을 해요.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말은 전지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중생계를 떠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신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암도 스님.

아라한이 되려면 의식구조를 바꿔야 해요.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깨침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중생의 의식구조를 가지게 되면 아무리 수도해도 중생계를 떠날 수 없어요. 스스로 부처라고 생각해서 노력하면 되는데 나는 처음부터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백날 가봐야 중생일 뿐입니다.

여러분보고 중생이라고 안하고 불자라고 하잖아요. 정신은 의식구조에 따라 나와요.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의식구조인데 밀가루가 빵틀에 들어가면 빵이 나오고 국수틀에 들어가면 국수가 나오는 것과 같아요. 우리 생각 생각이 모두 다 의식구조에서 나와요. 제일 중요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의식 구조예요. 사고는 생각인데 방식이 의식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피조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노예근성이 생겨요. 주인의식은 책임의식과 동시에 보시하는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몸을 똥덩어리로 취급할 수 있지만 정신문화를 창조하려면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몸 관리 잘하는 것이 행복의 기본입니다. 적당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움직이면서 중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론만 중도가 아니라 생활도 중도여야 합니다.

열심히 정신수련을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디에 가든지 절을 잘하세요. 절을 많이 하시고 염불도 좀 하시고 참선도 시간나면 하시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해져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0여년 6000회 설법…눈높이 인생강좌 유명

암도 스님은

지난 30년간 6000여회에 달하는 설법을 해온, 설법의 대가로 불리우는 스님이 바로 암도 스님이다.

허를 찌르는 유머와 맛깔스러운 말솜씨, 현실에 뿌리 내린 근기설법으로 버무려진 '암도식 인생강좌'로도 유명한 암도 스님은 1955년 17세의 나이로 백양사에서 출가했다.

서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72년 서른을 넘긴 나이에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해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1980년 백양사 주지, 1990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1997년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평생 전국을 돌며 불자들의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해온 암도 스님이 초발심으로 돌아가 백양사 청량원에서 선방 살림을 꾸린지 5년 남짓 됐다. 인연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창운 스님

옛날 스님들은 결제 철이 되면 선원에 들어가 공부하고, 해제가 되면 전국 방방곡곡의 산천 경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행(萬行)을 했다. 그래서 이런 스님들을 보통 운수납자(雲水衲子)라고 부른다. 하늘의 구름과 계곡의 물처럼 발길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 다닌다는 뜻에서 부르는 말이다. 수행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애착이 생기니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운수납자하면 창운(昶耘) 스님이 떠오른다. 정말 바람 같고 흐르는 강물 같은 스님이다. 스님은 비행기와 관련된 항공대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하다 늦게 출가했다. 늦게 출가한 만큼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생각이 더욱 철저했던 것 같다. 그래


그림 · 문병성

서 출가하자마자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두타행(頭陀行)을 실행에 옮겼다.

스님은 손수레를 하나 준비하고 텐트도 하나 준비했다. 그리고 손수레에 간단한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전국을 누볐다. 절에 들러 기도도 하고, 풀밭과 나무 밑에 앉아 참선도 했으며, 시간이 나면 시장에 가서 세상 구경도 하였다. 그리고 밤이 되면 손수레 위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다.

만행을 하는 도중 첫 번째 겨울이 왔는데, 밤에는 무척 추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생각끝에 손수레 바닥에 석유 곤로를 설치했다. 쓸 때는 끌어내고 스위치만 넣으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간단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고, 난로 역할도 하는 일석이조의 발명이었다.

창운 스님은 일부러 저녁밥은 마을에 가서 탁발을 했다. 사탄이라고 쫓아내는 기독교도도 있었고,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느냐고 구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쩌다가 불심이 깊은 재가불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그들은 따뜻한 밥도 주고 의복과 돈도 주었다. 그러나 스님은 오직 밥만 받고 돈은 절대로 받지 않았다. 스님의 탁발은 수행을 위한 것이며 밥벌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탁발은 자기 마음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하는 데 최고의 수행이라고 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탁발을 하는 것은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는 그런 수행의 과정인 것이다.

하루는 스님이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강원도의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때 한 대의 차가 휙 지나가는가 싶더니 저만치 가서 멈추어 섰다. 그 차는 다시 후진해 와서 스님 옆에 멈춰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님의 꾀죄죄한 옷차림과 손수레를 끄는 힘든 모습이 불쌍해 보였든지, 목욕하라면서 몇 만원의 돈을 쥐어주고 갔다. 스님은 만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때만큼은 얼떨결에 받고 말았다고 한다.

스님은 손수레를 현암사 절 밑에 세워놨는데, 누가 자기도 그런 만행을 하려고 그랬는지 훌쳐가 버렸다. 스님은 손수레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는 기동력의 오토바이 시대를 열었다. 다른 스님들은 오토바이 타는 것을 출가수행자 위의(威儀)에 어긋난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잘 타지 않는다. 그러나 창운 스님은 상관하지 않는다.

손수레 끌고 전국 돌며 탁발
겨울엔 강원도 움막서 생활

스님의 만행도 일 년 내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강원도에 토굴을 하나 구했다. 여름에 마을 사람들이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며 임시 거처로만들어 놓은 움막이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모두 내려가 버리고, 스님은 그때부터 겨울내내 그 움막을 잠시 빌려 생활하는 것이다.

스님은 겨울이 되어 눈이 오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토굴에서 부처님의 원음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초기 경전들을 본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충실히 살아있는 초기 경전을 보면서 수행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창운 스님은 일 년에 한번 오직 하안거만 들어간다. 요새는 '물이 좋은' 선원에 방부를 들이기 위해 안거가 끝날 무렵부터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러나 창운 스님은 해제하고 나서 해동(解冬)할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만행을 하며 여름 안거를 살 선원을 물색한다. 들렀다가 이미 그 선원의 방부가 가득 찼으면 하룻밤 묵고 나오고, 또 산천경개를 천천히 구경하며 다른 선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터가 좋고 자리 하나쯤 비어 있으면 선원의 관계자를 찾아가 정식으로 방부를 들인다.

스님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선원에 들어가 참선 정진하고 있다. 세랍이 육십에 가까워지니 흰머리와 흰 수염이 보이는 창운 스님의 두타행(頭陀行)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각오는 여전한 것 같다. ■청원 현암사 총무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온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양양 낙산해수욕장은 낙산사와 인접해 사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피서지다. 사진제공=양양군청

무더위 씻고 마음도 가볍게

올 여름 피서 사찰이 있는 바다로 떠나볼까

다시 여름이다. 봄인가 싶더니 금방 더위가 찾아왔다. 집에 있어도 사무실에서 일을 해도 더위를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떠나자. 산도 좋고 바다도 좋다. 그런데 산과 바다를 한 장소에서 만끽할 수 있는 사찰들이 있다. 시원한 물로 더위를 식히고 인근 사찰 법당을 찾아 마음을 다지는 피서가 바로 일거양득 아닐까? 여기서 잠깐. 서해는 6월 25일, 남해는 7월 1일, 동해는 7월 10일경부터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한다.

■ **양양 낙산사** 지난 4월 화마로 적지 않은 전각들이 소실돼 전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낙산사. 그러나 불자와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특히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해수관음상과 국내 3대 관음기도도량인 홍련암은 24시간 기도객들을 맞고 있다. 낙산사 옆에는 동해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낙산해수욕장이 있다. 해수욕을 즐기고 낙산사에 올라 작은 정성을 보태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033)672-2448

■ **강릉 등명락가사와 동해 감추사** 일출의 명소 정동진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등명락가사(033-644-5337). 사찰 입구에 있는 등명감로약수는 빈혈, 성인병 치료에 좋고 만성피부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청자로 빚어낸 '오백나한상'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볼거리다. 동해 감추사(033-532-9623)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해변과 기암괴석이 한데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무릉계곡과 백사장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추암해수욕장은 벌써부터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 **부산 해운정사와 용궁사** 부산의 명소 해운대해수욕장에서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해운정사(055-746-2256). '남진제 북송담'의 진제스님이 조실로 주석하며 후학과 불자들을 제접하고 있는 도량이다. 감로수와 같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끝없이 펼쳐진 남해안의 해수욕장에 몸을 맡기는 것은 더없이 좋은 피서.



내소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불자들이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남해의 수상법당 해동용궁사(051-722-7744)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제2의 갓바위부처'라고 불리는 약사여래불과 33척 돌을 조각해 만든 거대한 해수관음대불은 또 다른 볼거리다.



화마를 다행히 피한 낙산사 보타전을 참배하는 관광객들.

■ **고창 선운사와 부안 내소사**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두 사찰 모두 30여분 거리에 해수욕장이 있다. 복분자와 장어, 수박으로 유명한 고창의 선운사(063-561-1422)는 입구에서 도솔암에 이르는 긴 계곡에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것이 특징. 인근에는 동호해수욕장과 구시포 해수욕장이 있다.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내소사(063-583-7281). 최근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변산해수욕장과 채석강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격포해수욕장이 지근거리에 있다. 그리 깊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서해의 대표적 해수욕장이다.

이외에도 강화 보문사(032-933-8271), 서산 간월암(041-662-2723), 김제 망해사(063-543-3187) 등에서는 서해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으며 남해 망운암(055-863-3095), 여수 향일암(061-644-4742) 등도 남해의 멋진 풍경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이영화 어때요?

엄마가 사랑에 빠졌을 때

마더(Mother) 감독: 로저 미첼 출연: 앤 레이드, 다니엘 크레이그 상영시간: 100분 등급: 18세 이상

사랑은 국경도 나이도 초월한다. 하지만 불륜(?)의 사랑은 늘 윤리적 문제와 실존의 선택에서 갈등하기 마련이다. 60대를 훌쩍 넘긴 고목나무 같은 몸에 찾아온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다룬 영화 '마더(Mother)'가 바로 그것.

딸이 해준 저녁을 먹은 남편이 갑자기 그날 밤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다. 그 후 시간은 얼마나 지났을까. 자상한 엄마이자 순종파 아내였던 '메이'의 가슴에 봄바람을 몰고 오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의 친구 '대런'. 낮 동안 아들의 집을 수리하는 대런과 하릴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 메이는 차츰 그의 자유롭고 맑은 영혼에 빠져들게 되는데….

윤리적 갈등은 '엄마 메이'의 사랑을 짓누른 압착기였지만 그녀에게는 '여자 메이'의 사랑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영화 후반부 대런의 패악(悖惡)은 리얼리티의 강화라는 점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중년 여성의 몽환적 사랑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에 충분하다.



자칫 추해보일 수 있는 엄마의 선택과 사랑을 충만한 연기와 섬세한 연출로 설득력을 더한 영화 '마더'가 시사하는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시대를 사는 여성들 아니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마음의 청량제'를 언제나 갈구한다는 화두를 던져준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이 가족을 위해 항상 희생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엄마'일지라도 말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게시판



혜거 스님과 참선 수련 금강선원은 7월 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혜거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 수련회'(사진)를 실시한다. 대학생이상 남녀 일반인을 대상으로 7월 22~25일, 7월 29일~8월 1일, 8월 5~8일에 각각 실시되는 이번 수련회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금강선원 수련원에서 진행될 예정. 참가비는 6만원이다. (033)433-5845~6.

지리산 어린이 여름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장애·비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리산 어린이 여름학교'를 실시한다. 남원 실상사 일원에서 7월 25~30일 비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첫째마당에 이어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둘째마당은 8월 8~13일 진행된다. 모집은 7월 9일까지. (063)636-3776

시흥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시흥장애인복지관은 6월 29일 오후 3~5시 복지관 강당에서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삐에로 인형극 '팥죽할멈' 공연 등도 함께 펼쳐질 예정. (031)431-9114

동산반야회 불교교리강좌 동산반야회는 7월 6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는 '불교교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김재일 법사의 지도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동산법당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연기설' 등 총 8강좌로 꾸며질 예정. 수강료는 5만원. (02)732-1206

20면 상식 퍼즐 정답

줄	넘	기		단	결	권
기		병	기			권
세				마	애	불
포	세	이	돈			망
			키	메	라	
가	가	호	호			죠
감			테	리	우	스

공연

손진택-김성녀 한무대서 호흡

뮤지컬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서 연출·연기



'벽속의 요정'의 한 장면.

남편이 연출하고 아내가 연기하는 1인극.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다리오 포' 아내인 여배우 '프랑카 라메'가 '원 우먼 플레이'에서 보여준 시도지만, 한국에서는 그리 흔한 설정이 아니다. 이를 불자 부부 손진책(극단 미추 대표)-김성녀(중앙대 음악극과 교수)가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을 통해 보여줬다.

'벽속의 요정'은 전쟁을 피해 40년 간 벽속에 숨어 산 가장의 얘기를 아내와 딸의 눈과 입으로 풀어낸 '뮤지컬 드라마'다. 이 작품에서 배우 김성녀는 4살 꼬마에서부터 70살 노인까지 30역에 이르는 남녀 캐릭터를 홀로 소화한다.

김성녀씨가 연기인생 30년 만에 도전한 생애 첫 모노드라마지만, 김씨의 카멜레온 같은 연기변신이 빛나는 작품이다. 여기에 남편 손진책씨의 세심한 연출력이 덧대진 작품은 불자 부부의 환상의 하모니로 완성됐다. 7월 24일까지 서울 청담동 우림 청담시어터에서 관람할 수 있다. (02)569-0696 강신재 기자

전시



명나라 화가 우빈의 '오백나한도'.

폭 53m 대형 오백나한도 공개

명나라 우빈作 … 7월 17일까지 김제 청운사

독특한 형태의 나한이 묘사된 대형 두루마리 나한도가 일반에 선보인다.

하소백련축제제전위원회는 7월 17일까지 김제 청운사에서 명나라 우빈의 '오백나한인물도'를 공개한다. 우빈은 독특한 스타일의 회화로 이름난 명나라의 화가. 이번에 공개되는 나한도는 폭이 53m에 이르는 작품으로, 오백 나한의 형상이 제각기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험상궂은 얼굴과 잠에 빠진 얼굴 등 중생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얼굴에 담은 것이 특징. (063)543-1248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7일 06:00 불교강좌
28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29일 11:05 아름다운 초대
30일 07:05 아침저널
1일 09:05 행복한 미소
2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3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7일 08:00 명상음악산책
28일 15:10 명상육아
29일 19:30 열린마당
30일 15:10 휴먼다큐
1일 19:30 절로 가는 길
2일 16:20 부처님경전이야기
3일 15:2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7월 1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6월 30일 아침 8:35~09:20) 동양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사랑지킴이

옛날부터 장승은 단순한 경계표나 이정표의 역할은 물론 잡귀와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수호신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각 마을 입구에는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승이 '사랑지킴이'로 다시 태어났다. '사랑지킴이'는 남녀간의 영원한 사랑을 지켜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까이 있는 연인과

나를 바꾼 부처님법 (중)

조남희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좌선 후의 질문시간은 항상 시끌벅적했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질문하려고 북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나는 좌선 시작 후 10분이 채 못 되어 다리에서 생기는 통증을 참기가 어려웠다. 집중은 안 되고 다리에서 오는 통증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일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은 매력이 있었다. 코끝에 정신을 집중하고 호흡을 하다보면 마음이 일순간 고요해지며 통증이 있는 중에도 통증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이 가끔 있었다.

계속 배워보고 싶어서 위빠사나 명상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을 찾게 되었다. 그때 가게 된 곳이 압구정동의 보리수 선원이다. 거기에서 2주 동안 초보자수행을 배웠다. 내게 가르침을 주신 분은 붓타락키타 스님이셨다.

외국인 스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내게는 자주색의 이상한 천으로 두른 듯한 가사를 입은 스님을 가까이서 뵙는 것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스님께서는 이 수행법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수행법이라 하시면서 이 수행법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법이라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알아차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알아차림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알아차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체로 수용하고 거기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을 말 한다' 라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나의 그 동안의 삶이 얼마나 왜곡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며 살아왔는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

2주간의 초보자 수행을 끝내고 보리수 선원에서 간간이 경행과 좌선을 했다. 경행할 때 발의 움직임에 명칭을 붙이면서 알아차리고 또 좌선을 할 때 배의 일어남 꺼짐을 보면서 명칭을 붙이며 알아차림을 계속해갔다. 때로는 통증과 싸우기도 하고 혼침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마하시 센타의 수행법을 익혀나갔다.

그러다가 지금의 나의 스승인 묘원법사님께서 양재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원에서 마음을 보는 수행법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마음을 보는 수행법이라니 얼마나 근사한가?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마음을 보는 수행법을 배워서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만병통치약을 얻을 것 같아 당장 양재동으로 달려갔다.

> '아비담마' 접한 후 마음의 중요성 깨달아
>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수용하는 법 배워
> 미얀마인들의 자율적·적극적인 신행에 감동

처음 간 날, 법문에 "마음을 보려고 해도 마음을 내지 못해서 마음을 못 본다. 마음을 보는 방법을 몰라서 못 본다. 무엇을 해도 마음을 보지 못하면 뿌리가 남아있다.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그 순간의 마음이다"라는 명쾌한 법사님의 말씀에 이젠 제대로 된 수행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희열이 올라왔다.

법사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따라 가면 매일 나를 휘젓는 흙탕물 같은 마음을 보게 될 것 같아 신이 났다.

위빠사나는 빨리어로 위(vi)와 빠사나(passana)의 합성어이다. '위'는 분리하다, 해체하다의 뜻이 있고 '빠사나'는 통찰하다, 꿰뚫어본다는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것 자체가 위빠사나 수행의 시작인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아서 욕심내고 성내는 것을 해결하는 수행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념처 위빠사나 수행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대념처경>에서 보증하셨다.

나는 수원포교당에서 기초교리를 배우던 때를 떠올렸다. 당시, 스님들께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욕심이 내려놓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수행법은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 주고 또 부처님께서 보증까지 하셨다니! 귀가 번쩍 뜨였다. 그때부터 나는 논현동에 있는 한국 위빠사나 선원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한국 위빠사나 선원에서는 사념처 수행을 염처별과 단계별로 상세히 가르치고 있었다. 물론 미얀마 수행방식인 마하시 센터의 방식과 쉐우민 센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다.

염처별 수행법은 신수심법 사념처를 세분하여 몸을 알아차리는 신념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념처,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념처, 법을 알아차리는 법념처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이고, 단계별 수행법은 1단계 모양 알아차리기, 2단계 성품 알아차리기, 3단계 전면에서 알아차리기 등 단계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염처별, 단계별로 가르치니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수행을 따라 할 수 있었다.

내가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인생의 관점을 바꾸게 된 것은 <아비담마> 논장을 접한 뒤였다. <아비담마>에는 "사람은 누구나 선한마음, 불선한 마음, 과보의 마음, 아라한의 마음의 4가지를 가지고 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과보를 받고 불선한 마음은 불선한 과보를 받는데 사람의 태어남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 축적된 성향이 다르게 태어나며, 그 태어난 성향은 바꿀 수 없다"고 나온다.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 원인을 잘 지워 놓으면 결과는 자연히 잘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현재의 환경에 처한 것은 어느 생에선가 그러한 원인을 지어 놓은 때문이다. 이 얼마나 명쾌한 사실인가.

또한 경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멈춰질 수 없듯이 한 순간도 어디에 머물지 않고 31계의 세계 중 어느 한 곳에 즉시 태어난다"는 사실도 적혀있었다. 죽어서 자신의 악업 때문에 어디에도 못가고 떠도는 혼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죽은 후에 영가천도를 해서 그 사람을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예전에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고 영가천도재를 지냈던 일이 생각났다. 나는 비로소 미혹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위빠사나 선원을 다니며 또 한 번 겪은 획기적인 일은 작년 12월에 미얀마의 쉐우민 선원으로 집중 수행을 다녀온 일이다. 쉐우민 선원은 마음챙김 수행을 하신 큰스님이 계셨던 선원답게 자율적이고 부드럽다. 그 곳의 신도들은 큰 스님이 살아 계실 때는 수시로 와서 큰 스님을 친견하곤 했다고 한다. 큰스님께서 수행을 많이 하셔서 마음에 번뇌가 없기에 번뇌의 불을 끄러 큰 스님을 친견하러 온 다는 것이다. 지금은 큰 스님 안 계시는데도 테이프 법문을 들으러 재가 신자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 그 곳 사람들의 신심이 부러웠다. (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2005년도 현대불교신문사 지사 / 지국 정기회의 개최 참석 통보
● 일시 : 2005년 7월 12일(화) 오후 2~ 6시 ● 장소 : 서울 청운동 본사 강의동 1층 법당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 일원	이 준 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지사	대전 / 옥천	혜철스님	042)257-0161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1Box(60포-20만원)~~ ~~2Box(120포-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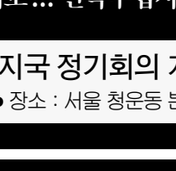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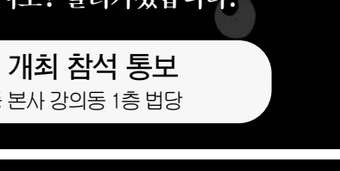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8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리규사 직수입품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국내 차 품평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차계에서 '품평(品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품평이란 찻잎의 품질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그 결과가 제다 방법과 차의 가격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문화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차 품평 기준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차는 우리 기준으로"

제다 방법·가격 형성 등 차문화 발전에 중요



차의 품질을 평가하는 품평(品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품평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 단체별로 이뤄져 제각각
일본 중국의 기준 적용도 문제
"소비자 기호 반영 못하고 있다"
단일·다양 떠나 필요성은 공감

통일된 기준안이 없다보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차 품평회가 나름의 기준으로 차를 품평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같은 차라도 품평 심사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이 들쭉날쭉 매겨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혜우 스님은 "차 품질의 좋고 나쁨을 떠나 품평대회에서 수상한 차를 제다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일부 제다업체들의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차 품평회 현황

우리나라의 차 품평은 일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 차 축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차에 대한 품질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시했으나, '찻잎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의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실제 품평에 활용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차 품평대회를 꾸준히 열고 있는 곳으로는 한국차인연합회를 꼽을 수 있다. 한국차인연합회는 1994년부터 매년 5월 25일 '차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그 해 국내에서 생산된 차 중 '올해의 명차'를 선정하는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또한 차인연합회는 1999년부터 보성차축제 기간 중 '국제명차품평대회 한국예선전'을 개최해 국제 품평시장에 선보일 우리 차를 선발하고 있다.

차 축제를 열고 있는 보성군과 하동군 등은 행사기간 중 지역에서 생산된 차를 중심으로 품평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 문을 열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과 순천대학교 한국녹차연구소, 한국차생산자연합회 등도 독자적인 품평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전국적 규모의 차 품평회인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가 열려 일반인들에게 차 품평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근래 들어 이렇듯 다양한 차 품평 행사가 열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차 품평에 대한 개념과 용어, 기준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품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차를 품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혜우전통차제다교육원장 혜우 스님은 "차 품평회가 많이 열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품평회에서 제시한 품평기준이 하나같이 중국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중국차와 우리 전통차와는 엄연히 제다법이 다르고, 중국인이 선호하는 맛과 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차 품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차 품평 어떻게 이뤄지나?

차 품평의 목적은 차의 품질을 평가하고 제다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차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 품평방법은 세계적으로 차 무역이 시작된 18세기 초부터 그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홍차의 주요 소비국인 영국은 1725년 수입 차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으며, 미국은 1883년 국회에서 차엽법(茶葉法)을 제정해 차 수입을 단속했다. 일본은 1879년 '차 공진회'란 이름의 품평회 개최를 시작으로 시즈오카현 등 차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품평방법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1915년부터 수입 차에 대한 단속은 물론 규정된 품질 외의 차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1950년 북경에서 '제1차 전국 상품 검사 표준'을 공포해 차엽 검사 표준을 제정하고 전국적 규모의 차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차엽 이론 분석' 프로젝트를 주관해 차의 맛과 색, 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해 오고 있다.

우리 에 맞는 차 품평은?

지난 6월 17일, 한국차학회는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차 품질평가 방법 현황 및 기준안 설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차 품평 현황과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는 품평 기준안을 설정해 보자는 시도였다.

이 자리에서 양원모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품평대회는 아직 한국 차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품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한국 차의 특성묘사분석용어를 제대로 정립하고 한국 차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는 차 품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국제차엽연구소장 정인오 교수(한서대)는 "올바른 차 품평을 위해서는 한국형 전문 품평도구가 많은 연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남농업기술원 차 시험장 신기호 연구원은 "숙련되고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원에 의한 관능검사 결과와 과학적으로 측정된 품질의 특성이 충분히 조화로운 연계를 가질 때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각각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일본과 대만, 중국의 품평 기준과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품평의 기준을 비교한 후 찻잎의 형태(15%)와 색택(15%) 수색(20%) 향기(20%) 맛(30%)을 평가하는 '녹차 관능 평가 기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차학회 신미경 회장은 "학자들마다 '단일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양한 기준으로 품평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해 기준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우리만의 차 품평 기준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모임과 세미나 등을 통해 기준안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선시대 ⑨



조선 건국 후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생각해 많은 제도가 정비되고, 특히 사찰의 운영과 창건, 사전(寺田) 사노(寺奴)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런 새로운 자리매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사원의 차 생산은 자급할 수 있도록 유지되었고, 선비들의 차는 일상화되었다. 서민들의 차생활은 당초 약용에서 출발되었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전에 하는 헌다의례에서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게 되었다. 그러나 부녀자의 사찰출입이 통제되면서 서민들의 음다풍습이 점점 퇴조하게 됐다.

중국은 전대에 시작된 의흥 중심의 자사도예가 다기 제작에 큰 붐을 일으켰다.

조선 부녀자 사찰출입 통제, 음다 퇴조
중국 서우천·이우무림 등 도예 명장 배출

일본에서는 차생활이 확대되면서 자득의 이론이 자리 잡고, 특히 고려다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① 부휴선사(1543~1615): 대둔사 송광사 쌍계사 등에서 차를 즐겨 마셨다. 벽암(碧岩)·취미(翠微) 등의 제자를 두었고 다시를 많이 남겼다.

② 사명대사(1544~?): 임란 때 승군(僧軍)을 이끌었으며, 다시를 남겼다.

③ 허준: 〈동의보감〉을 완성했으며 그의 화제(和劑) 중에 찻잎이 들어가 있다.

④ 김장생(1548~1631): 〈가례집람도설〉에 차를 타서 다례를 지내는 내용이 있다.

⑤ 신식(1551~1623): 〈가례언해〉에서 점다에 관해 썼다.

장현광(1554~1637): 제례 때 차를 드리는 일에 관해 썼다.

⑥ 도융(1543~1605): 〈고반여사(考槃餘事)〉와 〈다설(茶說)〉을 찬술했다.

⑦ 서우천: 의흥의 도공으로 시대빈에게 배워 크게 발전했다. 수많은 변형과 명품을 남겼다.

⑧ 풍몽정(1546~1605): 〈쾌설당집〉과 〈쾌설당만록〉에 차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특히 품다(品茶) 초다(炒茶) 장다(藏茶)법을 잘 썼다.

⑨ 정운붕: 화가로 차를 좋아해 '옥천팽다도(玉川烹茶圖)'를 남겼다.

⑩ 탕현조(1550~1616): 희곡작가로 시문집에 차에 관한 기록이 많다.

⑪ 심사량: 의흥 도공으로 '심다소'라 불렸으며, 작품이 금석(金石)처럼 견고했다.

이중방: 이무림의 아들이며 시대빈의 문하로, 손꼽히는 명장이다.

⑫ 고전직부: 리휴의 제자로 무사다법을 성립시켰다. 초암차와 서원차의 다법을 전했다.

남방종계: 남종사의 암주로 〈남산록〉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⑬ 산상종이: 리휴의 제자로 25세에 차 모임을 가졌고 풍신수길의 다두(茶頭)로 있었다.

⑭ 고려다완에 관한 열의가 극도로 높아졌으며, 이는 임란 때 그들이 자행한 도자기 탈취의 배경이 된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543 부휴선사(浮休禪師) 출생 ① 1544 사명대사(四溟大師) 출생 ② 1545 사신맞이 다례 주다례 왕의 약에 차를 약재로 넣다 1546 허준(許浚) ③ 1548 김장생(金長生)의 출생 ④ 1551 사임당 신씨 @ 신식(申湜), 장현광(張顯光) ⑤	명대 1540 경덕전 도공들 약탈 1543 도융(屠隆)의 출생 ⑥ @ 서우천(徐友泉)의 활동 ⑦ 1546 풍몽정(馮夢楨)의 출생 ⑧ 1547 정운붕(丁雲鵬)의 출생 ⑨ 1550 탕현조(湯顯祖) ⑩ 1552 포르투갈, 마카오 점령 @ 심사량(沈士良), 이중방(李仲芳) ⑪	남북조 1542 고전직부(古田織部) ⑫ 1544 남방종계(南方宗啓), 산상종이(山上宗二) 출생 ⑬ @ 잦은 차회와 고려다완 ⑭

●坐禪三昧經
구마라집 한역 · 요산지안 감수 · 자응 역주 | 신국판 | 값 9,000원

좌선삼매경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 구마라집이 402년에 번역한 것으로
초기 선경(禪經)을 대표하는 경이다.
좌선입문자로서의 구체적인 수행지침이 설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탐진치 삼독에 빠진 이들을 위한 관법(觀法),
선수행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행위와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다섯 가지 관법(觀法),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아우르는 성문선(聲聞禪),
연각선(緣覺禪), 보살선(菩薩禪) 등
대·소승의 선법이 조직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수행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경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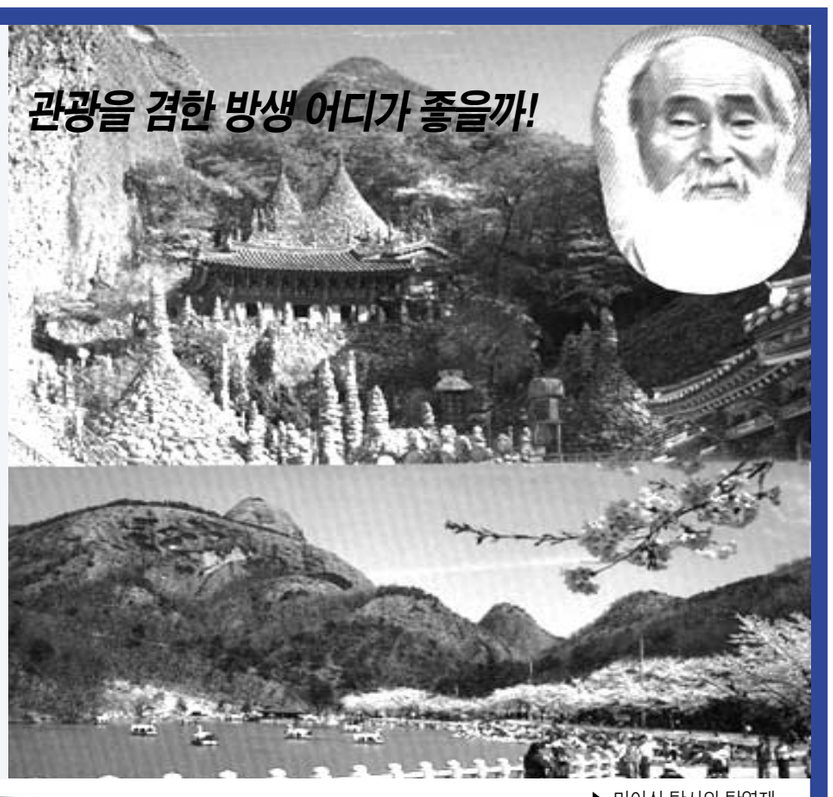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iva : 344~413) | 인도 구자국 사람으로 중국 대표적인 역경사 중 한 분. 구마라집의 역경활동에 의해 비로소 중국은 대승불교 철학의 진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대품반야경』·『묘법연화경』·『아미타경』·『유마경』·『금강경』, 용수의 『중론』·『십이문론』·『대지도론』 등을 포함하여 300권 이상의 대번역사업을 완수하여 중국 불교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았다. 그의 번역은 그 이전의 것들에 비해 사상적 내용의 전달이나 문체가 뛰어나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다.

요산지안(樂山志安) 스님 | 통도사 벽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겸 통도사 반야암 회주로 계신다.

자응(慈應) 스님 | 철오(徹悟)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학교(경주) 선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선학과 한문학을 공부. 남국선원과 해운정사에서 안거, 수행정진하였으며,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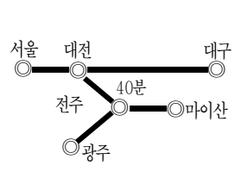
불광출판부
송파구 석촌동 160 – 1 전화 (02)420 – 3200 전송(02)420 – 3400 http://www.bulkwang.org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의 운명은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음은 있나요?

문 스님 법문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반야심경에도 그렇고 금강경에도 그렇고 모두 '없다'라고 설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마음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답 항상 얘기하지만 한마음이라는 것은 우주 삼라대천세계, 우리 사바세계가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그릇에 담겨서 찰나에, 여러분이 아파서 '아픈 것도 당신밖에 낫게 해 줄 수 없어.' 하고 내면에 관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약사가 생기고 또 거기서 관세음이 생기고 지장이 생기고 칠성이 생기고 용신이 생기고 지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군데에 일체 만법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스럽게 들이고 내고 응해 주시기 때문에 한 그릇의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팔자 운명을 어디서 누가 갖다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갖다 주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찰나에 생각을 하면 있는 것이 되고 또 그게 떨어지면 함이 없이 하니까, 함이 없이 돌아가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이더냐?" 하고 물으니깐 물통이 있는 것을 차고 빙그르르 돌아서 어느 스님이 나가시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하는 말, 움죽거리는 동작, 생각이 항상 밝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이 항상 밝아 있다면 꺼진다는 언어도 붙지 않을 것이고 켜진다는 언어도 붙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밝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하시면 그게 법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하고 했다 하면 법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화신이라는 거죠, 바꿔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시 자가발전소와 같아서 여러분이 불을 켜려면 켜고 말려면 말고, 그거뿐입니다. 켜진다 꺼진다는 언어가 붙지 않는 것이죠. 켜지는 것도 아니고 꺼지는 것도 아니다, 단 네가 켜고 끄고 그럴 뿐이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됩니까?

방 안에 불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들어서 다 켜고 끄고 그러는 거지 누가 만들어 줍니까? 또 여러분이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고 움죽거리고 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에 말을 하는 것을 밝다고 하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정됨이 없이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 하는 그 양면을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가 목마르면 그냥 물 마실 수 있고, 또 내가 자고 싶다 할 땐 그냥 잘 때 되면 자는 거고, 일할 때 되면 일하고, 부지런히 뛰어야겠다 하면 뛰는 거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하면 쉬는 거고, 이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여한 실상이며 법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유를 붙일 게 뭐 있겠습니까? 있다 없다를 왜 붙입니까? 가뜩이나 살아가다 보면 귀찮은 일이 너무도 많은데 있다 없다를 왜 붙입니까.

거와 같이, 광력도 똑같고 자력도 똑같고 통신력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내가 마음을 먹는 데에 따라서 상대방도 바로 그 마음이 동시에 자꾸자꾸 거기 가서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집이 전구는 제각각인데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가스통이 하나인데 전부 쓰는 가스는 다 그 한 통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통에서만 내가 잘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은 한 가정을 정말이지 부드럽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선 화목이 깃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보살님이 자기 남편이 군인인데 별이 셋이나 돼서 아주 우쭐대고 살 사람인데도 겸손합니다. 근데 하도 남편이 들어오면 본 체를 않고 그렇게 다니려니까 서로 떨어지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를 은근히 배신해서 그런 줄 알고 만날 싸웠습니다. 얻어터지고 말입니다. 그러다 가정이 아주 파괴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길 왔습니다. 그래서 관하는 법을 가르쳐 줬죠.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전자에 안 하던 행동을 하더란 얘깁니다. 남편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부인이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여보, 피곤해서 어떡해요?" 하고 오히려 위로를 해 주니까 가정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뀌지게 되고 시간만 나면 남편도 자꾸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식들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여보, 어디 있어? 당신 어디 있어?" 하고 찾으면 그냥 그 말과 그 생각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서로서로 통신이 잘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이 부처님의 법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족 모두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든 부드럽게 말해 주고요. 그럼 됩니다.

가족의 인연에 대해서

문 스님, 불교에서는 사실 가족이라든가 부부의 인연 등의 인연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또 불행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부가 인연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가족의 인연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또 해결을 할 수 있나요?

답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불교라는 뜻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풀 한 포기도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니만큼 한 가정이 살아갈 때에 만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망했어. 저 사람이 조렇게 하니 내가 화가 안 나?' 하고서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원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 파괴가 되고 그렇습니다. 화목하질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 내가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부드럽게 행할 수 있다면 어느 땐가 작업이 순조롭게 될 때 그 가정은 밝아지는 겁니다. 가족들의 그 마음이, 전력이 똑같은

삼재에 대해서

문 제가 불교의 배움이 부족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에 가 보면 삼재가 어떻다느니 하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삼재라는 것이 불교에서 나온 건지, 또 불교에서 나온 것이라면 삼재가 있는 동안에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전자에서부터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삼재팔난이 있고, 무슨 그런 것이 많이 붑습니다. 어느 달은 어떻고 어느 해는 어떻고 뭐 이러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공부를 하는 분이라면 그런 것에 끄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공부 하는 데는 삼재팔난이고 무슨 새 달에 어떻고 훗달에 어떻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사 가는데 무슨 못을 잘못 박으면 안 되고, 동쪽은 언짢고 서쪽이 좋고…, 이런 거를 몽땅! 놔 버리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권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우주의, 즉 말하자면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에 매달려서 그렇게 끄달려서야 되겠습니까? 삼재에 끄달리고 무슨 뭐 어디를 가면 손이 있다나? 무슨 손이 있는지…. 나는 이날까지 그런 거는, 우리가 지어서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오히려 받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무슨 요새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업이 있으면 이렇고, 무슨 죄업이 있어서 이렇고, 영계에서 이렇게 해서 오간지옥이 있고, 화탕지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거를 다 그냥 놔 버리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금강경도 잘 보시고 화엄경도 잘 보십시오. 화엄경에도 있고 금강경에도 있고, 금강경이 축소된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모든 것을 놔 버리고,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성계가 말입니다, 석 달 열흘을 산에 가서 공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이 부처님 법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어!

미를 올리면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되던 날 꿈을 꾸니까 자기 밥 해 놓은 데에 구렁이가 서리서리 얹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서 그걸 보니까 머리카락이 서리서리 있거든요. 할 수 없이 머리를 싹 그냥 창호지로다 바르고 석 달 열흘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꿈을 꾸었거든요.

아, 쳐다보니깐 그냥 까마귀가 까옥까옥 하고 날아가고 또 내려다보니까 하얗게 눈이 왔는데 꽃이 활짝 피었던 게 그냥 와르르 꽃이 져서 떨어지거든요. 또 들어와서 안을 보니까 면경 있던 것이 와르르 깨져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하도 놀라서 바깥을 쳐다보니까 자기 대문간에 허수아비 목을 턱 걸어서 대롱대롱하고 매달려 있더랍니다.

그런 꿈을 만약에 여러분이 꾸었다면, 석 달 열흘을 머릴 싸매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 그렇게 꿈을 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우르르 깨지고 허수아비가 달려 있고 그러면 아마 좋지 않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떡 그릇에도 엎드려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남을 우습게 알지 말고. 그래서 가다가 가다가 해몽을 하려고 찾아가는데 아, 떡장수 노인네 한 사람이 떡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은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떡을 하나 사서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것은 무학 대사나 대답해 줄 수 있지 나는 대답해 줄 수 없소."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는 반면에 그 떡 장수 할머니는 없어져 버렸어요. "아하! 바로 무학 대사로구나." 이러고선 생각을 했답니다. 무학 대사가 화해서 그 할머니로 들어가서 그 할머니가 인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무학 대사를 찾아서 가니까 무학 대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 줬습니다. 까마귀가 울고 간 것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가옥가옥' 아닙니까? 그러니 청와대 그 안에 집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색경이 깨진 것은 와르르 깨졌으니 소리가 왕창 나서 모든 백성이 그 소리가 왁짝왁짝 나게 우러러 얘기해 줄 것이다. 또 꽃이 폈다 와르르 진 것은 바로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었으니 바로 나라의 국록을 먹을 것이다. 그 허수아비 맨 것을 바로 모든 백성이 쳐다볼 것이다. 우러러 쳐다볼 것이다 이겁니다.

이래서 무학 대사가 길을 인도해서 꿈 해석을 해 주면서 아주 뒤바꾼 거죠, 그냥. 그 무학 대사의 능력도 알아볼만 하죠? 그러니 우리의 뒤바꾸는 그 마음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는 깨치지 못했으니깐 뭘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유 때문에 고만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무학 대사가 길을 인도해서 이성계가 인군 노릇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죽는 꿈을 꿨든지 살 꿈을 꿨든지 피를 흘리는 꿈을 꿨든지, 어떠한 꿈을 꿨든지 좋게만 생각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타당하게, 자기 앞에 있던 것이 아주 좋게, 이것이 해결 나려고 이런 꿈이 꾸어졌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든지, 또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꿈을 꿨다, 또 승진을 하려고 이런 꿈을 꿨다, 하여튼 어떤 거든지 가서 좋게만 생각하셔야지, 만약에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론이 붑으면, 나쁘다고 생각했으니까 나쁜 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팔자 운명은 어디에 누가 갖다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갖다 주는 것이죠.

전 삼재는 모르거든요. 전 모든 걸 몰라요. 모르

☞30면으로 계속

어떤 것에도 끄달리지 말고 몽땅 놔버리세요!

☞29면에서 계속

는 게 너무 많아서 편리하죠. 여러분은 모두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아마 복잡하실 겁니다. 나같이 바보처럼, 길을 걸어도 바보 같아서 꽃을 보고도 싱긋이 웃고 그저 서로 주고받고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몽땅 놓으려면

문 스님께서는 항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몽땅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몽땅 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아니, 만날 하는 말을 글쎄 되묻고 되묻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을 누가 끌고 다니는 겁니까, 지금? 마음을 내기 이전이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낼 때에 아예 그 불성에다가 그냥 맡겨 버렸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자기 인생은 생명의 불성으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본래자성불 자기한테 그냥 다 맡겨 버려요.

우리가 들이고 내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지 현재의식에서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자기는 시작일 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종일 뿐이죠. 그런데 아니, 당신 주인이 당신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지, 당신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두 사는 거를 '오직 주처에서 하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몽땅 놓는 게 되죠. 하나 둘 언제 그걸 세어서 거기 놓고 간다고 이럽니까?

모든 것은 본래 자성, 불입니다. '불' 하는 건 생명입니다. '본래'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부처를, 예를 들어서 천체를 말하고 불은 드는 걸 말합니다, 켜는 걸.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움죽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삼위일체가, 천체가, '삼위일체' 하면 육식까지도 거기 포함합니다. 이 모든 내면에 들은 의식까지도. 그래서 한마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외부의 모든 것들도, 전력도, 이거 끌어 쓰는 것도 모든 게 있어야, 지수화풍의 뜻이 있어야만 전기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친절하게 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종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수화풍에서 나왔고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고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이 지금 이렇게 모두, 과학을 존재하게 하고 전력을 존재하게 하고 위성을 존재하게 하고 전파를 존재하게 하고 컴퓨터니 뭐니 다 그게 아니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두가, 그 재료로 인해서 모두가 연구를 하고 또 발전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공업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천체물리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죠. 근본이 없다면, 그 근본이 없다면 지수화풍이 없고 지수화풍이 없다면 그 근거지를 두고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천체를 이끌고 가는, 오로지 보배 자기 본래자성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데 같이 내면과 외부가 같이 돌아가니까, 아니 같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도 말할 거 없죠. 아니, 지구가 뭐 돌아간다고 말하고 돌아갑니까? 또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말하고 나가고 들어옵니까? 자기가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생각하고 고정된, 그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만남도 고정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죠. 믿지 못하면 그렇게 바꿔서 놓을 수가 없거든요. 바꿔서 맡길 수가 없거든요. 믿으니까 맡겨 놓을 수 있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기 인생은 생명의 불성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본래자성불 자기한테 그냥 다 맡겨 버리세요!

맡기는 자와 맡는 자

문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본래 부처인데 맡기는 자는 누구고 맡는 자는 누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맡기는 자도 자기이고 맡는 그 자체도 내가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린지요? 그렇다면 맡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 그렇죠. 자기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론으로 하면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자기가 자기한테 놓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닌 자기를 자기가 다스리면서 거기 모든 것을 믿고 놔야 '놓는 놈은 누구고 맡겨서 받는 놈은 누구냐?' 하고 비로소 진정한 궁금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알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생과 후생이 한데 합쳐서, 즉 말하자면 부와 자가 둘이 아님이 됐을 때에 비로소 그때는 뭐 맡길 것도 없고 안 맡길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으로 다 아시더라도 작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다 아시기만 하고 실천을 할 수 없다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실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미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게 뭘까 저게 뭘까 하고 사단을 붙여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을 수 있어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다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또 실천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것이 다 한군데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추구하면서 그것을, 자기 참(眞)을 한번 발견해라 이거죠. 그럼으로써 무의 세계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게. 참자기가 무의 세계의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그렇고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론적으로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게 오히려 딱 막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데도 여러분이 눈이 없어 못 보는 겁니다. 고깃덩어리만 보지 마시고 형상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신 데에 부처님은 항상 계신데도 여러분의 올바른 눈이 없어서 못 보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러 줘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일러줘도 모른다면 어찌합니까? 외려 부처님 꼭대기 올라가 앉아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알아도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가거라.' 이런 말이 있죠. 알아도 한 번 더 두드리고 가고 또는 아무리 튼튼해도 한 번 더 두드리고 건너라 이런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체험을 해보고 그 맛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범음범패집 테이프 증정)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스님이 만든 후불제실시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8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 가로 295 × 세로 210 × 너비 70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옴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돈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주입품이거나 하자시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우불제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 대한불교 법정사 051)507-7555
[계좌번호 :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www.1544o108.com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사찰 (급) 안내

서울시내 강변 최적의 요지에 위치한 1백년 역사의 사찰로써, 급박한 사정에 의해 매매코자 하오니 사찰운영을 본의로 하는 원매자가 있으면 상담을 요합니다. 중개인의 개입은 사절합니다.

- 대지 : 1천평
- 건물 4동 (대웅전, 요사채 등 대형건물)
- 주변 환경이 뛰어남.
- 매매즉시 등기 이전 가능 함.

연락처
010-2559-9487
011-686-0779

얼굴에 '자연'을 바르자



천연 에센셜 오일과 증류수만 갖춰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화장품이 여성들에게 인기다. 사진은 6월17일 열린 2005 티월드 페스티벌의 녹차로션 만들기 시연회.

천연화장품 이렇게 만드세요

녹차·아로마·어성초 등 이용한 천연화장품
자외선 오존지수 심한 여름 피부보호에 효과

햇살이 따가워지는 여름, 자외선 지수 오존지수 등을 확인하며 여성들이 피부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때다. 최근 불어오기 시작한 천연화장품 만들기는 '피부 웰빙'의 첫 걸음. 내 피부에 맞는 오일을 선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로마 요법과 함께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쓰는 자연주의자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6월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2005 티월드 페스티벌에서 자연주의(대표 문채영)가 개최한 녹차 로션 만들기 체험행사에는 많은 여성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시연에 나선 안화자 강사(자연주의)는 식물성 오일, 밀랍, 증류수를 섞어 만든 크림에 에센셜 오일과 녹차가루를 첨가한 녹차 로션을 만들었다. 시연을 지켜보고 직접 화장품 만들기에 참여한 여성들은 완성된 제품을 손에 발라보고 향을 맡으며 만족해했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천연비누 및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숙현 플라워인 대표는 "천연화장품을 이용하면 피부가 맑고 투명해진다"며 "아로마 요법으로 정신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능을 알고 나면 더 도움이 된다"고 천연화장품이 지닌 장점을 강조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아로마 오일, 어성초 등 한방재료, 채소와 과일 등을 사용, 다양한 효능을 가진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

글=강지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천연스킨 만들기



로즈워터 100g 계량.



덥힌 로즈워터에 비타민E 첨가.



글리세린 5g 첨가.



보드카 2g 첨가.



에센셜오일 1㎖ 계량.



잘 섞은 후 용기에 담기.

천연화장품 재료 판매 및 강좌하는 곳

구입처	연락처	사이트	강 좌
플라워인	(02)776-0924	diyemall.co.kr	천연비누 화장품
자연주의	(0505)562-3300	e-naturalism.com	천연비누 화장품
퓨어메이드	(0505)846-0707	puremade.net	천연비누 화장품
하우연	(031)424-1254	hauyon.net	천연비누 화장품
로얄네이쳐	(02)522-3445	royal-nature.com	천연비누 제조사 자격증 과정
새로이	(02)833-9904	www.saeroi.com	사이트에 만드는 법 공개
참자연	(031)264-1888	www.cn365.co.kr	사이트에 만드는 법 공개

천연화장품 만들기 · 사용 주의점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소독용 알코올로 소독한다.
완성된 화장품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냉장보관하며 가급적 4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천연재료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사용 전 손목이나 팔 안쪽에 발라 알레르기 테스트를 거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피부타입을 검사받아 본다.

피부타입별 좋은 아로마 오일

민감성피부–아보카도 오일
복합성피부–아보카도 오일, 살구씨 오일
아토피–달맞이 오일, 호호바 오일
여드름–호호바 오일, 포도씨 오일

<도움말 : 플라워 인>

천연화장품 만들기

■ 건성 · 지성피부용 스킨

● **재료**–로즈워터 100g, 비타민E 오일 1알, 글리세린 5g, 40도 이상 되는 보드카 2g(건성) · 5g(지성), 에센셜 오일(그레이프 프루츠) 1㎖
● **만드는 법**– ①로즈워터 100g을 비커에 담아 전자레인지에서 1분 정도 덥힌다. ②비커에 비타민E 오일 1알을 넣고 녹이면서 50℃까지 식힌다. ③글리세린 5g, 보드카 2g(5g), 에센셜 오일 1㎖를 넣고 잘 섞는다. ④미리 소독해 놓은 용기에 담는다.

■ 중성피부용 로션

● **재료**–스윗 아몬드 오일 15g, 호호바 오일 7g, 포도씨 오일 4g, 이멀시파잉 왁스 7g, 증류수 110g, 글리세린 3g, 에센셜 오일 1㎖
● **만드는 법**–①각 오일의 중량을 측정하여 비커에 담는다. ②아몬드, 호호바, 포도씨 오일에 유화제인 이멀시파잉 왁스를 넣고 중탕 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녹인다. 온도를 65~70도 정도로 맞춘다. ③다른 비커에 물과 글리세린을 섞어 중탕 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 덥힌 후 온도를 65~70도로 맞춘다. ④둘의 온도가 같아지면 오일이 담긴 비커에 물을 부어 잘 저어준다. ⑤미리 소독해둔 용기에 담는다.

■ 건성피부용 클렌징 크림

● **재료**–코코아 버터 오일 10g, 코코넛 오일 15g, 스윗 아몬드 오일 10g, 이멀시파잉 왁스 9g, 라벤더 티 또는 증류수 80g, 에센셜 오일 1㎖
● **만드는 법**–①저울을 이용 각각의 재료들을 분량대로 정확히 계량한다. ②오일들을 한 비커에 담아 중탕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덮혀 65~70도로 온도를 맞춘다. ③증류수는 다른 용기에 담아 65~70도로 맞춘다. ④크림화 상태(걸쭉한 느낌)가 될 때까지 한쪽방향으로 계속 저어준다. ⑤크림화상태가 되면 에센셜 오일을 넣고 용기에 담는다.

■ 올리브 썬크림

● **재료**–올리브 오일 28g, 밀랍 8g, 증류수 80g, 티타늄디옥사이드(천연광물성분 자외선 차단제) 1/2 작은술
● **만드는 법**–①올리브 오일과 밀랍을 섞어 끓어오르기 전까지 가열한다. ②증류수와 티타늄디옥사이드를 섞어 끓어오르기 전까지 가열한다. ③②를 ①에 부은 뒤 믹서나 밀폐용기에 넣고 흔들어 잘 섞는다. ④크림화 상태가 되면 용기에 담는다.
건성피부–윗점 오일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21)

절기에 맞게 생활해야 건강 유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못 써서 오는 병도 많다.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든가, 돈이나 재산 문제로 속을 태운다든가, 일자리나 일거리를 잃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한다든가, 사랑이나 실연으로 심한 가슴앓이를 한다든가, 다른 동료나 이웃에 대한 배려없이 승진이나 자기 잇속에만 목을 맨다든가, 심지어는 나이 듦을 아쉬워하여 늙지 않으려고 너무 안달복달하게 되면 도리어 건강을 해치게 된다.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불면증 같은 병들의 근원을 파헤쳐보면 바로 그러한 마음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신을 너무 쓰지 않고 살아도 문제다. 정신을 제대로 쓰지 않고 지내면 알던 것도 까맣게 잊을 수 있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동안 유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만큼 독일어를 제법 구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혹시 독일인을 어디서 만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입이 꽉 막혀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의약학 생명과학 그리고 심리학 등 자연과학은 물론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까지 교재며 논문이며 국제회의에 영어 일색이다. 독일어를 써먹을 기회가 없다. 귀국 직후 웃지 못할 일화도 많았다. 부지불식간에 '카피(copy)'가 독일식 '코피'로 '팩스(fax)'가 '팍스'로 발음되어 무식한 사람으로 오해 받을 뻔한 일들이 있었다. 영어만능 시대에 독일어는 오히려 짐이 되는 야릇한 느낌을 받았다. 근자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와의 씁쓸한 대화가 생각난다. "요즈음 티베트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내 말 끝에 "영어와 중국어만 알면 세계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전혀 불편이 없는 세상인데 웬 티베트어냐?"는 핀잔이었다. 그 친구 이야기로는 요즈음 중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티베트문헌들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중국어만 알면 티베트의서(醫書)든 불서(佛書)든 아무 불편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티베트 땅에는 중국인이 더 많이 살고 있고 머지 않아 티베트어는 곧 사어(死語)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본토에서는 사어가 되고 세계 지성계에 들불처럼 부활하는 티베트어의 아이러니컬한 운명이여!

부적절한 활동이 말하기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큰소리를 계속 질러댄다든가 깔깔거리며 웃거나 노래를 불러대는 경우이다. 교직이나 강단에 종사하는 교육자나 정치인과 연예인같이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지껄여 목이 쉰 경우가 다반사다. 매일같이 환자의 호소를 들어주고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의사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이던 지나치면 탈인 것이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다섯 가지 감각을 잘 활용하고 몸도 적당히 부려먹고 말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 건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다.

병의 단기적인 근인(近因)으로 이제 기후적인 계절적 요인들을 살펴보자. 티베트 달력은 음력(陰曆)으로 한 해를 늦겨울 봄 건기(乾期)여름 습기(濕期)여름 가을 그리고 초겨울 여섯 절기로 나눈다. 그래서 절기에

부적절한 활동 병 초래, 오감 균형있게 활용해야
건기 여름보다 습기여름에 호흡기 · 관절염 조심을

맞게 복장을 잘 갖추어 입고 바른 생활 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 기후 조건으로 몸의 열기나 습기가 지나쳐 우리 몸의 세 기본에너지인 룽 때 빠 및 왜껜의 내적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어 병이 된다는 것이다.

체질에 따른 각 절기별 취약성과 병의 양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건기여름은 우리의 오뉴월에 해당하는데 이때의 환경적 성정은 가볍고(輕) 건조하여 룽의 성질과 같다. 그래서 체질이 룽형인 사람이 이 시기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영양가 낮은 가볍고 거친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몸안에 룽이 쌓이게 된다. 습기여름은 우리의 칠팔월로 비바람이 잦은 관계로 환경적 성정이 냉(冷)하다. 그래서 룽을 더욱 악화시키고 병증을 드러내서 병을 초래하게 된다. 이 시기에 천식과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질환과 관절염이 악화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이다. 가을은 우리의 구시월로 성정이 따뜻하고(溫) 지성(脂性)이다. 그래서 룽을 중화시켜 누그러뜨리게 된다.

■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주영동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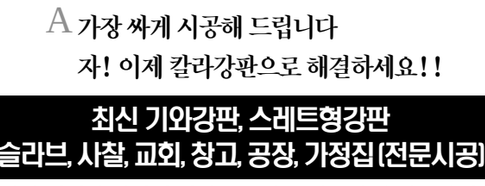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풀 안해도 됨(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大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모직 황토 먹물염색)

■ 시원한 차이나 남방, 모지, 걸망,손가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9-438-010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42) 지리산 실상사

강·논·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절터


멧노랑나비가 야생화의 꿀을 따고 있다.

지리산은 지리적으로 큰 산이다. 자연지리로나 인문지리로나 이만한 산은 남한 땅에 없다. 생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닌 무게가 다른 산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지리산 가는 길은 늘 조심스럽다. 버스에 오르기 전부터 마음의 옷매무새를 고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상사가 이 산의 북쪽 자락에 앉은 것은 신라 말 흥덕왕 3년(828년), 지리산 출신인 증각대사 홍척(洪陟)에 의해서이다.

인월 방면의 남천은 뱀사골에서 내려온 물줄기와 합수되어 만수천(萬壽川)이라는 새 이름표를 단다. 근래 들어 수량이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좀 줄긴 했으나, 갈겨니와 돌고기를 비롯해 16종의 다양한 2급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만수천을 따라 내려오면 멀리 천왕봉이 보인다. 무거우면서 부드러운 봉우리와 느리면서도 힘찬 능선은 지리산의 육성(肉性)을 여실하게 드러내준다. 후덕하고 속 깊은 지리산의 모성(母性)도 거기서 비롯되고, 백두산, 묘향산, 오대산, 덕유산과 더불어 5대 덕산으로 불리게 된 것도 그 모성 때문일 것이다.

만수천에 걸린 해탈교를 건너 절까지는 500여m 논 뜰 가운데로 길이 나 있다. 큰 산에 기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그늘 한 자리 없는 뙤약볕 시멘트 길은 모든 이들에게 유감이다.

산에 기댄 절치고 실상사만큼 너른 논 뜰을 거느린 곳도 별로 없다. 이 전답들은 실상사 사중에서 오리농법과 자운영 농법으로 유기농을 하는 현장이다. 얼마 전에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장> 인증을 얻었다.

실상사의 조경은 칠성각과 돌장승과 함께 매우 민중적인 점이 있다. 다른 절에 비해 경내에 유실수가 유난히 많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감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산수유, 모과나무, 앵두,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대추나무, 그리고 몇 그루 반송까지……. 언뜻 무질서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가운데 보광전 뒤의 개서어나무와 소나무, 칠성각 옆 말채나무, 매점 앞 풍게나무 등이 노거수 몫을 하고 있다. 사중에서 정성들여 그들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놓았다.

종무소 앞에 서 있는 풍게나무는 명패만 없다면 팽나무나 느티나무로 보아 넘길 정도로 그들 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다. 팽나무와 다른 점은 팽나무는 잎의 톱니가 상반부에만 있는 반면 풍게나무는 잎 가장자리 아랫부분까지 톱니가 나 있는 점이다.

사찰 앞 논밭 유기농법 현장으로 활용
'생태뒷간'에 창달아 경관 즐기게 배려


해우소 용변 칸 앞 창은 바깥의 경관을 즐기도록 한 것. 이 창을 전통한옥에서는 눈꼽재기창이라 부른다.

극락전 공간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생태뒷간이 자리하고 있다. 폐자재로 만들어 마치 공사장의 가건물을 연상케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계산 송광사나 선암사에서 볼 수 있는, 왕겨나 톱밥 같은 매질을 이용한 발효시스템 뒷간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깔대기가 달린 관을 통해 오줌을 따로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용변 칸 앞에 창을 뚫어 바깥의 경관을 즐기도록 한 것이다. 겨우 손바닥만한 구멍일 뿐인데, 쭈그리고 앉으면 창 밖으로 실상사 논 뜰과 삼봉산-백운산-금대산을 잇는 산줄기와 푸른 논 들이 한 눈에 보인다. 이 창을 전통한옥에서는 눈꼽재기창이라고 부른다.

극락전 가는 길목의 연못엔 수련이 너무 무성하다. 수련의 잎들이 우굴쭈굴해진 것도 그 때문이다. 절반 넘게는 솎아내야 할 터이다. 게다가 연못의 황소개구리 울음소리는 귀에 걸리고, 연못 속에 풀어놓은 비단잉어는 눈에 걸린다. 둘 다 격에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화엄학림 뒤로 논과 미나리깡이 있는데, 여름이면 논과 논도랑에 보풀과 물매화가 꽃을 피운다. 올해는 때가 일러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잡풀이라 하여 무심코 뽑아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습지공간을 마련해 옮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상사 극락전 가는 길목의 연못에 수련이 무성하다.

연못내 수련 잉어 황소개구리 '부조화'
약수암 가는길 30여년생 소나무 가득

제법 그윽한 솔밭 안에는 실상사 식구들이 재배하는 표고버섯 재배장이 있고, 솔붓꽃을 비롯한 몇 종의 야생화들이 피어있다.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병약한 나무들은 숲 관리 차원에서 적당히 솎아줘야 한다. 지금도 간벌 시기가 늦다.

낯선 침입자들이 나타나자 물떼까치들이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실상사 주변에는 강과 농경지와 숲이 두루 어울려 있기 때문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들이 많은 편이다. 소쩍새와 붉은배새매는 천연기념물이며, 청호반새와 검은댕기해오라기 등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보호종이다.

약수암(藥水庵) 가는 길은, 경사가 좀 있긴 하지만, 1km 남짓한 산길은 걸어볼 만한 숲길이다. 특히 30년생 전후의 청솔들이 뿜어내는 솔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 없다. 때죽나무, 쪽동백, 산딸나무 등의 활엽수들도 간간이 섞여 있지만, 소나무 단순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소나무들이 울울창창하다.

이 구간의 야생화들은 울창한 숲 때문에 다양성이나 개체수가 좀 떨어지지만, 그를 대신해 때죽나무와 여름싸리, 산딸나무 등이 때맞춰 꽃을 피워내고 있다. 꿀을 따기 위해 멧노랑나비와 왕자팔랑나비 등 몇 종의 나비들이 객을 따라 산길을 오르고 있다.

약수암의 본전은 실상사와 같은 보광전이다. 보광전에 모셔진 보물 목각탱화는 나무속에 깃든 불보살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낸 솜씨는 천의무봉이다.

암자 주변도 소나무들이 우점하고 있다.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 단순림은 산불에 취약하다. 그래서 보광전 뒷길은 숲을 베어내 내화수림대를 만들었다.

해우소는 가운데 창고를 둔 3칸짜리 아담사이즈이다. 해우소에서 나온 거름으로 스님들이 손수 채전을 가꾸고 있다. 그 채전의 고수도 해우소 거름을 먹고 자란 것이다. 때마침 하얀 꽃을 피웠다.

고수는 지중해 원산으로, 독특한 빈대 냄새가 음욕을 다스린다고 하여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심어왔으나, 근래 들어 거의 씨가 말라버렸다. 떼 묻지 않은 지리산 비구니 토굴에 와서야 겨우 만난 고수. 그러나 반가움보다는 아쉬운 감정이 더 먼저 달려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고수는 독특한 빈대 냄새가 음욕을 다스린다고 하여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심어왔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로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초원과 쪽빛하늘이 끝없이 이어지는 몽골!

불교방송에는 오는 **7월 14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몽골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라마교의 중심지인 간등사원에서의 법회를 시작으로
몽골초원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바얀고비, 몽골의 옛 수도
하르호름의 에르덴죠 사원과 잔바자르 박물관을 방문하며
울란바트르의 테를지에서는 승마와 유목민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705의 5301번에서 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참 금 : 1,200,000원 (4박 5일)
- 비 자 : 반명함 사진 1장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비자비, 가이드비,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 신청마감 : 출발 12일전까지
- 출 발 : 7월 14일(목요일)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7 / 14 (목)	인 천 울란바트르	OM302 전용버스	11:00 14:30	인천국제공항 출발 울란바트르 도착 후 호텔체크인, 자이승 전승탑, 이태준열사 공원 견학 후 호텔휴식	조	
					중	기내식
					석	중국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2인 1실)		
제02일 7 / 15 (금)	울란바트르 바얀고비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간등사원 법회 및 한몽불교 교류간담회 (간등사원·몽골라마교의 총본산, 중앙아시아 최대의 금동불상) 점심공양 후 바얀고비로 이동 저녁공양 후 (몽골전통요리 허르식 제공) 밤하늘의 별 감상하며 캠프파이어	조	호텔식
					중	한 식
					식	특 식
				HOTEL 게르(4인 1실)		
제03일 7 / 16 (토)	바얀고비 하르호름 만투하이 울란바트르	전용버스	전일	기상 후 바얀고비 일출감상 및 산책 아침공양 후 하르호름으로 이동 13세기 몽골 징기스칸제국의 도읍지 에르덴조사원 (몽골 최초의 사원 108개의 탑이 있음) 방문, 점심공양 후 만투하이 여제기념비, 한빈사원 방문 울란바트르 귀환	조	현지식
					중	현지식
					식	현지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7 / 17 (일)	울란바트르 테를지 울란바트르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잔바자르 박물관 관람 후 테를지로 이동 점심공양 후 거북바위등 기암괴석 감상, 야생화 군락지 관광 후 유목민과 함께하는 승마체험, 미니 나담축제, 몽골 전통공연 관람, 유목민 생활탐방(수태차등 시식, 목가생활체험)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식	현지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5일 7 / 18 (월)	울란바트르 인 천	전용버스 MU5312 MU5041	오전 14:30 17:35	아침공양 후 시내투어 및 자유쇼핑 울란바트르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성불하십시오-	조	호텔식
					중	기내식

문의전화 : BBS 불교방송 (02)705-5301~3 / www.bbsfm.co.kr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